

고서향의 프리미엄 옥션

제9회 고완관지

경매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오후 3시

전시 일정

2025년 7월 17일(목) ~ 7월 21일(월)

_ 7월 20일(일) 휴관

전시장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 (신설동) 2층

※ 브랜드 소개 [고완관지 古玩觀止]

‘옛 예술품 감상에 더 이상의 볼 만한 작품은 없다. 즉, 최고의 작품들이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문장을 모아놓은 책인 [古文觀止]가 ‘옛 문장은 이것만 보면, 더 볼 것이 없다. 최고이다’는 의미를 갖는 것과 통합니다.

古玩觀止

凡									
●	○	Y	Y	Y	Y	Y	Y	Y	Y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面	郡	等	等	等	等	等	等	等	等

Part 1.

자료
& 도서 I

No. 001 - 126

001

‘조선 중요 물산’과 ‘특산물 분포도’ 朝鮮重要物産並特産物分布圖

조선총독부 상공령관, 소화8년(1833) | 101x55cm

시작가 ₩100,000

앞면에는 조선의 특산물, 교통, 상업, 농업, 수산업 등을 그린 지도[朝鮮重要物産並特産物分布圖]가 있고, 우측 하단에는 부청 소재지, 도청 소재지, 군청 소재지, 상공회의소 소재지, 상품진열관 소재지, 산업조합 소재지 등의 범례가 인쇄돼 있다. 뒷면에는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공업 등을 수록한 [조선의 산업(朝鮮의産業)]으로 구성되었다. 접혀진 부분이 찢어졌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02

[뉴-서울 NEW SEOUL] 지도

광예사(匡藝社), 1954년 | 펼친 길이 54.5x79cm, 절첩 24면

시작가 ₩100,000

서울의 중요기관 찾기와, 서울 모습 사진, 간선도로확장계획내역, ‘韓國鐵道網詳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서울지도 좌측 하단 여의도동에 대한국민항공사(KNA)가 보유한 더글러스 DC-4 항공기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 여의도가 비행장으로 사용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필로 사용 흔적과 모통이가 찢어졌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03

학습용 놀이 지도 [조선유람도 朝鮮遊覽圖]

일제강점기(無刊記) | 108x62cm

시작가 ₩100,000

조선의 지리를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하여 게임의 형식을 통해서 조선의 지리를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만든 조선유람도이다. 전국13도의 각 부,군의 위치를 지도에 그려 배열하되, 경성부분은 이 지면이 협소하여 경성부군의 지형을 오른쪽에 별도로 만들었다.

이 놀이의 형식은 육각을 던져서 6점을 얻는 자는 신사이니 태학관, 5점은 광사이니 자지동, 4점은 납객이니 청량사, 3점은 농부니 모범장, 2점은 어부니 제주정, 1점은 미인이니 선유봉에 붙이도록 하였다.

6명이 각기 해당지역에 도착하면 술 1잔을 주는데, 예를 들면 광사가 광지에 도달하면 납객, 농부, 어부, 신사, 미인 5인이 각기 술 1잔을 광사에게 주고, 광사와 납자가 한 곳에서 상봉하면, 어부와 농부가 상봉하면, 미인과 신사가 상봉하면 후래자에게 술1배를 준다. 이런 식으로 놀이를 진행하면서 조선을 유람하고 조선의 지리를 배우는 희귀한 학습용 놀이지도이다.

동쪽 바다 가운데 울도가 있으며, 울도가 강원도 소속으로 되어 있다. 배접하여 보존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004

1949년 1~6월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공보]

내각사무국 편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사무국, 1949년 | 24.5x18.2cm, 288쪽

시작가 ₩100,000

북한 정권 수립후 1949년 1~6월에 시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공보]이다. 계획부분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22호 [공작기계등록에 관한 결정서], [1949년 제2차 국정가격운임 및 요금에 관한 결정서] 등과 민족보위부문, 내무부분, 외무부분, 농림부분 등 전반적인 분야를 수록하였다.

표제 이면에는 '百想紀念藏書'인이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005

[박정희 대통령 자료] 7점과 [최규하 대통령 자료] 2점 총 9점 일괄

1971~1998년 | 29.5x22.5cm 외, 40쪽 외

시작가 ₩200,000

- 1) [제7대 박정희대통령각하 취임 경축예술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1971년
- 2) [제8대 대통령 취임식 식순], 대통령 박정희, 1972년
- 3) [제8대 대통령 취임식 式辭], 국무총리 김종필, 1972년
- 4) [제9대 대통령 취임식 식순], 대통령 박정희, 1978년
- 5) [제9대 대통령 취임사], 대통령 박정희, 1978년
- 6) [제9대 대통령 취임식 式辭], 국무총리 최규하, 1978년
- 7) [제10대 대통령 취임식 식순], 최규하 대통령, 1979년
- 8) [제10대 대통령 취임사], 최규하 대통령, 1979년
- 9)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1998년, 40쪽

006

순은제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기념 메달]과 [케이스] 세트 일괄

1978년

메달 : 지름 4cm. 무게 40g, 순은제, 케이스 : 10.5x7.5cm

시작가 ₩100,000

앞면에는 [박정희 흉상]과 뒷면에 [대한민국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기념, 1978.12.27]로 된 순은제 [대한민국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취임기념 메달]과 케이스] 세트이다. 상태는 매우 좋다.



007

일제강점기 희귀 엽서 11종 57점 일괄

일제강점기 | 9x14cm, 57장

시작가 ₩500,000



- 1) [진주명소 경상남도 도청 정문] 엽서 1점(1925년이전)
- 2) [이왕세자전하와 이왕세자비전하, 약궁진전하], [한국황태자전하 靜岡御安着], [동경권업박람회], [한국평양만수대황제폐하行幸기념비](1911), [大典觀兵式記念](1938) 엽서 5점
- 3) 칼라판 [부산부청사] 등 부산관련 엽서 4점과 칼라판 [목포부청과 부두] 목포관련 엽서 등 3점, [조선마산부청] 엽서 합 8점
- 4) [인구관련], [釜山移出牛檢疫所 관련], [조선지 산업](1924) 엽서 3점
- 5) [경성경기도청] 엽서 2점,
- 6) [청진세관지서] 등 함경관련 엽서 4점과 기타 엽서 3점 합 7점
- 7) [대구부청] 등 대구 관련 엽서 4점
- 8) 칼라판 [농부晝食] 등 조선풍속관련 엽서 4점
- 9) 전북 익산군과 옥구군 지역 [益沃水利組合] 엽서
- 10) 기생관련 엽서 20점
- 11) 칼라판 [경성 장충단공원]과 [개성선죽교] 엽서 2점

008

한국의 민간 설화집 [Tales of a Korea Grandmother]

Frances Carpenter 著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47년 L23x16cm, 287쪽, 영문

시작가 ₩100,000

미국의 민속학자, 사진작가인 프랜시스 카펜터(FRANCES CARPENTER)가 한국의 민간 설화 31편을 모아 삽화(15개)와 함께 펴낸 책이다. 매우 양호하다.





009

최승희의 딸로 무용가로 활동한 안성희의 [한국무용 Корейский танец]

모스크바(Moscow) 국립예술출판사(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956L22.5x17.3cm, 146쪽

시작가 ₩100,000

안성희는 최승희의 딸로 실제 무용가로 1950년대부터 북한에서 어머니의 뒤를 이어 무용 창작 및 지도를 했다. 이 책은 한국무용의 기본적인 지침서로 한국무용을 그림동작과 설명을 통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3가지 주요 춤은 ① 여성 독무(танец девушек) ② 부채춤(танец с веерами) ③ 행복한 청춘(Счастливая молодость-남녀 군무)으로 구성돼 있다.

010

1964~1965년 뉴욕세계박람회 [팸플릿] 6종

1963년 | 13.5x20cm, 7쪽 외

시작가 ₩100,000

1964~1965년 뉴욕세계박람회 [팸플릿] 6종이다.

- 1) 한국 관(Pavil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2) 수단 관(Pavilion of the republic of Sudan)
- 3) 레바논 관(Pavilion of Lebanon)
- 4) 루이지애나 관(Pavilion of Ouisiana)
- 5) 미국 이스라엘 관(Amercan-Isreal Pavilion)
- 6) 미국 철강 유니스피어 행사(United States Steel Unisphere Ceremonies)



011

장단·도라산 중공군 고지전 작전지도

중국인민지원군, 1952.10. | 52x33.5cm

시작가 ₩100,000

이 지도는 1952년 10월2일~6일까지 중국인민지원군 제65군 제194사단 제582연대가 경기도 장단·도라산·서방리 일대에서 실행한 고지 점령 작전을 기록한 실전 작전 지도이다. 도라산리(都羅山里), 장단(長湍), 서방리 등 DMZ 남측지역 지명이 포함 되어 있으며, 시간대별 공격 흐름(10시, 11시 30분, 12시 15분, 14시)과 부대 전진선, 점령선 등 부대 기호까지 상세히 나타나 있다.

중공군이 남한 도라산리까지 실제 작전을 계획한 희귀한 실전 지도로서 전쟁 후반기 고지전 양상과 DMZ 전방 남하기도의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대번호, 고지번호(581, 584 등), 실제 전진 방향 등이 세부 기입돼 있다.





012

1930년대 조선 관련 판화가 실린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판화

Malcolm C. Salaman

The Studio Publicationa Inc., 1933년 | 30x21.5cm, 6쪽+8장

시작가 ₩100,000

조선의 서울 동대문, 조선의 모자상, 조선 국악연주상 등 8점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다. 제1번 작품의 제목은 “East gate, seoul, sunrise”, 제7번 작품의 제목은 “Korean mother”, 제8번 작품의 제목은 “Court Musicians, korea”이다. 한국 작품은 3편이고 나머지는 홍콩, 중국 소주의 풍경과 인물을 묘사하였다.

엘리자베스 키스(Elizabeth Keith, 1887~1956)는 동북아시아, 동아시아의 풍속을 소재로 다양한 목판화를 남긴 영국의 여성 판화작가이다.

013

비행기 도판과 사진이 수록된 미 공군 메뉴얼 [Ground Observers' Guide]

Department of the Air Force, 1951년 | 21.5x28cm, 26쪽+28장

시작가 ₩100,000

1951년 미공군부에서 발행한 [지상 관측자 가이드(Ground Observers' Guide)]로 28장에 걸쳐 비행기 도판과 사진이 수록된 미 공군 매뉴얼이다.



014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전신인 [경성 약학전문학교 졸업 기념사진]

소화13년(1938) | 21x27cm

시작가 ₩100,000

사진관 [Keijo(日の光)]에서 촬영한 경성 약학전문학교 졸업 기념사진이다. 경성약학전문학교는 일제강점기 조선의 유일한 약학교육기관이었던 사립 전문학교이다. 1918년 조선약학교로 개교하여 1930년 경성약학전문학교로 승격되었고, 광복 후에는 사립 서울약학대학으로 운영되다가 1950년 서울대학교에 편입되었다.

015

한국전쟁 시 미군이 제작한 [태극기]

1950년초 | 45x65cm, 실크에 그림

시작가 ₩100,000

실크 위에 태극기를 그렸고, 게양하기 위해 묶는 끈도 당시의 전형적인 미군이 사용한 재료이다. 태극 가운데가 벌어지고, 건곤감리의 형태도 한국전쟁 중 학도병들이 들었던 태극기 사진과 1954년 수복 당시 게양한 형태와 같다.



016

박천 공습 작전보고서

미 공군, 1952

29.2x23cm, 5쪽(지도 등 사이즈 다양)

시작가 ₩100,000

영문으로 된 표지에는 “MISSION REPORT FOR ATTACK ON PUCKCHON, NORTH KOREA 9/15/52. INCLUDED IS NARRATIVE SUMMARY, PHOTOGRAPH, AND OVERLAYS DELINEATING TARGET AREAS.(1952년 9월 15일 북한 박천 공격 작전 보고서. 내용에는 서술 요약, 사진, 그리고 목표 구역을 구분한 지도들이 포함되어 있음)”라고 돼 있다.



담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작전보고서 요약(DW 4155)

- 지역: 평안북도 박천군(Puckchon, North Korea)
- Target Area #1: 본부로 추정되는 지역이며 일부 폭격 피해 및 100여 개의 보급대피소가 존재
- Target Area #2: 약 36개 보급용 건물이 존재
- Target Area #4: 여러 대형 창고와 300개 이상의 소형 보급용 건물 존재
- 기상: 구름 3~5/10, 시야 5마일
- 적군 활동: 없음(Negative)
- 관제 기기 준 타격 확인 범위: 50%
- 주도기 편대: 8비행 중대 및 편대 1호, 11호
- 서명자: Andrew E. Kalnik 대위(Intelligence Officer)

○ 지도 및 사진 구성 분석

▶ 드로잉 작전 지도(P01, P11)

-붉은색 구획 4개로 나뉘어 있으며, 실제 공습 목표 구역과 대응됨

-각 건물에 식별번호 또는 우선순위 표시, 타격 방향(Run), 타 이밍

▶ 항공 정찰 사진(TGT #90)

-실제 목표 구역의 항공 사진으로, 도로망과 강줄기 명확히 드러남

-타격 목표물 클러스터 및 도시 구조 확인 가능

-드로잉 지도와 정확히 일치함

▶ 미공군 항공항로 지도

-평안북도 일대 포함, 박천(Puckchon) 명시

-XD/XC구역 기반 작전 계획, 항공기 고도 및 진입 경로 나타냄

-작전 연계 지도로서 높은 역사적 가치



017

충주비료공장 [뇨소비료] 홍보지 달력

1959년 | 77x50cm

시작가 ₩200,000

충주비료공장 [뇨소비료] 홍보지 1959년 달력이다.

018

주한미군 포병부대 기념단지

1950년대 초반 | 높이 25, 윗지름 14, 밑지름 13cm

시작가 ₩100,000

이 기념단지는 1950년대 초반, 특히 한국전쟁기(1950~1953년) 또는 직후에 주한 미포병 부대 소속 간부에게 증정된 기념품이다(포병 중대 주임 상사에 헌정). 일반 관광용 기념품과는 달리, 실전 배치된 주한 미군부대 간부에게 수여된 수제 도자기 기념품이다. 이름이 명기 되고, 도자기 자체도 한국 전통 양식에 기반한 점, 수작업 채색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 문양 분석

- 태극 문양과 용 : 한국을 상징하며 미군의 화력 우위를 상징하는 요소.
- 'WSD-K(Weapons Support Division - Korea): 탄약, 포병 관련 부서로 추정.
- 교차된 포신 문양 : 미육군 포병부대의 전통 상징으로 화력과 직결됨.
- 'SFC'(Sergeant First Class) : 미육군의 E-7 계급에 해당하는 상사.
- 'SMOKE' : 미군 구어에서 중대 주임 상사를 뜻함.
- 'BURNELL' : 기념단지 수령자



019

태극기가 보이는 베트남 태피스트리(직물공예) 기념 벽걸이

베트남, 1968~69 | 95x35cm, 직물

시작가 ₩100,000

1968~69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병사의 전역(복무) 기념품이다. 상단에 한국 태극기가 들어가 있으며 하단에는 특별히 고유번호(No 1192684)가 표기되어 있다.



020

[영화백과 映畫百科] 제1집

영화백과편찬위원회, 1975년
26x19cm, 266쪽

시작가 ₩100,000

영화사 관련 인물사진과, 초창기 영화작품의 사진이 수록된 영화관련 역사서로서 가치가 높다. 표제 이면에 [南荃南監督惠存]이 수기되어 있다.



021

춘천 국제 애니타운 페스티벌 [만화 그리기 대회] 작품집

1999년 | 25x27cm, 57장

시작가 ₩1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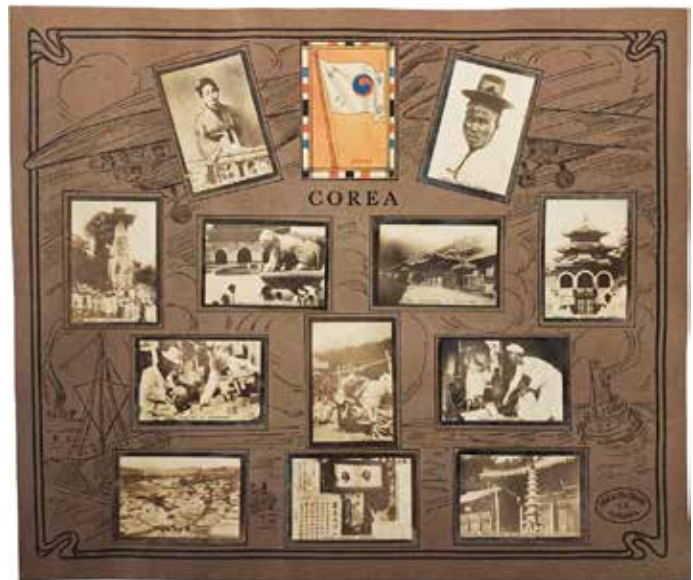
022

한국관련 [사진 담배카드 모음 액자]

1900년대 초 | 26x30.5cm, 액자 33x45cm

시작가 ₩100,000

[큐바 담배제조사(Tabacalera cubana S. A. Habana)]의 명문과 태극기, 선비, 은진미륵, 한국관련사진이 있는 담배카드 13개를 모아 수록한 액자이다. 도적들은 참수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예시로 참수된 사진을 걸어놓은 문서들과 '안동지방'이라고 쓰인 공문서가 부착된 방벽을 촬영. 하단에는 'Corea-Jisticia Coreana(한국-한국사법)'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다.



023

구한말 정세와 조선지도가 수록된 프랑스 주간 화보신문 [Le Petit Journal]

1894년 9월 3일 | 45x30cm, 8쪽

시작가 ₩100,000

구한말 정세와 조선지도가 수록된 프랑스 주간 화보신문 [Le Petit Journal]이다. 1894년 9월 3일자 신문으로, 청일전쟁 한 달 뒤의 동북아 정세를 다루고 있다. 청군과 일본군의 대치 상황 지도가 있는데,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고 조선영토에 포함되어 있다.

지도의 일본 해양 경계선은 "Limite des eaux japonaises"라는 문구와 점선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울릉도와 독도가 있는 "I. Ouen-San"(우산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이 지도는 청일전쟁 한 달 후 동북아 정세를 다루고 있는데 좌측 상단에 청군과 일본군이 대치한 상황을 보여주는 별도의 지도를 그려 넣었다. 이외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 각 도시에서 조선으로 입국하는 항구 등을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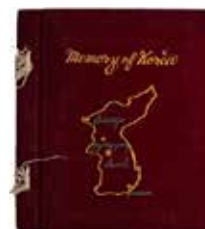
024

주한미군 웨버가 한국에서 찍은 생활 풍경 사진 등을 수록한 [사진첩]과 [사진액자] 등 2점 일괄

1957년 | 29x25cm, 25장

시작가 ₩100,000

주한미군 제임스 웨버(J. Weber)의 [코리안 메모리(Memory of Korea)] 사진첩과 사진액자이다. 사진첩에는 한국에서의 군 생활과 한국 풍경 등 100여장의 사진과 연하카드,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수록하였다.





025

구한말 군인이 사용한 [이화문양 버클]

구한말 | 4.5x7cm

시작가 ₩400,000

구한말 군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화문양 버클]이다. 이 화문양은 대한제국의 국장, 조선 왕실, 대한제국 황실의 가문인 전주 이씨를 상징하는 문양이다.

026

대한제국 광무연간 [관보 官報] 호외 16부 20매 일괄

光武9~10年(1905~1906) | 30x22cm, 20매

시작가 ₩500,000

광무9년 1905년 10월 19일부터 광무10년 1906년 3월 16일까지 호외로 16부 20매이다. 관보 號外에는 궁정록사, 서임 및 사령 등을 실었다. 호외에는 1매로 일반적으로 앞면만 수록되었는데, 광무9년 11월 7일, 광무10년 1월 21, 22, 23일에는 2매 이상으로 앞뒷면에 수록되어 있다.



027

금강산(MT. KONGO) 여행기념품 휴대용 [일체형 칼과 병따개]

Keijyo Sato Co., 일제강점기
8x3.5cm

시작가 ₩100,000

일제강점기에 [Keijyo Sato Co.,]에서 제조한 금강산 여행기념품 휴대용 [일체형 칼과 병따개]이다.



028

미사용 [대영국 지나 함대 환영기념 (大英國支那艦隊歡迎紀念) 엽서]

明治39年(1906) | 14x9cm

시작가 ₩100,000



029

근대 한글 [혼례물목단자]

근대 | 27x128cm

시작가 ₩100,000

물목에 오메가 시계, 백금반지, 고트, 양복, 와이샤쓰, 넥타이 등이 기록된 것으로 보아, 신랑측이 신부측에 보낸 근대 [혼례물목단자]로 보인다.





030

고종황제 어진 등을 수록한 [일청한 귀현 초상화 日淸韓貴顯肖像畫]

清水泰五郎, 明治27년(1894) | 36x72cm, 판화 인쇄

시작가 ₩200,000

중국 광서제, 일본 명치천황, 조선 고종황제, 대원군 박영효 등의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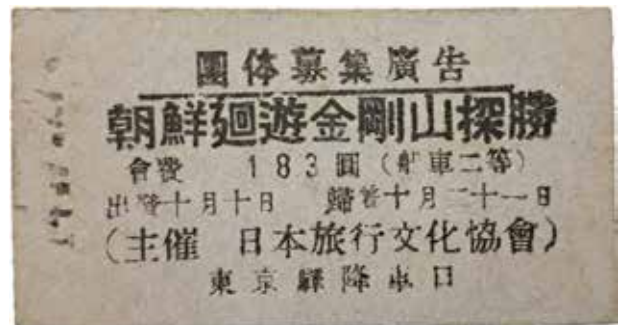
031

조선 회유 금강산탐승(朝鮮廻遊金剛山探勝) 철도승차권(鐵道乘車券)

일제강점기 | 3x6cm

시작가 ₩100,000

뒷면에는 일본여행문화협회주최 단체모집광고 조선회유금강산탐승 회비 183원 향차 2등 출발 10월 10일 귀착 10월 21일이 기재되어 있다.



032

[제주도 명승 회엽서 濟州道名勝繪葉書] 세트 9매

田口商店, 일제강점기 | 9x14cm, 9매

시작가 ₩400,000

제주도 서귀포의 상황을 파라노마 연결한 3매, 서귀포 정방폭포, 서귀포 천지연, 서귀포 감굴원, 한라산 기형 오백나한, 서귀포 전경, 서귀포 고래인양 등 미사용 엽서 9점과 피봉이 있다.

033

[춘천 명승 회엽서 春川名勝繪葉書] 세트 8매

みやげ屋, 일제강점기 | 9x14cm, 8매

시작가 ₩200,000

춘천 신연교, 우두산, 소양정, 춘천본정소학교, 춘천공립중학교, 춘천고등여학교, 도립병원, 소양교 등 미사용 엽서 8점이다.





034

조선근대 화폐 동전 [1892년 일본 황동화(一分黃銅貨)]

開國501年(1892) | 2.5cm

시작가 ₩100,000

앞면에는 이화문양에 [一分], 뒤면에는 쌍용문양에 [大朝鮮開國501年 一分]이 새겨져있다. 광택이 살아있으며 표면의 상태가 양호하다.

035

교과서 [국어] 1~6학년 총 12책 합본

문교부 편
국정교과서, 1969~1971년
21x15cm, 124쪽 외

시작가 ₩300,000

1969~1971년에 문교부 편, 국정교과서에서 발행한 [국어] 1~6학년 총 12책 합본이다.
내용은 1969년 4책(1-2, 2-1, 5-1, 5-2), 1970년 4책(2-1, 3-2, 6-1, 6-2), 1971년 4책(1-1, 3-1, 4-1, 4-2)이다.



036

미국의 원조 밀가루 포대 2점

1950년대 이후 | 86x64 / 86x60cm, 2점, 면직물

시작가 ₩100,000

한글로 [밀가루 미국 국민이 기증한 것 팔거나 바꾸지 말 것] 등 14개국 언어로 표기된 면직물 포대이다.

037

동해를 동조선만해(東朝鮮灣海)로 표기한 [최근상밀 만한지도 最近詳密滿韓地圖]

榎本松之助, 明治38년(1905)
81x54cm

시작가 ₩200,000

1905년 가본송지조가 발행한 색채 [최근상밀 만한지도]로, 아시아, 여순항, 烏港軍港圖가 별도로 부기되어 있다.



남조선노동당 당원등록청원서 2점

남조선 노동당 장흥군당, 1950.9.3

33x25 / 27.7x20cm, 종이에 필사

시작가 ₩3,000,000

남로당 장흥군당 당원등록(세포 가입) 청원서이다.

같은 날 '당원등록청원서'를 쓴 김문수와 선병수 두 사람은 21세로 한 마을 친구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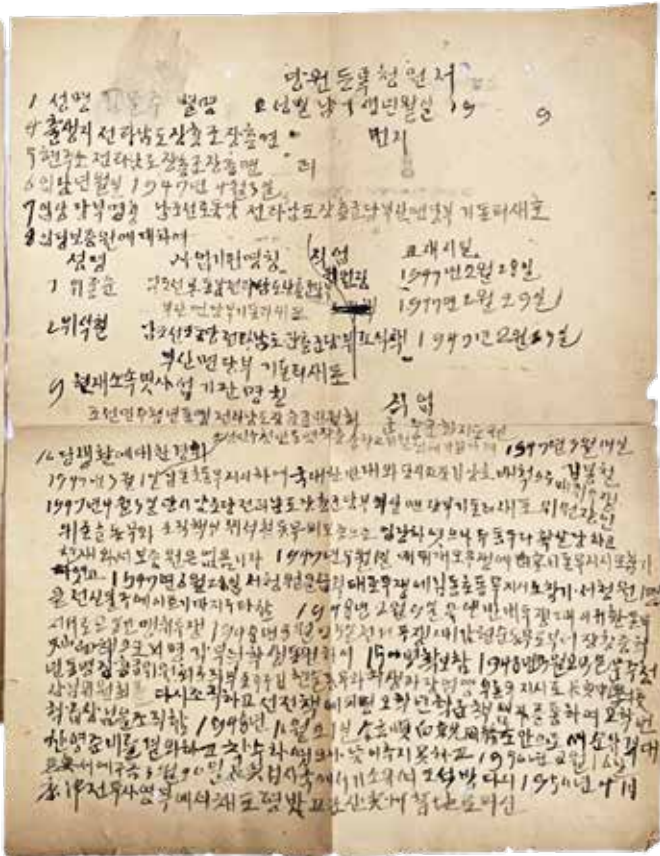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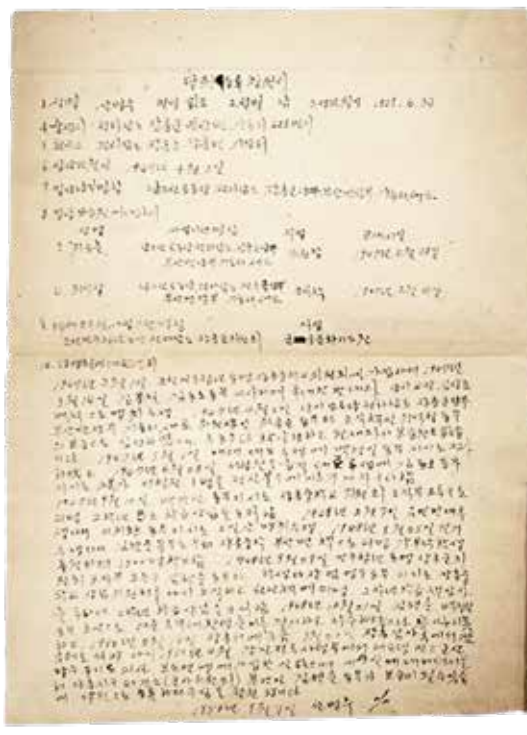
10개 항목에 대한 기입 내용 중 7번 항목 '입당당부명칭'은 공히 '남조선노동당 전라남도 장흥군당 부산면당부 기동리 새포'라고 돼 있다. 8번 항목 '입당 보증원'에는 위종순과 위석철의 이름이 있는데, 위종순은 위원장으로 돼 있다.

9번 항목 '현재 소속 및 사업기관 명칭'과 '직업'란에는 각각 '조선민주청년동맹 전라남도 장흥군위원회'와 '군중문화지도원'으로 쓰여 있다.

10번 항목 '당 생활에 대한 경위'란에는 18세 무렵인 '1947년 3월1일 조선민주청년동맹 장흥중학교 가입'한 내용에서 시작하여, '47년 4월3일 남조선노동당 전라남도 장흥군당 부산면당부 기동리 새포 위원장인 위종순 동무와 조직책임 위석철 동무의 보증으로 입당하였으나, 두 동무 다 학살당하고 현재 와서 보증인이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어 '1947년 5월1일 매대 대모 투쟁에 백형일 동무 지시로 참가'한 내용, '1947년 6월28일 서청원(서북청년회 단원)을 습격 태로투쟁에 김동호 동무 지시로 참가하여 서청원 1명을 구타'한 내용, '1948년 2월7일 유엔반대투쟁' 참가, '1948년 10월21일 김현순·백경성 동무 초안으로 여순유격대 환영준비 결의', '1950년 2월16일 장흥서 구금·석방', '1950년 4월 강진전투사령부에서 체포령 받고 군산, 광주 등지로 피신'한 내용 등이 쓰여 있다. 말미에는 '보도연맹에 가입한 일 없으며, 이 사실에 대해서는 현 장흥지구 파견소(군사위원회) 부관인 김현순 동무가 보증이 될 수 있음에 당원으로 등록하여 주심을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말은 전향한 적인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 유물을 보기 어려운 귀한 자료이다.

10번 항목 '당 생활에 대한 경위'란에는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 기에 일어난 좌·우익의 대결을 온 몸으로 마주한 두 청년의 기록이 - 본인들의 친필 기록에 의해 -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두 사람의 내용이 같은 것으로 미뤄, 함께 활동한 두 청년 중 글씨체가 세련되고 단정한 선병수의 기록을 보고 김문수가 베낀 것으로 짐작된다. 위에 언급된 '남조선노동당 전라남도 장흥군당 부산면당부 기동리 새포 위원장인 위종순'은 제주4·3사건에 깊이 개입한 이라고 하나, 자료를 찾기 어려워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039

휴대용 [크라운 티비 Crown TV] SK991

크라운 라디오 공사(Crown Radio Corp.), 연대미상
23x21cm, 높이 20cm

시작가 ₩300,000

한국 크라운 라디오 공사(Crown Radio Corp.)에서 제작한 휴대용 [크라운 티비 Crown TV] SK991이다. 뒷면에 [Crown SK991((7TV-ISA) 33-Transistor(10-Transistor Radio) TV & FM/AM 2-Band Radio] 등 제원이 기록되어 있다. 제작 연도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작동상태는 알 수 없으나, 외관상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040

조선총독부 농상국 농업장려 포스터

조선총독부농상국, 일제강점기(1940년대)
54.5x77cm, 종이에 인쇄

시작가 ₩1,200,000

산미증식계획은 '1920~34년', '1940~45년' 두 차례 실시되었으며, 조선총독부 산하에 농상국이 신설된 것은 1937년 이후이다. 따라서 출품된 포스터는 1940~45년 사이에 제작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지런한 농부가 수확도 많다는 내용을 컬러 만화로 그렸다.

‘上農은 풀이 나기 전에, 中農은 풀이 나면 뽑고, 下農은 풀이 나도 뽑지 않는다’, ‘부지런한 靑年이라, 장가도 훌륭한 곳으로 갔군’, ‘훌륭한 색시아, 찰서방도 부지런이 일한 탓이지’ 등 농업장려 내용을 담았다.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해방이후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인 미 국제협력처(ICA) 파견교육을 받은 체신부 한국인 관련 자료 14종 일괄

1915~ 1995년 | 37x27cm 외

시작가 ₩1,500,000

한국은 해방이후 ‘미군정기’를 거쳐 ‘독립정부’를 세우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1970년대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꾸준히 받아 왔다. 1955년 7월 1일 미 국무부 내에 반독립적인 기관으로 국제협력처(ICA)가 신설되었다. 본 출품 자료는 국제협력처의 원조로 전 기통신기술훈련계획이 수립되고, 우리나라 체신부에서 교육훈련을 위해 진해정, 안동렬, 박공명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는데, 출품된 자료는 이 가운데 세계 최대 통신기업인 미국 At & T 등에 파견되어 교육받은 박공명(朴公明, 1915~) 관련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 해방이후 한국 개발협력사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출품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55년 미국교육훈련과 1978년 IRAN NTC社 활동 228장 사진 [사진첩]

미국교육훈련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사진자료들이다. 1955년에 여의도 공항, Seattle, 워싱턴 기념관, 루지애나 전하국, 루지애나 TV중계장치 견학, 전기발전소, 1955년 미국정부 ICA주관 전기통신훈련계획 참여수료증 사진 등과 IRAN NTC社에서의 야유회 등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2)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김옥길 마산동창회 등의 사진 219장을 수록한 가족 사진첩(1962)

3) 마산여자중학교 제8회 졸업기념 등의 사진 189장을 수록한 가족 사진첩(1958)

4) 조두남 문하생 피아노연주회 등의 사진 142장을 수록한 가족 사진첩(1960)

5) 마산여자고등학교 제10회 졸업기념 졸업앨범(1961)

6) 이화여자대학교 졸업기념 앨범(1964)

7) 대한민국여권 6점(1974~1992)과 국가기술자격 등 수첩 6점, 경로우대증

8) 일제강점기 졸업증명서(1934~1945) 4점

9) 일제강점기 [초단파공학강좌] 등 수료증과 상장(1944~1995) 21점

10) 전기통신공업학교 조수 등 임명장과 각종 인사 관련 통지서(1942~1975) 74점

11) 가족관련 상장과 통지표 22점

12) 개인 이력서 등 가족관계 서류 일괄 50여점

13)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피봉 등 10점

14) 나무상자 1점 - 37x27cm, 높이 12.5cm



042

[최신포켓 만주지도(最新ポケット滿洲地圖)] 등 만주관련 3책 일괄

1936~1944 | 26.5x19cm 외, 121쪽 외, 일문

시작가 ₩200,000

- 1) [최신포켓만주지도(最新ポケット滿洲地圖)], 지성당서점. 1944년
- 2) [만주의 전설과 민요(滿洲の傳説と民謡): 滿洲事情案内所報告, 40], 만주사정안내소, 1936년
- 3) [약진열하 躍進熱河], 열하신보사, 1942년



043

[해방문학선집 解放文學選集] 제1집

鍾路書院, 1948년
18.2x12.8cm, 284쪽

시작가 ₩100,000

김동리의 [穴居部族], 계용묵의 [별을 헐다], 박종화의 [論介], 염상섭의 [양과자갑] 등을 수록하였다. 표지장정은 金煥基 화백이다. 표지와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44

김용호(金容浩) 서사시집 [남해찬가 南海讚歌]

南光文化社, 檀紀4285년(1952) 초판
18.8x12.6cm, 198쪽

시작가 ₩100,000

김용호(金容浩, 1912~1973)은 경남 마산 출신 시인이다. 간기에 [광운전자공업공등학교장서]인이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045

홍원(洪原) 시집 [연 鵝]

자유문화사, 1954년
19x14.6cm, 90쪽

시작가 ₩100,000

홍원(洪原, 1907~1967)은 경남 창원군 출신 시인이다. 뒤표지가 낙장이나, 상태는 양호하다.



046

신석정(辛夕汀) 시집 [슬픈 연가(牧歌)]

大志社, 檀紀4287년(1954)
18.5x12.8cm, 87쪽

시작가 ₩100,000

신석정(辛夕汀, 1907~1974)은 전북 부안 출신 시인이다. 뒤표지 이면에 시가 수기되어 있다. 표지장정은 서양화가 洪祐伯의 작품이다.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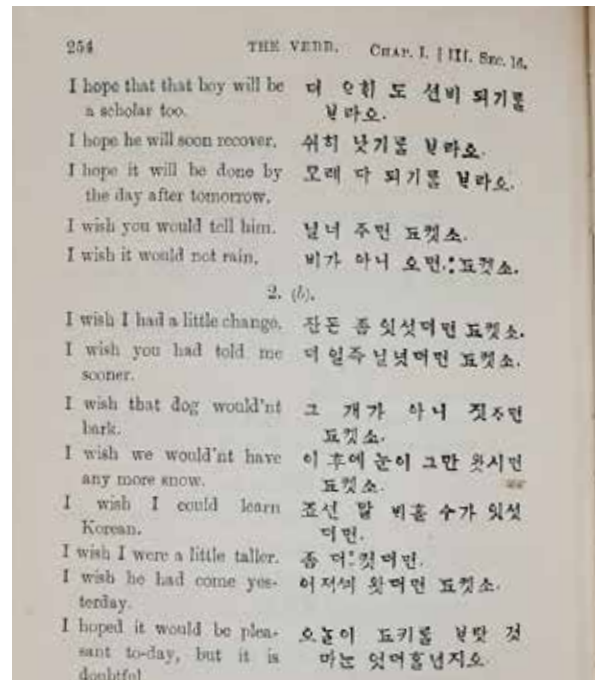
047

[선영문법 鮮英文法 Korean spoken language]

Underwood, Horace Grant 著
朝鮮耶穌敎書會, 대정4년(1915)
19.2x13cm, 475쪽

시작가 ₩1,000,000

일제강점기 미국인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가 한국어의 음성적 특징을 보완하여 1915년에 간행한 문법서. 음성학 교재이다.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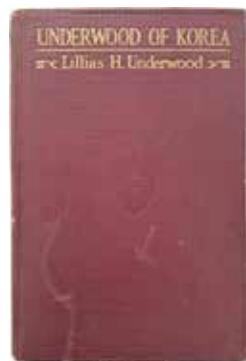
048

[한국의 언더우드(Underwood of Korea)]

Underwood, Lillias H. 著
Fleming H. Revell co., 1918년
21x14cm, 350쪽

시작가 ₩100,000

1918년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의 아내가 한국을 여행하면서 풍속, 환경, 등을 기록한 자료이다. 사진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天理圖書館] 소장인이 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049

조지훈(趙芝薰) 제1시집 [풀잎 단장(斷章)]

創造社, 檀紀4285년(1952)
20.5x14.5cm, 39장

시작가 ₩100,000

조지훈(趙芝薰, 1920~1968)은 경북 영양출생, 시인이자, 국문학자이다. 말미에 시 [가야금] 이후는 낙장으로 보인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른 판본 대조가 필요하다.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50

[간이조선어문법] 등 박승빈(朴勝彬) 저작집 2책 일괄

조선어학연구회, 1934~1937년 | 21x14cm, 97쪽 외

시작가 ₩100,000

박승빈(朴勝彬, 1880 1943)은 1931년 [조선어학 연구회]를 조직하여 독자적인 국어 문법 체계를 세운 국어학자이다. 책등에 약간의 손상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 1) [간이조선어문법], 조선어학연구회, 1937년
- 2) [정보(訂補) 조선어학강의요지], 조선어학연구회, 1934년



051

잡지 창간호 [인천공전] 등 13책 일괄

1958~1973년 | 21x15cm, 306쪽 외

시작가 ₩200,000

- 1) [인천공전], 창간호, 인천공업고등전문학교, 1973년
- 2) [사조], 창간호(제1권 제1호), 사조사, 1958년
- 3) [연세], 창간호(제1호),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1966년
- 4) [비평문학], 창간호(제1집), 한국문학평론가협회, 1971년
- 5) [실험], 창간호, 실험문학동인회, 1969년
- 6) [출판학] 제1집, 한국출판학회 편, 현암사, 1969년
- 7) [월간 세계], 제2권 제1호, 국제문화연구소, 1960년
- 8) [문학], 창간호(제1권 제1호), 문학사, 1966년
- 9) [보리수], 창간호, 동국대학교 여학생회, 1970년
- 10) [자수정] 창간호, 연양여자중학교, 연양여자상업고등학교, 1970년
- 11) [자유], 창간호, 자유사, 1968년
- 12) [동국교양], 창간호, 동국대학교 교양학부, 1970년
- 13) [예술계], 창간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1969년



052

[시조유취] 등 시조관련 도서 5책 일괄

1945~1950년 | 19.5x13.5cm 외, 236쪽 외

시작가 ₩100,000

- 1) [시조유취], 최남선 찬, 한성도서, 연도미상, 책등 보수하였음.
- 2) [시조집], 신태화 저, 삼문사, 1945년, 표제낙장
- 3) [조선시조집 부 농가월령가], 최영해 편, 정음사, 연도미상
- 4) [시조개론과 작시법] 김종식 저, 대동문화사, 1950년
- 5) [정해 시조백수], 최운정 저, 대양출판사, 1949년 5판

053

동명사에서 발행한 최남선 저 [조선상식문답] 1책과 [조선상식] 2책 합 3책 일괄

동명사, 1947~1948년 | 18x12.8cm, 394쪽 외

시작가 ₩100,000

동명사에서 발행한 최남선 저 [조선상식 : 풍속편, 제도편] 1948년판 2책과 [조선상식문답] 1947년판 1책이다. 상태는 양호하다.



054

[지나명시선 支那名詩選] 등 시집 12책 일괄

1944~1950년 | 18.5x12.5cm 외, 115쪽 외

시작가 ₩200,000

- 1) [지나명시선, 제1집], 이병기, 박종화 공역, 한성도서, 1944년
- 2) 이광수 시집 [사랑], 선문사, 1955년, 책등 손상.
- 3) [무애시문선], 양주동 저, 경문사, 1965년 재판
- 4) 박종국 시집 [사어첩], 동해당, 1956년 재판
- 5) [현대조선명시선 부 현대조선시약사], 서정주 저, 온문사, 1950년, 책등 손상.
- 6) [시론], 김기림, 저, 백양당, 1947년, 책등 손상
- 7) [현대시집, 제2권], 유치환 등저, 정음사, 1950년
- 8) [유치환시선], 정음사, 1958년
- 9) 박두진 자작시 해설 [시와 사랑], 신흥출판사, 1960년
- 10) 조병화 대만기행 시조집 [석아화], 정음사, 1958년, 책등 훼손.
- 11) 석용원 시집 [밤이 주는 가슴], 형설문화사, 1958년
- 12) 홍희표 시집 [어군의 지름길], 문예사, 1968년, 저자기증본



055

정한숙 창작집 [묘안묘심] 등 문학집 11책 일괄

1958년 | 18x10cm 외, 301쪽 외

시작가 ₩200,000

- 1) 정한숙 창작집 [묘안묘심], 정음사, 1958년
- 2) 김말봉 장편소설 [밀림, 상], 영창서관, 1955년
- 3) [렌의 애가], 모윤숙 저, 일문서관, 1961년 20판
- 4) 춘원문고, 7 [사랑의 동명왕], 이광수 저, 문선사, 1955년, 책등 손상.
- 5)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사출판부, 1937년 재판, 책등 손상.
- 6) 이백남 선생대작 [대호전], 세창서관, 1942년, 앞표지와 책등 손상.
- 7) [문학과 평론], 이광수 저, 광영사, 1956년
- 8) [그의 자서전], 이광수 저, 광영사, 1959년
- 9) [대수양], 김동인 저, 남창서관, 1944년 재판, 책등 손상.
- 10) [북풍의 정열], 함대훈 저, 조선출판사, 1944년 재판, 책등 손상.
- 11) [다정불심] 박종화 저, 을유문화사, 1954년, 내용은 458쪽 이후 낙장, 뒤표지와 책등 보수.



056

조선주조협회 잡지 [주 酒] 제10권 제6호

朝鮮酒造協會, 소화13년(1938)

22x15cm, 95쪽, 일문

시작가 ₩100,000

책등이 약간 손상이나, 상태는 양호하다.





057

조선유람가 朝鮮遊覽歌

崔南善 作 ; 金永煥, 白禹鏞 曲
東明社, 1947년 | 18x10.5cm, 57쪽

시작가 ₩100,000

1947년 동명사에서 발행 최남선 著 [朝鮮遊覽歌]로 [조선유람가] 80소절과 [조선유람별곡] 20소절 등 도합 100소절에 달하는 국토예찬시이다. 이 시에 김영환(金永煥)과 백우용(白禹鏞)이 곡을 붙였고, 경기(9소절), 충청(7소절), 전라(10소절), 경상(19소절), 강원(5소절), 황해(5소절), 평안(8소절) 등 각 지역별 역사지리적 사실을 부각한 가사와 사진을 수록하였다. 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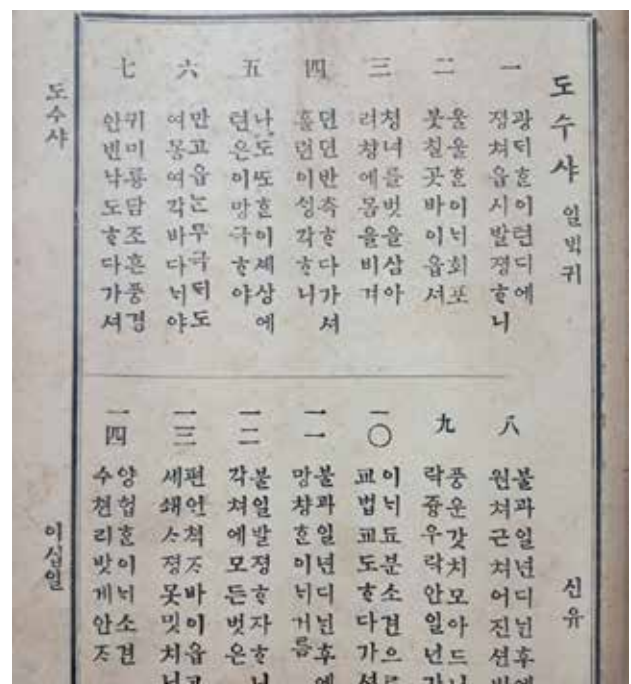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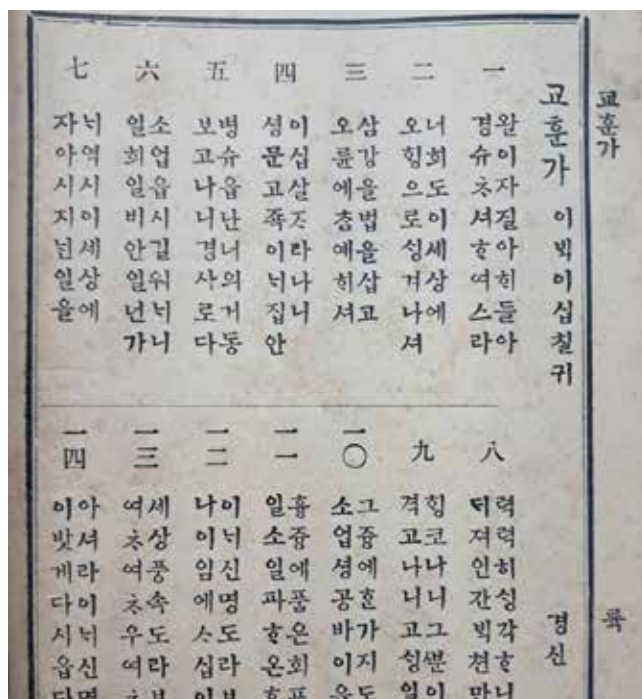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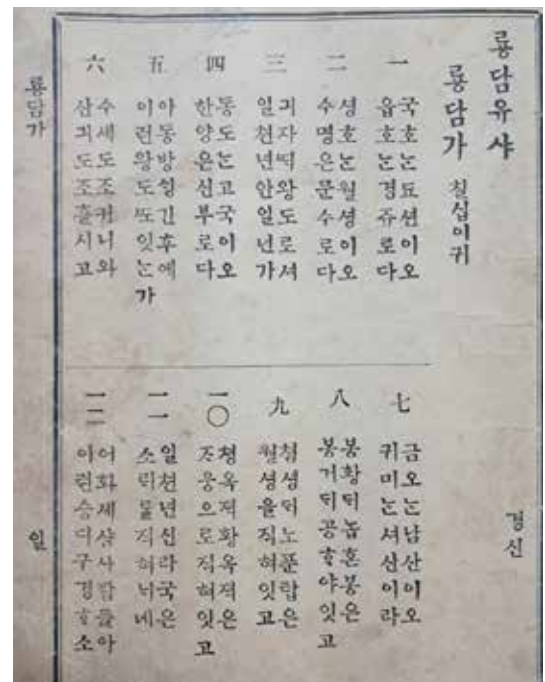
058

한글 가사체 [룡담유사]

융희3년(1909) | 21x14.5cm, 53쪽

시작가 ₩500,000

용담유사는 동학교조 최제우가 서민·부녀자들의 교리 대중화를 위해 한글 가사체로 읊은 책이다. '용담'은 최제우가 종교적 체험을 한 장소라고 한다. 내용은 '룡담가', '교훈가', '도수가', '권학가', '몽중노소문답가', '도덕가', '흥비가'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중 '용담가'가 가장 먼저 지어졌다고 하는데, 최제우가 종교체험을 하기까지의 절망적인 당시의 처지와 체험 뒤의 감격, 기쁨 등이 드러나 있다. 마지막은 '흥비가'가 수록되어 있는데, 최제우가 흑세무민을 이유로 체포(1863년 12월)되기 직전인 8월에 지어졌다. 동학을 믿는 교인들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종교적인 수양에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다. 표지가 낡았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059

[초등동물학 初等動物學]

鄭寅琥 譯輯

校洞右文館, 윙희2년(1908)

22.5x15.5cm, 82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100,000



윙희2년(1908)에 정인호가 번역편집하여 교동우문관에서 발행한 [초등동물학]이다. 내용은 가축 계급류 등 36과로 나누고 사진과 함께 수록하였다. 표지에 학부검정 도장과 趙源忠이 수기되어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060

미당 서정주 네 번째 시집 [신라초 新羅抄]

정음사, 1961 초판

19x13.3cm, 101쪽

시작가 ₩100,000



미당 서정주가 네 번째 펴낸 시집이다. 총 38편의 작품이 5부로 나누어 실려 있다. 작자는 후기(後記)에서 인연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신라초]에서부터 다음 시집 [동천 冬天]에 이르는 동안 서정주는 '신라'와 '불교'라는 정신적 지주를 바탕으로 작품 세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061

조병화 친필원고 [詩의 백귀]

1997년 | 18x25.5cm, 3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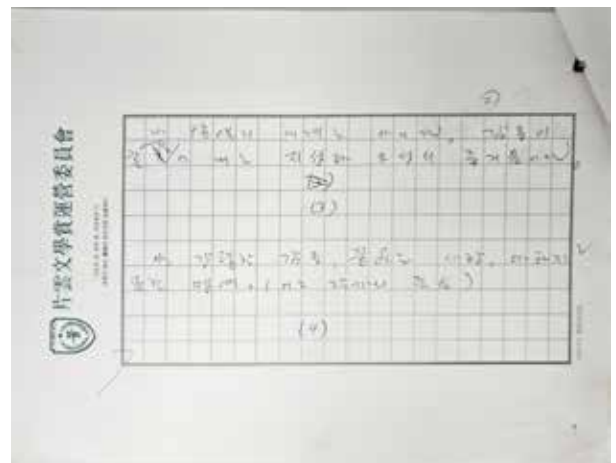
시작가 ₩1,000,000

조병화가 시에 대한 153개 단상을 쓴 원고 [詩의 백귀 : 때때로 생각나는 생각들]이다.

조병화(趙炳華, 1921~2003)는 대한민국의 시인이다.

본관은 한양(漢陽)이고 아호(雅號)는 편운(片雲)이며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하였다. 1949년 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으로 문단에 등장하였다. 1955년 중앙대학교 강사, 1957년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등을 거쳐 훗날 경희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세계시인대회장, 세계시인대회 대한민국 국제 이사장,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한국시인협회 명예 기관사인,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등을 지냈다. 1959년 아시아 자유문학상 등을 비롯하여 국민훈장 동백장, 모란장, 서울시 문화상, 3·1 문화상, 예술원상, 대한민국 문학상, 금관 문화훈장 등을 받았다.

시집으로 [하루만의 위안], [인간고도], [밤의 이야기], [시간의 숙소를 더듬어서], [공존의 이유], [남남] 등이 있다.



062

26편이 담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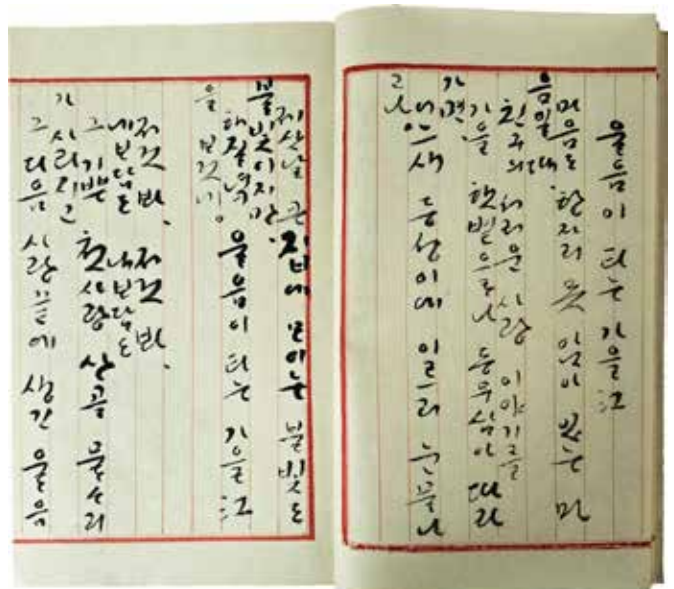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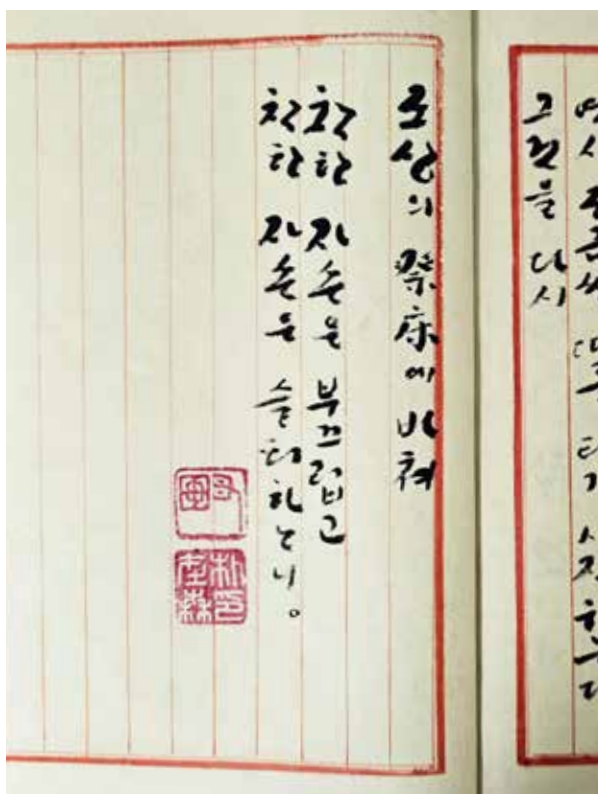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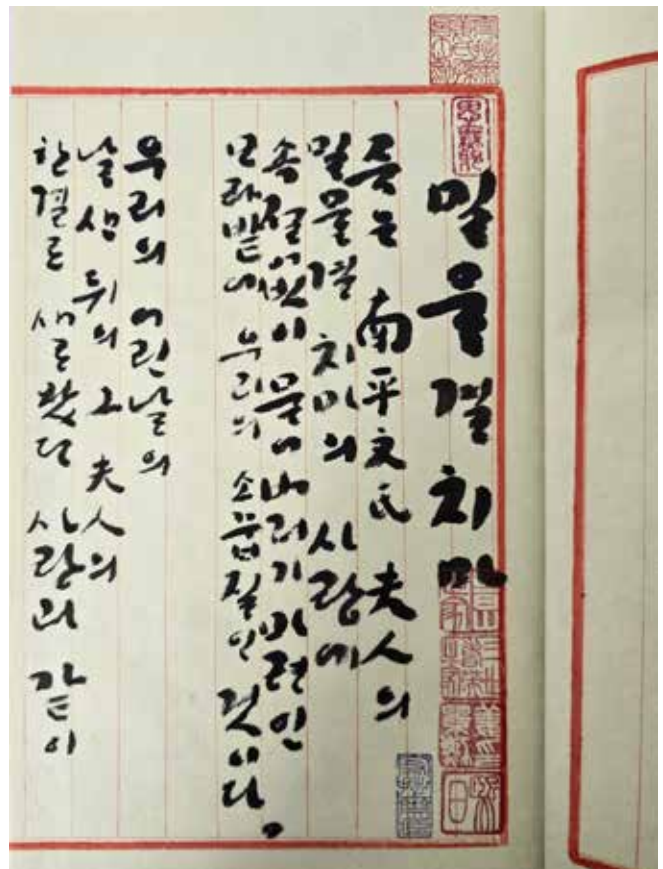
[박재삼 자선자필 시집 朴在森自選自筆詩集]

근대 | 29.4x19.6cm, 30장, 겹장 필사본

시작가 ₩6,000,000

첫 시집 [춘향이 마음]을 내고 20여 권에 이르는 시집과 시선집을 펴냈다.

시인이 그의 대표 시 [울음이 타는 강] 등 26편을 필사해 엮었다. [밀물결 치마], [산에 가면], [雅歌], [[한 名唱的 노래에서], [小曲], [한 물음], [어떤 祭祀] 등이다.



063

“꽃”을 비롯한 김춘수 시인 친필원고 23편 모음

1922~2004 | 25.5x18cm, 7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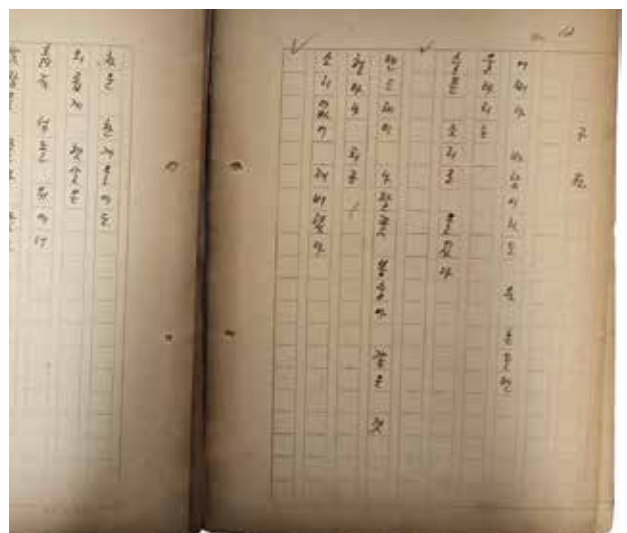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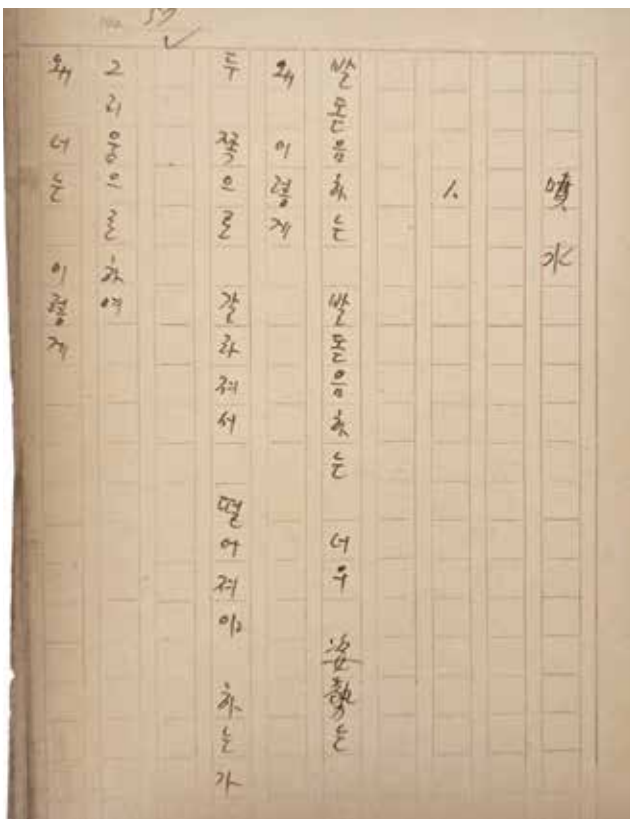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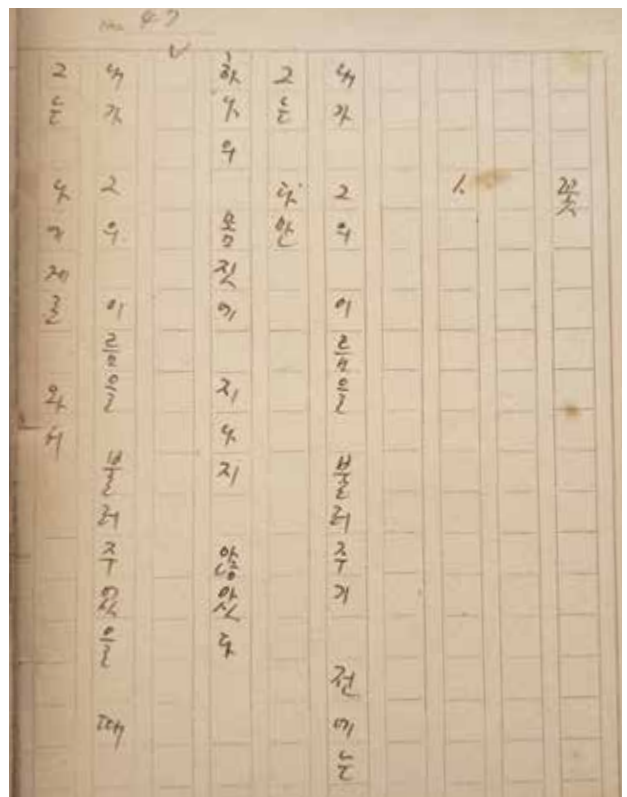
시작가 ₩5,000,000

모더니스트 대여(大餘) 김춘수(金春洙, 1922~2004)의 대표시 “꽃”을 비롯한 23편의 육필시고를 모았다.

탁월한 이론가이기도 한 시인에게 시는 “꽃”만 있는 게 아니다. [분수 噴水]의 첫 수에서 이렇게 묻는다.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 그리움으로하여 / 왜 너는 이렇게 / 산산이 부스러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하고.

출품된 23편의 시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구름과 薔薇] 2쪽, [소년] 2쪽, [瓊이에게] 3쪽, [모른다고 한다] 2쪽, [바람 속을] 2쪽, [不在] 2쪽, [가을저녁의詩] 3쪽, [눈] 2쪽, [길바닥] 2쪽, [湖] 2쪽, [북풍] 1쪽, [북풍] 1쪽, [旗 1,2] 2쪽, [旗 1,2] 4쪽, [昆蟲의 눈] 2쪽, [별 1,2,3] 6쪽, [바람1,2] 4쪽, [눈짓1,2] 4쪽, [꽃1,2,3] 4쪽, [林檎1,2,3] 6쪽, [噴水1,2,3] 4쪽, [돌1,2,3] 4쪽, [죽어가
는 것들과 죽음1,2,3] 6쪽



월탄 박종화 선생이 독립문(獨立門) 해체·이전을 슬퍼하며 지은 친필 시 [옥골의 해체 玉骨의 解體]

朴鍾和, 1979.4.10. | 25.8x17cm, 7매

시작가 ₩3,000,000

월탄(月灘) 선생이 도시 편의성에 밀려난 '독립문' 해체를 슬퍼하며 지은 시이다. 1896년 독립협회에 의해 세워진 독립문이 지은 지 84년 만에 해체 이전되었다. 시 전문을 소개한다.

[玉骨의 解體]

月灘 朴鍾和

님이시여, 님이시여
八十평생을 모시던 님이시여
三千万 겨레가 우러러 의지하던 님이시여
玉骨永姿의 獨立門 님이시여
李朝五百年
事大의 치욕을
월월 씻어버리고
自主독립의 태극기를
아름답게 아로새겨
파리 凱旋門을 본 떠서
피 끓는 나라사랑으로
쌓아 올렸던 당신
당신이 자리를 옮기시다니
말이 됩니까
손 끝이 부루루 떨립니다

당신의 春秋는 八十四歲
나보다 五年 先輩로구노
百年이 채 못 가서
당신의 玉骨이
衣裳을 풀고 解體를 당하다니
말이 됩니까

독사같은 왜인들
당신의 거룩한 玉骨에
감이 손을 대지 못했오이다
彫刻된 태극기를 깎아내지 못했오이다

三·一 독립운동 때는
밤마다 밤마다
당신의 門樓위에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높이달아
왜적들의 肝膽을
싸늘하게 만들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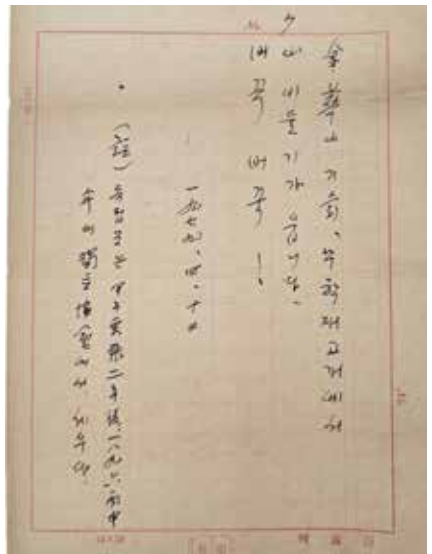
이제 百年이 채 못가서
우리사람의 손으로
聖姿를 解體하다니
말이 됩니까

길 때문 이라지요
高架通路를 내는 때문이라지요
길은 돌려내면 아니 됩니까
千百代 아들 딸들에게 권해줄
자랑할 歷史의 이 地點이
스러져버려도 좋습니까

金華山 기슭, 무학재고개에서
山 비둘기가 읊니다
버쪽 버쪽!

一九七九.四.十日

(註) 독립문은 甲午更張 二年後 一八九六丙申年에 獨立協會에서 세우다.



왜적 삼십육년동안
우리 젊은이들은
날마다 날마다
西大門밖에 우뚝 서 있는
당신의 聖姿를 바라보며
몽게 몽게 피어오르는
흰 구름장 같은
부푸러 오르는
큰 희망을 안었오이다



065

한국 현대문학의 깊이를 더한, 신석정(辛夕汀)의 미간행 친필시집 [산수도] 등 2점

辛夕汀 | 25.8x17.5cm, 41장 외

시작가 ₩8,000,000

○ 시집 [山水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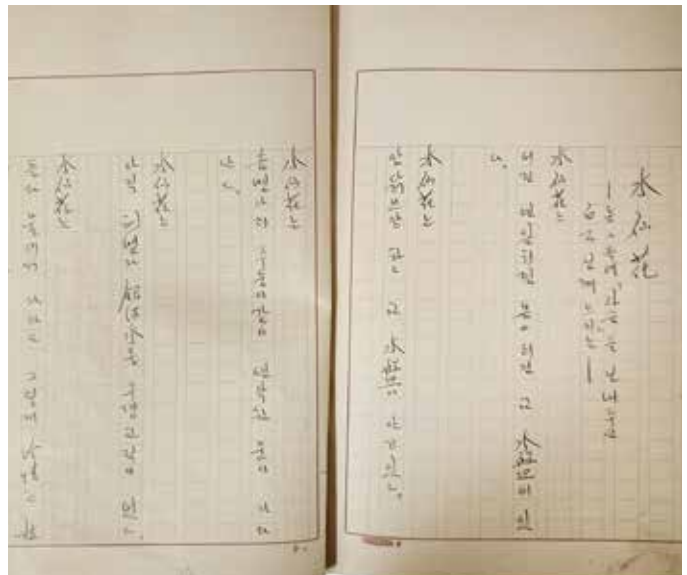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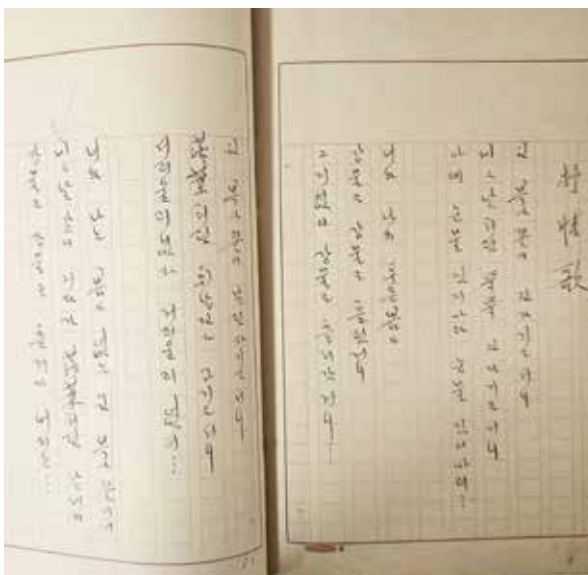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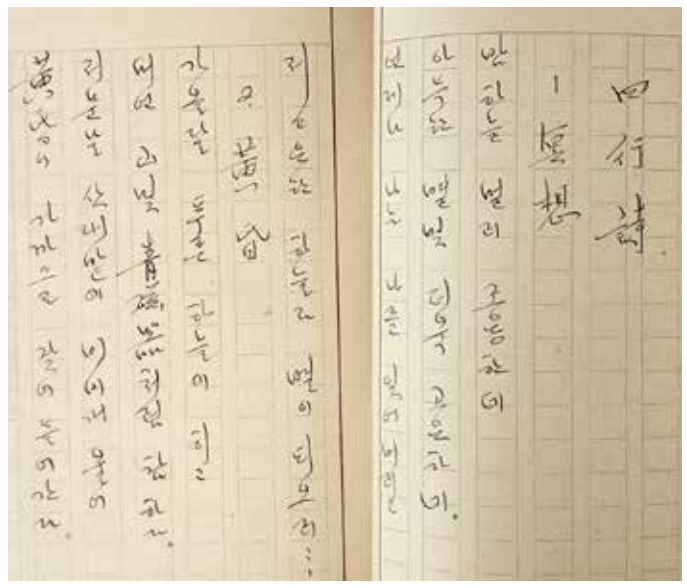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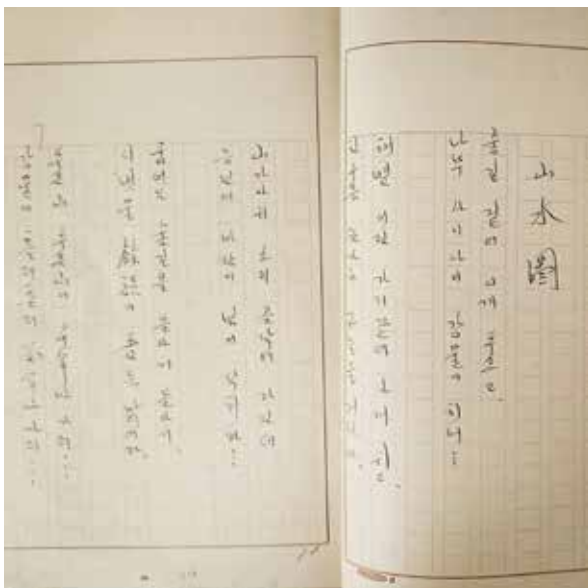
25.8x17.5cm, 41장

[촛불에 남은 이야기](10편), [산수도](15편), 슬픈 牧歌(8편),
[獻賦抄](3편) 등 36편의 친필시고가 책으로 엮여있다.

○ 대역 매창시집 對譯 梅窓詩集

浪州梅窓詩集刊行會, 1958

25.4x12cm, 82쪽



066

**소설가이며 국문학자인 백사(白史) 전광용(全光鏞)이
당대에 유명한 시인·문인 141인에게 받은 서신 자료 2책과
김소월 소설 판권에 관해 이상로에게 받은 엽서와 문인들에게 받은 엽서 100점 등 240여점 일괄**

근대 | 38.5x29.5cm 외

시작가 ₩30,000,000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서신 자료 141점 2책

박사 전광용의 사진과 당대에 유명한 시인·문인 고원, 곽일로, 권일송, 김관섭, 김규동, 김성한, 김영돈, 김용호, 김윤식, 김우중, 김정
한, 김후란, 박성룡, 박남수, 박노춘, 백철, 손소희, 안장현, 양중해, 이무영, 이상로, 이승녕, 이주홍, 월하, 전영택, 백사가 고향집에
보낸 편지, 정병욱, 정연희, 정한모, 조동일, 조연현, 최승범, 최은희, 홍윤숙 등 141인에게 받은 편지와 봉피다.

2) 문인과 지인들에게 받은 엽서 100점

김소월 소설 판권에 관해 이상로에게 받은 엽서와 강두식, 고원, 곽석용, 김경옥, 김동욱, 김민수, 김봉욱, 김봉균, 김상주, 김세환, 김
성한, 김순봉, 김영돈, 김완진, 김요섭, 김용경, 김용호, 김우창, 김근수, 김호순, 남상규, 남상설, 마해송, 모윤숙, 문선규, 박경중, 박
남수, 박대규, 박종화, 박정호, 박혁석, 방기환, 백완기, 서병입, 신동문, 신석정, 안재훈, 양원달, 엄규백, 오영진, 오현우, 원선자, 유
근주, 유현종, 이규희, 이남, 이능우, 이두현, 이명구, 이범선, 이상노, 이상보, 이상일, 이상태, 이성찬, 이승녕, 이용남, 이용서, 이인
호, 이재선, 이재희, 이종식, 이태극, 이하윤, 이형기, 임동권, 임헌두, 전경애, 전광용, 전병순, 전성용, 전수연, 전영이, 전우용, 전호
경, 전희련, 정종, 정주동, 정찬조, 정태용, 조상희, 주요섭, 지명열, 채희영, 최상수, 최현식, 추은희, 하근찬, 하남철, 하선용, 하전숙,
한정자, 한태석, 홍웅선 등에게 받은 엽서 100여점이다.



067

독립운동 단체 태극단(太極團)의 [태극기]

일제강점기 | 36x47cm, 액자 50.5x78cm

시작가 ₩500,000

태극기 상하에는 [太極團, 勇], 좌우로 [獨立萬歲 韓國必勝] 좌우중 간에는 [大田學生, 大邱民衆諸願]의 글자가 묵서된 [태극기]이다. 1919년 만주에서 조직되었던 독립운동단체 태극단(太極團)의 단체 중 대전대구지역에서 활동한 태극단 단원이 함께 맹세한 [태극기]로 보인다. 독립운동사료로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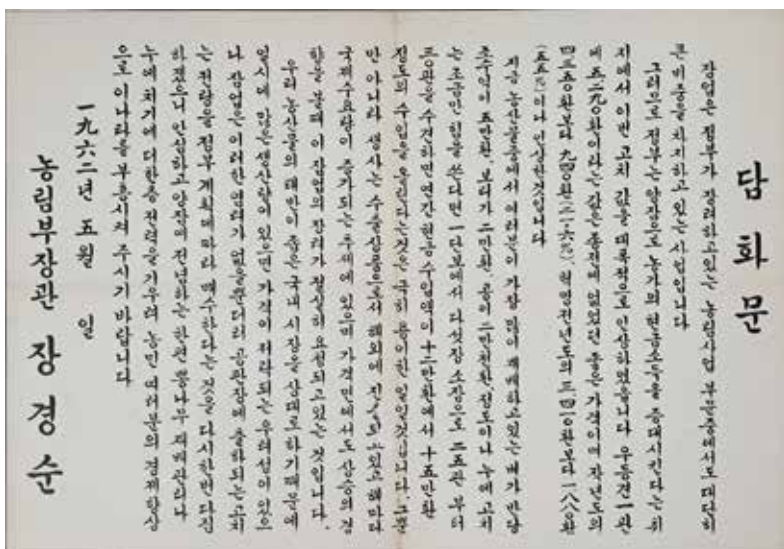
068

농림부 장관 장경순의 [담화문]

1962년 | 39x59cm, 액자 53x74cm

시작가 ₩100,000

1962년에 농림부 장관 장경순의 농가 양잠장려 [담화문]이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심문 과정을 담은 [장계초 狀啓草]를 비롯한 한국천주교 관련 자료 8종 일괄

1846~1984년 | 24x217cm 외

시작가 ₩30,000,000

1) 김대건 신부 [狀啓草], 丙午年(1846), 24x217cm.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체포와 심문 과정을 담아 임금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 초고이다. 이 보고서를 통해 김대건 신부의 선교활동과 체포 당시의 정황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장계초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한 놈이 배 위로 툭 튀어나와 '나는 서울에 사는 양반'이라고 공갈을 하고 진(鎭)에 있는 장수를 욕보이기까지 했는데, 그의 말과 모습을 보니 수상해 보이고 현격하게 우리나라 사람과 달라보였습니다.

그래서 체포하여 진 트락으로 데리고 와서 온갖 방법으로 힐문하며 조사하니 그가 자백했습니다. 이름은 김대건이고 나이는 스물다섯 살인데, 본래 대국 광동사람으로 평소부터 천주교를 믿었다..."



2) 1925년 한국천주교 특집기사로 발간한 프랑스어 주간 뉴스잡지 [르 페르랭(Le Pelerin)]

32x41cm, 액자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害) 때 프랑스인 신부인 앵베르(范世亨)·샤스탕(鄭牙各伯)의 순교 장면이 실렸다.

3)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으로 만든 [103위 순교 성인상]

카톨릭 복지상조회, 1984년

크기 54x35cm, 높이 27cm. 목재/석고

1984년에 카톨릭 복지상조회에서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으로 만든 [103위 순교 성인상]이다. 중간에 김대건 신부상을 배치하고 102분의 성인상을 상 좌우에 배치했다. 목재 바탕에 석고로 상을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10분의 성인상은 목이 잘려 손상되었다.





4) 나무 [예수 십자가]
소화4년(1929), 크기 35x21cm
목판에 십자가를 만들어 부착하고 그 위에 예수십자가를 부착하였다. 목판 상부분에 聖母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예수십자가상]에는 양팔이 잘려나가서 없다. 목판뒷면에 소화4년(1929)이 수기되어 있다.



5) 목각한 [성모 마리아 상]
밑면크기 12x11cm 높이 44cm
원통 나무로 받침대와 성모상을 조각한 것으로 보인다.



6) 해남석으로 만든 [김대건 신부 선교상]
밑면크기 7x7.5cm 높이 23cm
받침대에 [구한국시대 선교상]이 명기되어 있다. 해남석으로 받침대와 선교하는 [김대건 신부]를 조각하였다.



7) 청동판 [면류관 예수 두상(頭像)]
지름 20.5cm
청동판으로 만든 면류관을 쓴 [예수 頭像]이다.



8)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대작 영화 [소명 감승] 포스터
1984년, 87x60cm
최인현 감독, 박종구 제작, 한상훈 기획, 안진원 각본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대작 영화 [소명 감승] 포스터이다. 등장인물은 이벽, 이승훈, 권철신, 정약중, 정약용 등이다.

070

지질 구조 색채 지질현상도 [조선지질총도 朝鮮地質總圖]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1928년] 100x77cm, 1/1,000,000

시작가 ₩100,000

암상(岩相) 등에 따라 등분하여 지질 구조를 표시한 색채 지질현상도이다. 발행사항은 다른 판본을 근거로 기재했다. 하단일부가 유실되었다.



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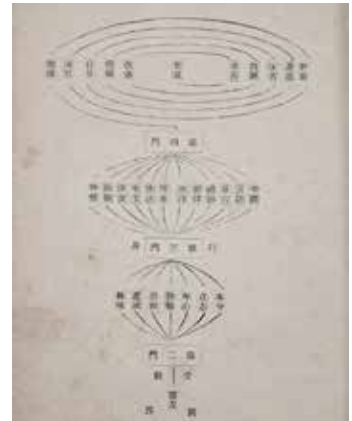
시천교 경전 [수도전서 초정 修道全書 初程]

權秉憲 著

京城 侍天教堂, 大正2년(1913) | 23x15cm, 92+2쪽

시작가 ₩300,000

1913년에 경성 시천교당에서 권병덕이 저술한 시천교 경전으로, 시천교의 교리를 도형화한 도표와 내용은 靈友問答, 受敎에 관한 注意, 行身에 관한 注意,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지가 약간 훼손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072

상제교 지침서 [교인필지]

상제교종무원, 병술년(1946) | 17.5x12cm, 54쪽

시작가 ₩100,000

내용은 상제교 지침서로 상제교종지, 수도규칙, 성미법, 포덕규례, 혼례, 상례와 제례, 연중경축제일일람, 교규초, 일상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등이 약간 손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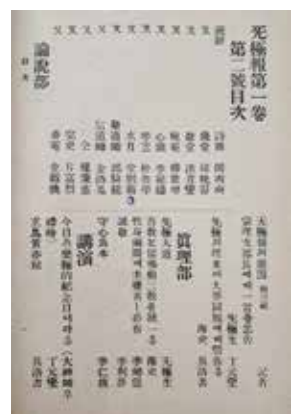
073

시천교 월보 [무극보 无極報] 제1권 제2호

시천교총부 월보사, 大正2년(1913) | 22x15cm, 60쪽

시작가 ₩200,000

1913년 侍天敎에서 발행한 月報 [무극보] 제1권 제3호 단책으로, 권두 표지에 大正2年(1913) 8월15일[매월 1회 15일]발행, 第一卷第二號 侍天敎總部月報社發行의 간기가 있다. 상태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074

한글본 상제교주 대종사 [훈유훈화집 訓諭訓話集]

上帝教大本院, 제세주강생127년경인(1950) | 18.8x12.5cm, 71쪽

시작가 ₩100,000

1950년에 상제교대본원에서 발행한 상제교주 대종사 [훈유훈화집]이다. 내용은 상제교 제4세 교주 대종사 金海心 선생 사진과 훈유제세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뒤표지에 [남해군 이동면 崔權祚]가 수기되어있고, 책등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075

상제교 잡지 [동학 東學] 제3권 제1호

上帝教東學社, 소화7년(1932) | 22x16cm, 56쪽

시작가 ₩200,000

1932년 상제교동학사에서 발행한 상제교 잡지 [東學] 제3권 제1호이다. 내용은 상제교 제3세 교주 龜菴대종사 사진과 人天主義의 考究 등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책등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대체로 양호하다.



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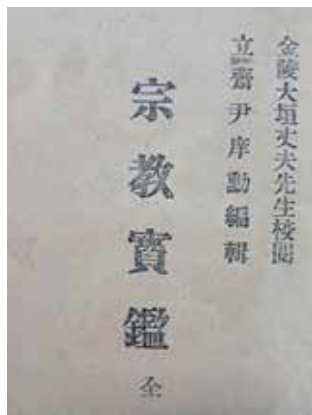
근대 한국종교학의 초기자료 [종교보감 宗教寶鑑] 희귀본

尹庠勳 編 | 崔基龍方, 大正4년(1915)

18.7x13cm, 364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100,000

1915년 최기룡방에서 국한문혼용체로 간행, 근대 한국종교학의 초기 희귀문헌의 하나로 그 가치가 평가된다. 태극교를 위시하여 불교 耶蘇敎, 回回敎, 婆羅門敎 등의 세계종교들의 본래요지와 한국에서의 전개과정 및 천도교, 侍天敎, 大倮敎,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간기가 부분 찢어졌고, 책등이 손상되었다. 대체로 양호하다.



077

시천교 신앙잡지 [지기금지 至氣今至]

희귀본 3책 일괄

京城堅志洞侍天教堂宗務本部, 大正2/4년(1913/1915)

23x15cm, 51쪽 외, 국한문혼용

시작가 ₩300,000

1913/1915년에 경성견지동시천교당종무본부에서 발행한 시천교 신앙잡지 희귀본 [至氣今至] 3책(제4, 20, 26호)이다. 제4호는 표지가 약간 훼손, 제20호는 뒤표지 간기부분이 찢어졌고, 제26호는 책등부분 손상이 있다.





078

[수필조선 隨筆朝鮮] 상·하 2책 초판

경성 雜筆社, 소화10(1935), 초판
19.5x13.5cm, 509/529쪽, 일어

시작가 ₩200,000

이 책의 편집 방향에 대해 편자(編者)는 ‘첫째, 집필자는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인 및 조선과 특수 관계자에 한한다. 둘째 원고의 내용은 조선관계 사항에 한한다.’라는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079

홍이섭이 지은 과학기술·과학사상의 최초 통사 [조선과학사 朝鮮科學史]

정음사(正音社), 1946년 재판 | 21.5x15cm, 276쪽

시작가 ₩100,000

역사학자 홍이섭(洪以燮)이 1942년 [조광(朝光)]에 [조선과학사]를 연재한 것을 1944년에 일어판으로 간행하였고, 해방 이후 국문으로 재출판한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 및 과학사상의 통사(通史)로 처음 나온 개척적 연구서로서 과학기술 관련자료와 연구업적을 망라하였다. 서론으로 과학사의 방법과 조선과학의 연구대상과 그 범주를 논하고, 원시조선에서 조선시대 말까지를 5편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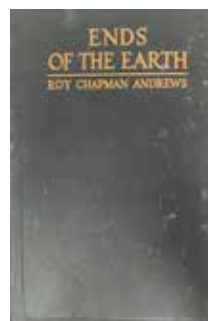
탐험가 앤드루스의 조선 답사 사진과 기문이 실린 [ENDS OF THE EARTH]

Roy Chapman Andrews 저,
The Curtis Publishing Co., 1929년 | 24.2x17cm, 355쪽

시작가 ₩300,000

전반부는 고래 등 해양 동물에 대한 보고서 형식의 글이 있고, 특히 144쪽부터는 1911년 조선을 답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당시 캠프로 사용한 기와집에서 저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 포획물 옆에서 장죽을 문 포수, 지계를 맨 농부의 모습 등 10장의 조선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하드커버 제본으로 보존상태 매우 양호한 희귀본이다.



앤드루스(Roy Chapman Andrews, 1884~1960)는 미국의 탐험가·과학자. 자연과학적 탐험을 뜻하여 1910년에는 네덜란드령 동인도, 1911년에는 한국, 1916년에는 미얀마·티베트, 1919년에는 외몽골, 1921년에는 중앙아시아 고원을 각각 답사하고 많은 보고서를 내었다. 그 결과 아시아 각 지역의 동물학적·인류학적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인명사전)



081

제임스 게일의 한국의 풍습 등 기록물 [KOREAN SKETCHES]

Fleming H. Revell co., 1898년 | 20x13.5cm, 256쪽

시작가 ₩200,000

저자 제임스 S. 게일은 1888년, 스물다섯 살에 조선 땅에 입국했다. 1888년부터 1897년까지 10년의 시간을 담은 책을 [한국의 모습(KOREAN SKETCHES)]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 출간했다. 저자 게일은 [구운몽], [심청전], [춘향전] 등을 영문으로 번역해 서양에 소개하였고, 역으로 [턴로력명(천로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하였다.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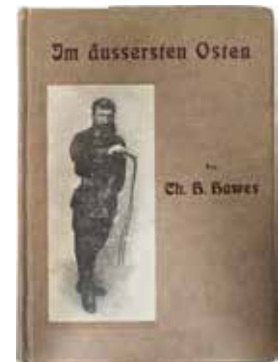
한국관련 자료가 실린 [Im äussersten Osten]

Charles Henry Hawes 著

Berlin, Karl Siegmund, 1905년 | 23.5x16.5cm, 575쪽, 독일어

시작가 ₩200,000

1905년에 독일 인류학자 찰스 헨리 하웨스(Charles Henry Hawes)가 지은 [극동에서(Im äussersten Osten) :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사할린 섬까지(Von Korea über Wladiwostok nach der Insel Sachalin)]이다. 하드커버로 보존상태 매우 양호한 희귀본이다.



083

일본, 한국, 만주 여행기 [Japan Das Land des Nebeneinander]

Alice Schalek 著

Breslau, Ferdinand Hirt, 1925년 | 24x17.5cm, 404쪽, 독일어

시작가 ₩200,000

1925년에 독일 언론인 앨리스 샬레크(Alice Schalek)가 지은 [나란히 있는 나라 일본 (Japan Das Land des Nebeneinander) : 일본, 한국, 그리고 만주를 통한 겨울 여행기(Eine Winterreise durch Japan, Korea und die Mandschurei)]이다. 하드커버로 보존상태 매우 양호한 희귀본이다.



084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에서 발행한 농촌계몽서 [정말(丁抹, 덴마크)과 정말농민(丁抹農民)]

洪秉璇 著

朝鮮基督教靑年會聯合會, 소화4년(1929) | 19x13cm, 236쪽

시작가 ₩100,000

조선기독교청년회연합회에서 발행한 농촌계몽서로, 덴마크(丁抹)와 그 농민들의 삶을 다룬 책이다. 이를 표본으로 조선 농촌지역의 교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협동조합 개념을 도입하여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하는 목적이었다. 말미의 종이가 남아 약간 손상이 있다.





085

조선어 방언의 분포 상태를 조사 정리한 [남부조선의 방언(南部朝鮮の方言)]

小倉進平 著

朝鮮史學會, 大正13(1924) | 19x13cm, 212+16+10쪽, 일문

시작가 ₩200,000

조선어 방언의 분포 상태를 조사 정리한 연구서이다. 말미에 音韻分布圖 지도 16점과 語法分布圖 지도 10점이 있다. 저자 증정본이다. 뒤표지가 낙장이고,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내용은 매우 양호하다.

0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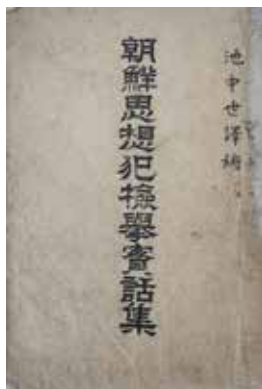
조선시대 중인 이하 하층민의 전기서 [일사유사 逸士遺事]

張志淵 編

匯東書館, 大正11년(1922) | 21x15cm, 234+1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100,000

1922년에 회동서관에서 발행한 [逸士遺事]로, 조선시대 뛰어난 재주로 이름을 남긴 중인 이하 하층민의 활동상을 기록한 전기이다.



087

조선사상범검거실화집 朝鮮思想犯檢舉實話集

池中世 譯編

新光出版社, 1946년 | 18x12cm, 300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200,000

1946년 新光出版社에서 발행한 [조선사상범 검거 실화집]이다. 경기도의 [虛無黨宣言書의 事件과 그 全貌] 등을 수록하였다. 표제에 [東亞日報社] 소장인과 책등에는 청구기호가 묵서되어 있다. 책등이 손상되었다.

088

[희곡 안중근사기 戲曲安重根史記] 전편

金春光 著

青春劇場, 檀紀4279년(1946)

18x12.7cm, 155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200,000

앞부분에 안중근, 우덕순 등 사진이 있다. 표지에 물 얼룩이 있고, 책등이 손상되었다.





089

만몽고락지 滿蒙苦樂誌

崔晶圭 著

朝鮮基督教彰文社販賣部, 昭和2年(1927)
22.3x15cm, 68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100,000

滿蒙 지역으로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1927年 조선기독교창문사에서 발행한 [만몽고락지]이다. 상태는 양호하다.

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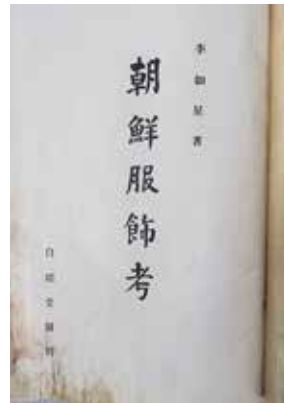
조선 최초의 복식사 [조선복식고 朝鮮服飾考]

李如星 著

白楊堂, 1947년 | 21.8x15.6cm, 370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200,000

조선 최초의 복식사를 다룬 책이다. 뒤표지와 말미에는 물 얼룩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91

조선유기략 朝鮮留記略

權憲奎 著

尙文館, 소화4년(1929) | 22x15cm, 86+13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200,000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저술한 역사서이다. 표제와 간기에 소장인이 있으나 판독불가다. 뒤표지와 말미에는 물 얼룩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92

[조선유기 朝鮮留記] 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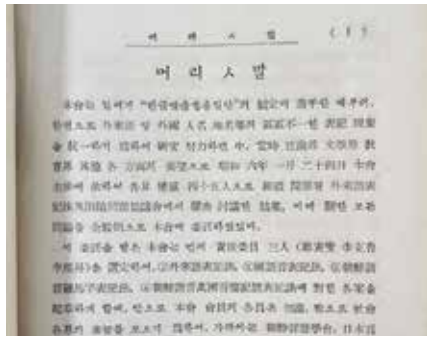
尙文館, 大正15년(1926)

22x15cm, 126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100,000

단군시대부터 개화기까지의 한국사를 상고사, 중고사, 근세사로 구분하여 저술한 책이다. [조선유기] 중권, 근세사이다. 상태는 양호하다.





093

외래어표기법통일안 外來語表記法統一案

朝鮮語學會 編

朝鮮語學會, 昭和16년(1941) | 19x13cm, 58+11쪽

시작가 ₩100,000

책등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94

[한영사전 韓英字典 korean-English dictionary]

제임스 S. 겔(James S. Gale) 著

耶蘇敎書會, 明治44년(1911) | 23x16cm, 1154쪽

시작가 ₩300,000

책등 부분이 낡았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095

재일교포 학도의용군병 수기 (在日僑胞學徒義勇軍兵手記) [혈혼의 전선 血魂의 戰線]

在日僑胞學徒義勇軍自立同志會 編
啓文社, 단기4291년(1958)

18.2x12.5cm, 172쪽

시작가 ₩100,000

앞면에 趣旨書가 있고, 표제에는
[東亞日報社] 소장인과 앞표지 하단
에는 청구기호가 목서되어 있다.



096

역도산 자전 [인간 역도산(人間 力道山)] 초판

金信洛 著; 李光宰 譯
靑丘出版社, 1966년 초판
18.8x12.5cm, 264쪽

시작가 ₩100,000

앞면에는 역도산 사진이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097

동양역대여사시선 東洋歷代女史詩選

郭琰 纂

寶文館, 大正9년(1920) 초판 | 23x15cm, 230장

시작가 ₩100,000

동양 여성들의 시를 모아
엮은 책으로, 특히 조선 시
대 여성 시인들의 작품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표지
가 약간 손상되었으나, 상
태는 양호하다.



098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문답 [성교요리문답 聖敎要理問答]

閔와스딩 監准

京城府明治町天主敎會, 昭和7년(1932)
23x15cm, 96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100,000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문답식(問
答式)으로 정리한 책이다. 표지
에는 [吳炳覺] 수기와 표제에는 인
장이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099

이준선생전 李儁先生傳

柳子厚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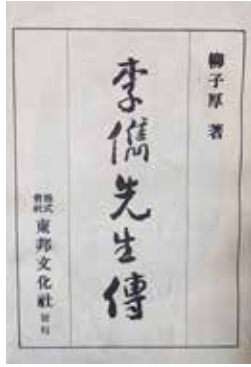
東邦文化社, 檀紀4280년(1947)

21.5x15.2cm, 419쪽

시작가 ₩100,000

이준(李儁, 1859~1907)은 함북 북청 출신, 대한제국의 관리이다. 1907년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되어 외교 활동 중 순국하였다.

비매품으로 발행, 一醒李儁先生記念事業協會 進呈本이다. 상태는 양호하다.



100

**조선어철자법 : 어학편
朝鮮語綴字法 : 語學篇**

中央印書館, 昭和9년(1934)

19x13cm, 77쪽

시작가 ₩100,000

[青年常識叢書, 17]로 발행되었다.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101

운동경기해설 運動競技解說

文履珪 著

眞理叢書刊行所, 단기4279년(1946)

14x10.8cm, 150쪽

시작가 ₩300,000

이병학(李丙學, 1898~1963)은 일제 강점기와 대한민국의 체육인이다. 李丙學 선생 추천서이다. 상태는 양호하다.



102

수자조선연구 數字朝鮮研究

李如星 金世鎔 共著

世光社, 昭和10년(1935), 14x10.8cm

116+15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200,000

이여성과 김세용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으로, 식민지 조선 시대의 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당시 사회상을 조명한 연구서이다. 책등과 앞하단이 약간 손상되었다.



103

독립운동 애국단 활동 역사서 [도왜실기 屠倭實記]

嚴恒燮 著 | 國際文化協會, 大韓民國28년(1946) | 21x15cm, 119쪽

시작가 ₩100,000

1932년에 김구(金九)가 중국 상해에서 한인 애국단의 의열 활동에 관하여 저술한 역사서를 1946년 3월 엄항섭이 한글로 번역하고, 김구의 전기 뒷부분과 한국독립운동을 첨가해 국내 판을 간행한 것이다. 내용은 광복군 아리랑, 용진가, 압록강 행진곡이 수록되어 있다. 책등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양호하다.

104

돈과 물건 : 인플레이 대책(對策)

李健赫 編 | 金龍圖書, 1946년 | 18.2x12.3cm, 105쪽

시작가 ₩200,000

표제에는 [東亞日報社] 소장인과 뒤표지에는 청구기호가 묵서되어 있다. 책 등이 손상되었다.



105

이은상(李殷相) 수필(隨筆) [무상 無常]

培材高普正相獎學會, 昭和12년(1937) 3판 | 19.5x13cm, 182쪽

시작가 ₩100,000

이은상(李殷相, 1903~1982)은 경남 마산출신 작가·시조작가·사학자이다. 이충무공기념사업회 이사장, 안중근의사숭모회장, 민족문화협회장, 독립운동사 편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尹吉洙] 소장인이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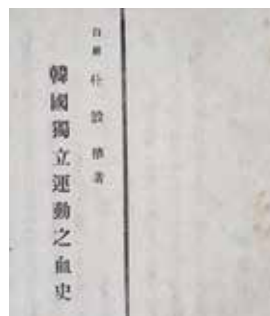
한국독립운동지혈사 韓國獨立運動之血史

朴殷植 著

서울신문社出版局, 1946년 | 21.5x15cm, 305쪽

시작가 ₩200,000

朴殷植이 지은 한국의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한문으로 된 역사서이다. 표지가 약간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107

순 한글 개신교 비판서 [신교지기원 (新敎之起原) : 일명(一名) 루테로 실전(實傳)]

安世華 著作 | 京城府明治町天主堂

大正12년(1923) | 18.5x12.8cm, 66쪽, 한글본

시작가 ₩200,000

천주교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작한 순 한글 개신교 비판서이다. 뒤표지 낙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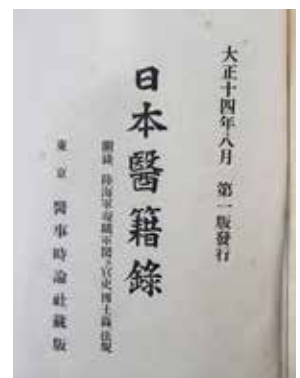
108

조선의 의원과 이름 사진 등이 수록된 [일본 의적록 日本醫籍錄]

醫事法論社 編 | 醫事法論社, 大正14년(1925) 1판 | 26.5x19.5cm, 2400여쪽

시작가 ₩100,000

의학고, 교수 연구자 등 일본 전체는 물론 조선의 의원과 이름 사진과, 경성의 개인병원분포 등이 수록되어 있다. 附錄으로 陸海軍現職軍醫並官吏, 博士錄, 法規가 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09

춘천공립중학교 [졸업앨범]

춘천공립중학교, 소화16년(1941)
30.5x23cm, 50장

시작가 ₩200,000

태평양전쟁 중 체력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종 체육활동 사진이 많이 담겼다. 상태는 양호하다.

110

시나리오 [어제 내린 비]와 [明洞 아줌마] 등 2책

극동흥업 외, 1964/1974 | 25x19cm 외

시작가 ₩100,000

- 1) [어제 내린 비] 최인호 원작, 김승호 각본, 이장호 감독, 국제영화진흥업주식회사, [1974년]
- 2) 동아방송연속방송극 [明洞 아줌마], 김석야 원작, 김기덕 감독, 극동흥업, [1964년]



111

해방직후 공보부 발행 [마약 포스터]

公報部 발행
조선단식인쇄, 해방 직후 | 49x28cm

시작가 ₩500,000

[건국을 좀먹는 마약 밀매 상을 박멸하자] [마약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다]는 문구가 있는 마약 포스터이다. 마약밀매상을 건국을 좀먹는 괴물로 보고 박멸하자는 내용이다. 해방직후 사회질서가 혼란한 틈을 타서 마약중독과 밀매가 급증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포스터이다.

‘공보부, 朝鮮單式印刷’라는 표기로 미루어 해방 초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육사8기로 한국전쟁 중 다부동전투 등에 참여한
육군대령 [이걸 李傑] 관련자료 19종 일괄

시작가 ₩5,000,000



- 1) [나의 생애] 사진첩
- 2) 군재직기념 [대한민국육군 앨범]
- 3) 육사 제8기생 임관 40주년기념 [사진] 2점, 1989
- 4) 육사 제8기생회 [전회원 주소록 및 전화번호]와 [6.25전쟁 중 다부동 전투참전 1사단 11연대 3대대 12중대 옛 전우 명단] 등 관련 자료 일괄
- 5)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신청서]
- 6) 회고록 [追想 생각하는 역세풍, 상.하] 2책
- 7) 추억 이걸 [사진]
- 8) [육군대령 이걸 공로표창]과 케이스, 1965년
- 9) 육사 제8기생회 [공로패]와 케이스, 1979년
- 10) [합동참모대학 교수재직 기념패]와 케이스, 1967년
- 11) 보병제 33사단장 [대령 이걸 기념패]와 케이스, 1973년
- 12) 육군사관학교 제8기 [졸업기념사진첩], 1949년
- 13) 이걸이 사용한 [군 지휘봉] 3점과 케이스
- 14) 육사 제8기생 임관 20주년 [기념패]와, 제25회 경찰의 날 [기념패], [견장], [이름표], [계급장], [부대마크], [기념메달] 등 16점
- 15) 한국전쟁 중 조지아주 포트 베닝의 미 육군보병학교에서 연수하며 보낸 [편지와 봉투] 10점
- 16) [사진첩], 1966년
- 17) 보병 제 33사단 [기념패], 1973년
- 18) 비호 전술공사 대대장 일동 [기념패]
- 19) [사진] 7점, 1952

미합중국 제랄드 아아르 포오드 대통령 각하 방한 [사진첩]

1974년 | 사진첩 35.5x47, 개별사진 20x25.2cm, 36점

시작가 ₩2,000,000

미합중국 제랄드 아아르 포오드 대통령 각하 방한 컬러판 [사진첩]이다. 포오드 대통령의 도착부터 환영 퍼레이드, 현충원 방문, 정상회담 등 36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상태도 양호하다.



114

가봉 공화국 하지 오마르 봉고 대통령 각하 내외분 방한 [사진첩]

1975년 | 30.5x28.5cm, 39점

시작가 ₩1,000,000

가봉 공화국 하지 오마르 봉고 대통령 각하 내외분 방한 칼라판 [사진첩]과 케이스이다. 대통령의 도착부터 환영 퍼레이드, 현충원 방문, 정상회담, 박정희 대통령과 영애 박근혜의 사진 등을 수록했다. 상태도 양호하다.



115

평안북도 약도와 사진 등이 수록된 [국경의 수호(國境の守り)]

平安北道警察部, 소화8년(1933) | 27x39.5cm, 53장, 일문

시작가 ₩200,000

1933년에 平安北道警察部에서 발행한 [國境の守り]이다. 내용은 평안북도약도, 압록강변의 각 초소와 사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16

제8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취임기념 [사진첩]

1972년

사진첩 31.5x34.5cm, 개별사진 19.5x24.5cm, 29점

시작가 ₩5,000,000

제8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취임기념 컬러판 [사진첩]과 케이스이다.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각국 귀빈, 우리나라 주요인사, 각 분야의 발전상 등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공개되지 않은 귀한 사진들이 있으며, 컬러판 대형사진이다. 극히 적은 수량을 제작하여 주요 인사들에게만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장처가 보이지 않는다. 상태도 양호하다.





117

동남 텔레비존 수상기 [모델명 17B-D3]

동남전기주식회사, [1967년 추정] | 폭 33x68cm, 높이 62cm

시작가 ₩1,000,000

매우 귀한 모델의 동남 흑백텔레비전 수상기 [모델명 17B-D3]이다. 1967년에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가 일본회사와 기술 제휴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생산하였다. 4각 다리가 있다. 양호하다.

118

광복50주년 백범 김구선생 기념 회중시계

대림시계, 1995
높이 5.3, 지름 4cm, 40g silver

시작가 ₩600,000



119

한국일보사 창간 20주년기념 [제1회 한국가요제]

한국일보사, 1974년 | 24x25.7cm, 51쪽

시작가 ₩100,000

한국일보사 창간 20주년기념 [제1회 한국가요제]에는 잃어버린 계절, 사랑한 후에, 어부의 사랑 등 42곡의 작곡 작사자와 가수의 약력과 사진 등을 수록하였다. 상태는 양호하다.

120

일제강점기 최대 해운회사 조선우선(朝鮮郵船)의 창립 25주년 기념 메달

조선우선주식회사 | 1937년 | 지름 6.7cm, 금속

시작가 ₩200,000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는 1912년 조선총독부가 설립을 추진한 국책회사로, 일제강점기 조선 연안과 근해 해역에서 크게 활약한 식민지 조선 최대의 해운회사였다.

1937년 창립 25주년을 기념한 메달이며, 동시에 [조선우선주식회사 25년사]를 출판하였다.



121

김익동 준장 [장성기] 세트와 소장 [장성기] 세트 합 2점

1977년 | 106x147 / 101x131cm, 박스 18x91x10.5cm

시작가 ₩200,000

1977년에 참모총장 대장 이세호가 수여한 김익동 준장 [장성기] 세트와 신원미상 소장 [장성기] 세트로, 박스에 장성기와 강철 삼각 설치대가 있다.



122

일제 강점기 기생 숙소 원본 사진

일제강점기 | 14x29cm

시작가 ₩100,000



123

일제강점기 항공전문잡지 [공 空] 임시증간 2책

1937 / 1940년 | 26x18.8cm, 108 / 174쪽

시작가 ₩100,000

일제강점기 항공전문잡지 [공 空] 제4권5호 임시증간 제국군용 사진연보에는 육.해군 관련 비행기 제원과 사진을 수록하였고, 제6권 제14호 임시증간 일본민간비행기전집에는 각 민간항공기 제원과 비행기사진을 수록하였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24

1960~1970년대 추억이 담긴 [양철 딱지] 8점 일괄

1960~1970년대 | 7x5.6cm 외, 양철

시작가 ₩1,000,000

내용은 사각형 6점은 뒷면에 축산물 규격품이 있는 [6백만불], [육군준장], [타잔], [육군중령], 뒷면에 축산물규격품이 있는 [타이거마스크], 남양분유에 대한 설명이 있는 [007](왼쪽 부분이 부서졌음)이고, 둥근 원형 2점은 뒷면에 껌질과 씨를 제거한 雪○이 있는 [200만불], [우주소녀아동 번개]이다.

125

휴전협정반대 총궐기 대회 원본 사진 2매

한국전쟁기(1951~1953) | 11.5x18.5cm 외

시작가 ₩100,000

휴전협정반대 총궐기 대회 사진으로, [總蹶起 突進하자 停戰協定 粉碎로 北進統一길로], [統一없는 停戰 알타秘密協[定無效]] 등 플랜카드가 보이는 사진과 [統一없는 休[戰反對] 群山老[人會]] 등 플랜카드가 보이는 사진이다.



126

춘천, ‘캠프 페이지’, ‘미 군사고문단’ 등 한국전쟁 및 주한미군 자료 2종 3점 일괄

1950년 전후 추정 | 보(襟) 31x65cm, 잔 높이 13cm, 입구 7.5cm

시작가 ₩500,000

한국 춘천(Chun Korea Chon)과 부대마크, 척(Chuck)이 새겨진 [천 보(襟)]와 ‘주한 미 군사고문단(KMAG)’ 마크가 있는 [은도금 와인 잔] 2점이다.

춘천 주한미군주둔지인 캠프 페이지에 근무했던 군인 ‘척’이 기념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캠프 페이지(Camp Page)’는 한국전쟁 당시 춘천에 제4미사일사령부와 주한 미 군사고문단 등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1983년 5월 5일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 당시 중국 민항기가 이곳에 착륙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군사고문단(KMAG)’은 1948년 8월 15일 임시군사고문단으로 출발해 1971년 4월 1일 주한미합동군사원조단에 통합될 때까지 약 23년간 한국에 존재했다.

출품물인 ‘KMAG 로고가 새겨진 와인 잔’은 거의 보이지 않는 희귀품이다.



古玩觀止

Part 2.

동서양 미술
민속품/도자기

No. 127 - 150

1800년대 초 ‘용주사(蓉洲社)’라는 시사회(詩社會)를 결성하여 활동한 문인·관료 16인의 시화(詩畵)와 3인의 시평(詩評) 축

1800년대 초 | 570x18.3cm

시작가 ₩10,000,000



1800년대 초 ‘물가의 연꽃’이라는 뜻의 용주사(蓉洲社)라는 시사회를 결성하여 활동한 16인의 시화(詩畵)가 깃들여진 시화축(詩畵軸)이다. 칠언율시를 남긴 낙서(洛瑞) 이서구(李書九), 문백(文伯) 정원달(鄭遠達), 백상(伯祥) 이의봉(李義鳳) 등 16인의 시화가 있다. 당대의 대사헌 이조판서 실록 총재관을 지낸 신재식(申在植)과 우의정 및 조선의 마지막 통신사를 역임한 김이교(金履喬), 그리고 우의정 박규수의 외종조 유화(柳詠)의 시평이 있다. 5미터 70cm의 긴 두루마리 종이 위에 펼쳐진 19세기 초 고위 관료들의 시사회 활동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푸르름이 녹아 있는 정원에 맑음을 맛본다’는 ‘취원청상(翠園淸賞)’이라는 문구로 시작을 하여, ‘뛰어난 문채가 샘에서 솟아오르다’는 뜻의 ‘일조천용(逸藻泉涌)’의 묵서로 첫머리를 장식하였다. 이 서화축은 용주사(蓉洲社)라는 시사회에서 작성된 것이다. 두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다. “매화나무 그림과, 소나무 그림과, 대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구름은 하얗고 산은 푸른데 냇가의 물이 흘러 바위에 부딪쳐도 바위는 그대로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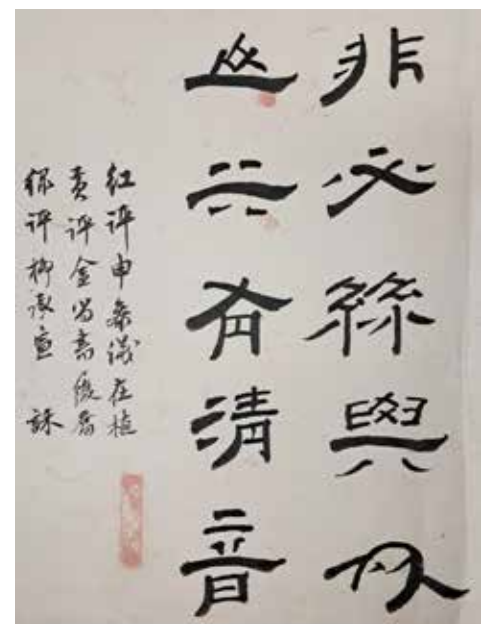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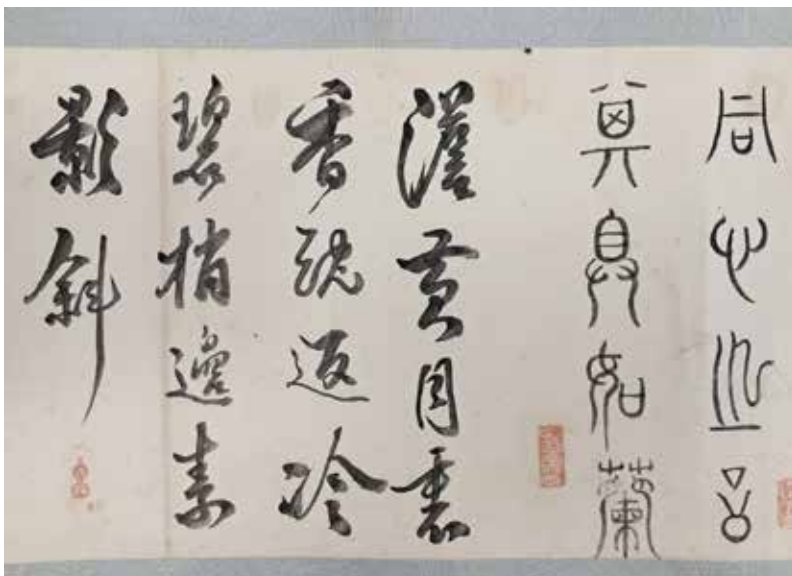
“소나무는 추위를 견디며 빼어나고 산들산들 바람에 나부끼는 대나무는 수척해 있고, 장수하고 무겁지 않은 바위들은 못 생겼지만 오래됨이 있어 이들은 세 가지 유익한 벗이다.” 이것은 황산곡(黃山谷)의 송죽석(松竹石)인 소나무와 대나무와 바위를 찬한 것이다.

전서와 예서로 각각 쓴 글이 있으며, 낙서(洛瑞)라는 호를 가진 류거사(柳居士)가 쓴 “북원에 아름다운 약속이 있어 바람의 정을 이끌어 내니”라는 글에서 붉은 비점을 찍은 홍평(紅評)은 참의(參議) 신재식(申在植)이 평가를 하였고, 황색의 비점을 찍은 황평(黃評)은 상서(尙書) 김이교(金履喬)가 하였고, 녹색으로 비점을 찍은 녹평(綠評)은 승선(承宣) 유화(柳詠)가 평가를 하였다.

난초의 그림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향기로움을 난초가 머금고 있으니 다만 스스로 알뿐이다”라고 끝을 맺고 있다.



- 사가시인 낙서(洛瑞) 이서구(李書九, 1754-1825)
 - 갑과에 장원한 문백(文伯) 정원달(鄭遠達, 1735~)
 - 고금석림(古今釋林)을 완성한 백상(伯祥) 이의봉(李義鳳, 1733-1801)
 - 실록총재관을 역임한 신재식(申在植, 1770~)
 - 조선 마지막 통신사 역임 김이교(金履喬, 1764~1832)
 - 세자시강원 역임 유화(柳詠, 1779~1821)
-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128

운전(雲田) 조광준(趙廣濬)

金剛山 대련, 125x36cm

종이에 수묵담채

시작가 ₩1,000,000

운전(雲田) 조광준(趙廣濬, 1890~?)은 조선말 도화서 화원이었던 소림 조석진(1853~1920)의 친손자로 외손자인 변관식(1899~1976)과 함께 조석진에게 그림을 사사했다.

129

전(傳) 긍원(肯園) 김양기(金良驥)

石竹圖

122x29cm, 종이에 먹

시작가 ₩1,500,000

긍원(肯園) 김양기(金良驥)는 김홍도(金弘道)의 아들로 화원을 지냈으며, 산수·인물·풍속·화조·영모(翎毛)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었다. 행적에 관해서는 조희룡(趙熙龍)과 교유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30

소림(小琳) 조석진(趙錫晉)

山水畵 | 32x31cm, 종이에 수묵담채

시작가 ₩300,000

조석진(趙錫晉, 1853~1920)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의 화가로, 호는 소림(小琳), 본관은 함안(咸安), 초명은 태원(台源), 자는 응삼(應三) 황해도 웅진 출신이다.



131

인송(仁松) 이태길(李泰吉)

서양화 | 23x32cm, 캔버스에 유화

시작가 ₩100,000

인송(仁松) 이태길(李泰吉, 1941~)은 전남 함평출신 서양 화가이다.



132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山水圖
52x92cm, 종이에 판화

시작가 ₩300,000

운보(雲甫) 김기창(金基昶, 1913~2001)은 대한민국의 동양화가로, 호는 운보(雲甫), 운포(雲圃)이다. 본관은 김해(金海)이며 경성부 출생이다.



133

화신백화점 박흥식 사장의 [채색 사진]

해방이전 | 42.5x33.5cm, 액자 68x62cm

시작가 ₩1,500,000

박흥식(朴興植, 1903~1994)은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친일파이다. 광복 이후에는 사업에서 손을 떼었지만 1950년부터 1980년까지 30년 동안은 다시 기업인으로 활동하였다. 화신백화점 사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제1공화국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되었을 때 첫 번째로 체포된 인물이기도 하다. 해방이전의 채색사진은 매우 희귀하다. 보존 상태도 매우 좋다.



전북 전주출신 서화가 [유당(酉堂) 김희순(金熙舜)] 소장자료 13점 일괄

1686~1960 | 24x36cm 외

시작가 ₩1,000,000



김희순(金熙舜, 1886~1968)은 전북 전주 출신 서화가이다. 본관은 김해(金海), 호는 유당(酉堂)이다. 벽하(碧下) 조주승(趙周昇)에게 이광렬(李光烈)과 함께 서화를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시서화 삼절이라 일컬어졌다. 특히 사군자를 잘 그려 광주의 허백련(許百鍊)은 물론 중앙 화단의 김은호(金殷鎬), 이상범(李象範), 변관식(卞寬植), 박승무(朴勝武) 등과 폭넓은 친분관계를 가졌으며, 이는 그의 묵란과 묵죽에 새로운 운미란(芸楣蘭) 화풍과 상해 화가인 포화(蒲華)의 화풍이 수용된 배경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1959년 국전부터 추천작가로 활동하는 등 전주지역의 서화발전에 기여하였다.

○ 주요 출품물은 다음과 같다.

1) 유당(酉堂)선생 개인전 방명록(芳名錄)

단기4293년(1960), 24x36cm, 13장

전남 진도출신 남농 허건(許健, 1907~1987), 홍기백(洪基) 등 유명화가 방명록과 기명절지화 대가 취당 홍순인(翠堂 洪淳仁, 1888~1962), 추강(秋江), 한국적 추상화의 대가 장욱진(추정), 양인옥(제주출신 서양화가, 1926~1999), 서림(西林), 강홍윤(姜洪允, 1936~), 이창렬(李昌烈), 박동환(朴東煥) 등의 그림방명록이다.

2) 경자10월24일(庚子十月二十四日) 방명록(芳名錄)

경자년(1960), 29x33cm, 30장

전북지사 역임한 이용택(李瑑澤, 1898~1992) 등 방명록과 토○(土○), 사군자 화가 우당 조중태(又堂 趙重泰, 1902~1975), 벽천 나상목(碧川 羅相沐, 1924~1999), 우송(友松) 등의 그림방명록이다.

3) 유당(酉堂)의 선면화(扇面畫) - 烁江漁遊, 연도미상, 12.5x40cm

11) (관성묘수자진공소건설원조) [춘추사 春秋社]

甲子年(1864), 42x28cm, 102장, 필사본

관성묘수자진공소건설원조로 춘추사(春秋社)에 기증한 전라관찰사. 이조 판서 등을 역임한 김성근(金聲根, 1835~1919) 등의 명부이다. 뒷장 3장은 낱장으로 첨부되어 있는 말문에 [關聖廟水刺進供所建設願助文]이 있다.

13) 사각 버루 - 연도미상, 10x16cm, 높이 2cm

<상세 해제는 홈페이지 참조>



135

삼당시인(三唐詩人) [백광훈]의 초서 탁본 8폭 병풍

연대미상 | 119x38.5cm, 8폭

시작가 ₩1,000,000



백광훈(白光勳, 1537~1582)은 조선중기에 삼당시인의 한 사람으로 [옥봉집 玉峯集]을 저술한 시인이다. 그의 본관은 해미(海美)이며, 자는 창경(彰卿), 호는 옥봉(玉峯)이다. 백광훈은 이산해(李山海), 최립(崔立) 등과 더불어 팔문장(八文章)의 칭호를 받았고, 글씨에도 일가(一家)를 이루었으며, 송시(宋詩)의 풍조를 버리고 당시(唐詩)를 따르며 16세기 조선 문단의 시풍(詩風)을 혁신하였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36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永受嘉福 | 1941년 | 36x116cm, 종이에 먹

시작가 ₩200,000

위창 오세창이 78세 때에 쓴 [영수가복(永受嘉福, 영원토록 행복을 받는다)] 묵서이다.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은 조선 시대 말기와 대한제국 시대의 문신이고, 정치인이며 계몽 운동가이자, 일제강점기 조선 시대의 언론인, 독립운동가, 서예가 겸 서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137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와당문 10폭 일괄

종이에 먹 | 戊辰年(1928) | 132x30cm 10장

시작가 ₩1,000,000



1928년에 한대의 와당문(漢瓦) 8점, 임상 황산 와당문(林上 黃山), 주연대 와당문(秦延年瓦) 등 10폭이다. 배접되어 있어 상태가 양호하다.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 1953)은 한말의 독립운동가·서예가·언론인이다. 젊어서부터 개화사상에 눈떠 1902년 개화당 역모 사건으로 일본으로 망명했다. 귀국 후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3·1운동에 앞장섰다가 투옥되기도 했다. ‘한성주보’의 기사를 지낸 경력을 바탕으로 ‘만세보’와 ‘대한민보’의 사장을 지냈다. 해방 후에는 민족대표의 상징적 인물로 추앙받으며 서울신문(대한매일 전신) 초대 사장을 역임하고 여러 정당의 고문으로 추대됐다. 한국전쟁 중 대구에서 별세,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역관이자 서화가인 부친 오경석(吳慶錫, 1831 1879)으로부터 전각(돌이나 나무위에 글씨를 칼로 새기는 예술)을 배운 그는 자신을 ‘조충(彫蟲, 새김벌레)’이라고 부를 정도로 10대 때부터 전각에 몰두했다. 각품에 있어서도 종정금문, 상형고문, 중국 진·한대의 각품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소화하며 당시까지 신표(信標) 정도로 이해되던 전각을 본격적인 예술품으로 끌어올렸다. 자신이 수집해온 서화자료와 관련 서적을 바탕으로 역대서화가 문헌자료집인 ‘근역서화징’ 등을 편찬해 후세에 귀중한 연구자료로 남겼다. 서화나 고서에 날인된 도장을 모은 ‘근역인수(槿域印藪)’ 역시 대표적인 인보(도장)연구서로 꼽힌다.

138

초서(草書) 무명씨(無名氏) 4폭 병풍

조선시대
55x31.5cm, 4폭, 종이에 먹

시작가 ₩300,000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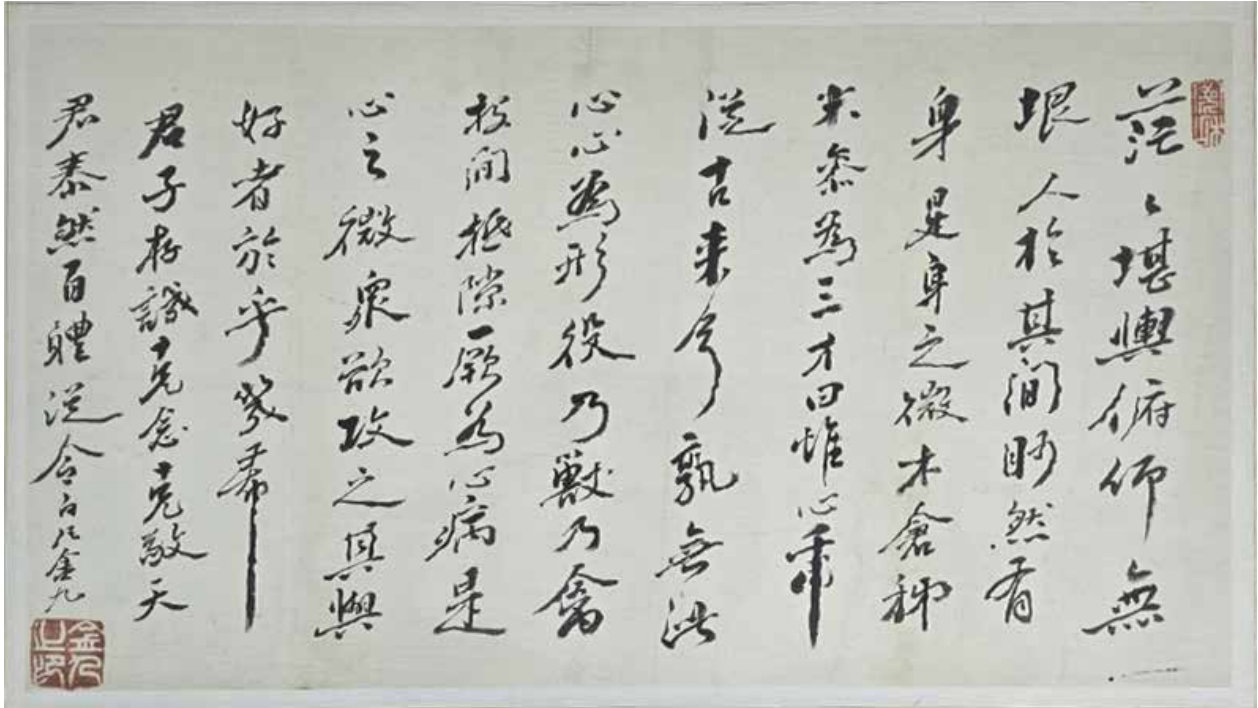
백범(白凡) 김구(金九)

52x30cm, 종이에 먹

시작가 ₩4,000,000

마음을 어떻게 부리냐에 따라서 금수와 같이 될 수 있는데 마음의 병이 참으로 무리를 미약하게 만드니 군자의 올바름으로 정성을 다하고 생각으로서 이겨내고 공경으로서 이겨내면 하늘의 임금이 크게 온갖 사물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김구(金九, 1876~1949)는 일제 강점기 한국의 독립 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자는 연하(蓮下), 호는 백범(白凡), 연상(蓮上)이다. 백범이라는 호는 미천한 백성을 상징하는 백정의 '백(白)'과 보통 사람이라는 범부의 '범(凡)' 자를 따서 지었다.



140

심향(深香) 박승무(朴勝武)

설청(雪晴)

戊申年(1968) | 70x32cm, 종이에 수묵담채

시작가 ₩500,000

무신년 국추(菊秋)인 9월에

심향(深香) 노초(老樵)가 그린다.



박승무(朴勝武, 1893~1980)은 대한민국의 화가로, 호는 심향(心香, 深香), 소하(小霞), 본관은 반남(潘南)이다. 1913년 조선서화 미술회 강습소에 입학하면서 안중식, 조석진 등으로부터 그림을 배웠고 서화협회 전람회와 조선미술전람회 등에 출품하였다. 광복 이후에 열린 제1, 2, 3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추천작가로 참가했으며 제4회 국전에서 초대작가로 선정되기도 했지만 국전의 문제점을 이유로 출품하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주로 대전에 정착하면서 활동했으며, 1957년 충청남도 문화상을 수상했고, 1972년 한국근대미술 60년전과 1974년 원로작가 초대전에 초대되었다. 1976년 그의 작품들을 모은 심향 박승무 회고전(1976년 11월 26일 ~ 12월 7일, 동아일보 사·동아방송 주최)이 열렸으며, 그의 대표 작품으로 설경산수(雪景山水), 춘경산수(春景山水) 등이 있다.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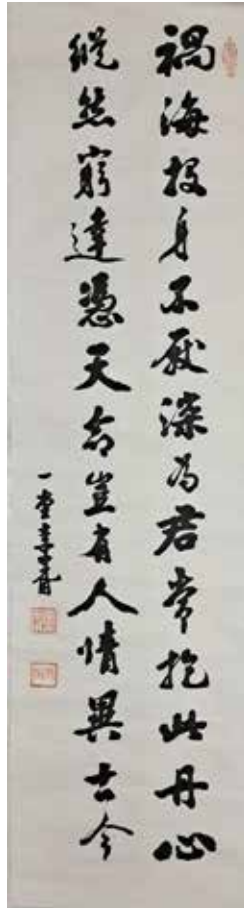
일당(一堂) 이완용(李完用) 묵서(墨書) 시고(詩稿)

大正年間 | 130x32cm

시작가 ₩200,000

칠언 율시 [禍海投身不就深....
豈有人情異古今]시고이다. 말
년의 시고로 보인다.

이완용(李完用, 1858~1926)은
조선말기에서 대한제국기의 관
료이자 서예가이다. 을사오적
(乙巳五賊) 중 한 사람이며, 일
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수
여받은 친일파이다. 당대 명필
로서 명성이 있었으며, 해서·행
서·초서·전서·예서·팔분체 등에
두루 능하여 다양한 작품을 많
이 남겼다.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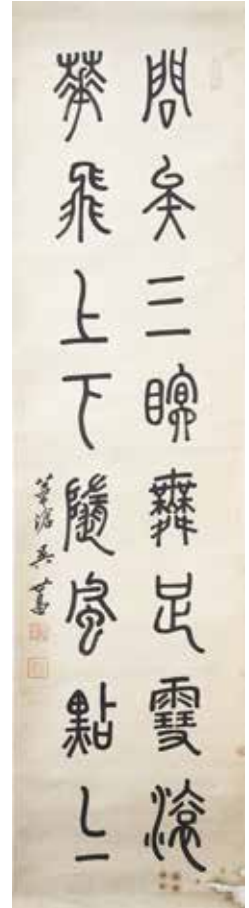
위창(葦滄) 오세창(吳世昌)

篆書墨書

126x32cm, 종이에 먹

시작가 ₩200,000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
昌, 1864 1953)은 한말
의 독립운동가·서예가·
언론인이다.



143

한석봉(韓石峯) 해서체(楷書體)로 쓴 도연명(陶淵明)의 [오류선생전 五柳先生傳] 목판 탁본

萬曆25年(1597) | 63x20cm, 23장, 목판본

시작가 ₩1,500,000

한석봉의 해서체 쓴 도연명(陶淵明)의 [오류선생전]의
목판본 탁본이다. 내용은 [先生不知 字宅邊有 五柳
樹因 以爲號焉....葛天氏之民歟, 선생의 이름은 알지
못하나 집옆에 버드나무 다섯그루가 있기에 그것으로
써 호를 삼았다. ... 갈천씨 시대 사람인가]이다. 간기가
[萬曆二十五年丁酉二月十二日書于石峯○]있다. 마
모 흔적이 있으나, 배접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한호(韓濩, 1543~1605)은 본관은 청주, 자는 경홍(景洪). 호가 석봉(石峯)·청사(淸沙)이다. 조선 서예계에
서 가장 유명한 서예가이다.





144

김옥균(金玉均)의 [정정연박 靖貞淵博] 묵서(墨書)

연도미상 | 25x52cm, 종이에 먹

시작가 ₩300,000

김옥균(金玉均)의 [靖貞淵博, 편안하고 지조가 곧으면 아는 것이 깊고 넓어진다] 선면도(扇面圖) 묵서(墨書)이다. 김옥균(金玉均, 1851~1894)는 조선말기 충남 공주 출신 정치가, 사상가, 급진개화파이다. 명문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1872년 문과 장원급제 후 여러 요직을 두루 거쳤고, 충의계를 조직해 개화 사상 확산에 힘썼으며, 동남제도개혁사 겸 관포경사에 임명돼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개척했다. 임오군란 후 일본식 급진 개혁을 주장했으나, 양무 운동식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외척 민씨 세력에 번번히 발목을 잡히다 못해 갑신정변을 일으켜 조선을 임시적으로 손아귀에 쥐었다. 얼마 안되는 병력 부족으로 청나라의 개입에 막혀 3일 만에 실패했으며 일본으로 망명했다. 청일 전쟁의 발발 직전에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다가 홍종우에게 암살됐다(김옥균 암살 사건). 조선으로 송환된 시신은 부관참시 후 8도에 효수됐다. 후일 개화파가 집권한 뒤 복권됐고 일제강점기 순종에 의해 충달공(忠達公)의 시호가 추서됐다.

145

조선팔도지도 朝鮮八道地圖

19세기, 채색 필사본

26.5x31.5cm 외, 지도 9면/총목 1면

시작가 ₩2,000,000

경기도에서 평안도까지 8도 지도와 유구국도를 포함하여 총 9면의 채색지도이며, 말미에는 '팔도총목(八道總目)'이 있다. 보존상태 매우 양호하다.



146

한글 명문(銘文) 떡살

신묘년

46.3x6cm, 나무에 음각

시작가 ₩500,000



147

근대시기 [자(尺)] 3점 일괄

일제강점기 이후 | 43cm 외

시작가 ₩200,000

148

조선시대 순라꾼이 들고 다니던 [순라 딱딱이] 한 쌍

조선시대 | 22.8cm, 나무

시작가 ₩200,000

순라꾼이 야간에 순찰할 때 사용했던 도구인 딱딱이는, 박달나무 방망이로 만들어져 소리를 내어 화재나 도둑을 경계하는 역할을 했다. 야경꾼(夜경꾼), 순라꾼(巡邏軍) 등은 옛날 조선 시대에 야간에 도둑이나 화재를 막기 위해 밤에 순찰을 다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박달나무로 만든 딱딱이를 들고 다녀 소리를 내어 순찰을 했다. [順治3년(1646)] 명문이 보인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49

승경도(陞卿圖) 놀이와 유사한 [정치양명도유희 政治揚名道遊戲]

揚名社, 昭和10년(1935) | 79x54cm

시작가 ₩300,000

일본 정치관료의 직위를 익히기 위한 놀이판이다. 조선의 승경도(陞卿圖) 놀이와 유사하다. 1935년에 揚名社에서 만든 놀이판이다. 좌우측면에 놀이방법이 인쇄되어 있다.

150

옛 외과(外科) 수술도구(手術道具) 한 벌

일제강점기 이전 | 보관 주머니 18x43cm, 20점

시작가 ₩500,000

칼, 집게, 가위 등 외과 수술용 도구들이 담겨 있다. 갈색 천으로 보관 주머니를 만들어 담았다.



揚武原從功臣銘券

司果黃以中

古玩觀止

洪景輔敬

功施重輕

醞釀者有

於轂下排

射天凶計

士之予有

張聿見築

布已深蛇豕竊發於草間警報甚急
逝十九史而古無衛國純誠賴三千
行居雖異同懷逐鳥雀之心兵獄俱
張聿見築

Part 3.

고문헌

No. 151 - 198



151 충북 영동군 신축년 관노안(官奴案)



영동군, 조선시대(1841?)
30x15.5cm, 8면 절첩, 단면

시작가 ₩100,000

표지와 내지에 관인 8방이 찍혀 있다.

신축년 5월의 관노 기련(基連) 등 관노팔용(官奴八用)과 방자노(房子奴) 봉현(鳳峴)의 영동군 소속 관노 9명의 명단이다.

노비의 양수사로 '用'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관노(官奴)는 각관노비(各官奴婢)로도 지칭되며, 각사노비(各司奴婢)·내수사노비(內需司奴婢)와 함께 조선시대 공노비(公奴婢)의 대표적 존재이다. 주로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사역하는 노비를 가리킨다. 관노는 각종 잡역에 종사하므로 관아에서 필수적 존재였는데, 이 때문에 1801년(순조 1) 공노비 혁파 이후에도 각사노비, 내수사노비와 달리 사라지지 못하고 19세기 말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다가 없어졌다.(위키실록사전)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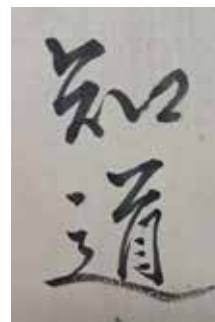
왕의 친필 지도(知道)가 있는 [의금부 계알 義禁府啓曰]

조선후기 추정 | 31.5x50cm 필사본

시작가 ₩300,000

내용은 의금부계알금춘하등부낭청포평등제당위마감이입이당상유고한내부득거행지의감계(義禁府啓曰今春夏等府郎廳褒貶等第當爲磨勘以入而堂上有故限內不得舉行之意敢啓, 의금부에서 왕께 고합니다. 금일에 의정부 낭청이 봄, 여름 등 포평(褒貶,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을 마땅히 등제(等第)해야 하지만, 당상(堂上)의 유고(有故, 사정)로 거행(舉行)할 수 없음을 아립니다.) '지도(知道)'는 임금이 알았다고 하문한 말이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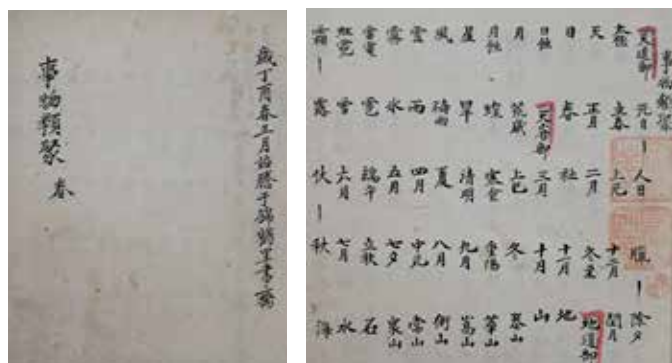
[事物類聚 事物類聚] 춘·하·추·동 4책 일괄

竹坡 筆 | 錦鶴里書齋, 丁酉~己亥年
29x20cm, 103 장 외, 필사본

시작가 ₩400,000

유려한 세필로 정성들여 필사한 춘·하·추·동 4책으로, 중국 상고시대부터 송나라까지의 모든 사건과 글들을 모아 엮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다. 春卷에 [歲丁酉春三月始臚于錦鶴里書齋], 冬卷에 [歲己亥正月晦日錄于沙哭幕竹坡篇]이 있다.

정유년 춘 3월에 금학리서재에서 등사를 시작하여 기해년에 정월 그믐에 사곡막의 죽파(竹坡)가 필사를 마쳤음을 기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54

소록도 자혜의원 원장 등 천 명의 이름과 인장이 찍힌
‘천인협조 기성가기(千人協助其成可期)’의 대자본
[천자문 千字文]

東小園, 일제강점기 | 38.8x29.5cm, 32장, 필사본

시작가 ₩1,000,000

일제강점기 일본인인 소록도 자혜의원 4대 원장 주방정계(周防正季), 조선인 김수석(金壽錫) 등 일본인과 조선인 천 명의 이름과 인장이 있는 ‘천인협조 기성가기(千人協助其成可期)’의 대자본 [천자문]이다. 자구의 구성이나 음·훈을 살펴보면, 대자본 한석봉 천자문을 모본한 것으로 보인다. 상태는 매우 좋고, 포갑이 따로 있다.



155

조선왕조 사초로 보이는
[조야유록 朝野類錄] 필사본

조선후기 | 37x25cm, 104장, 필사본

시작가 ₩500,000

조선왕조의 사초로 보인다. 정사년 이위(李瑋)의 상소부터 이단하(李端夏, 1625~1689)가 찬한 장렬왕후 조씨(莊烈王后 趙氏, 1624~1688)의 장릉지까지 수록하고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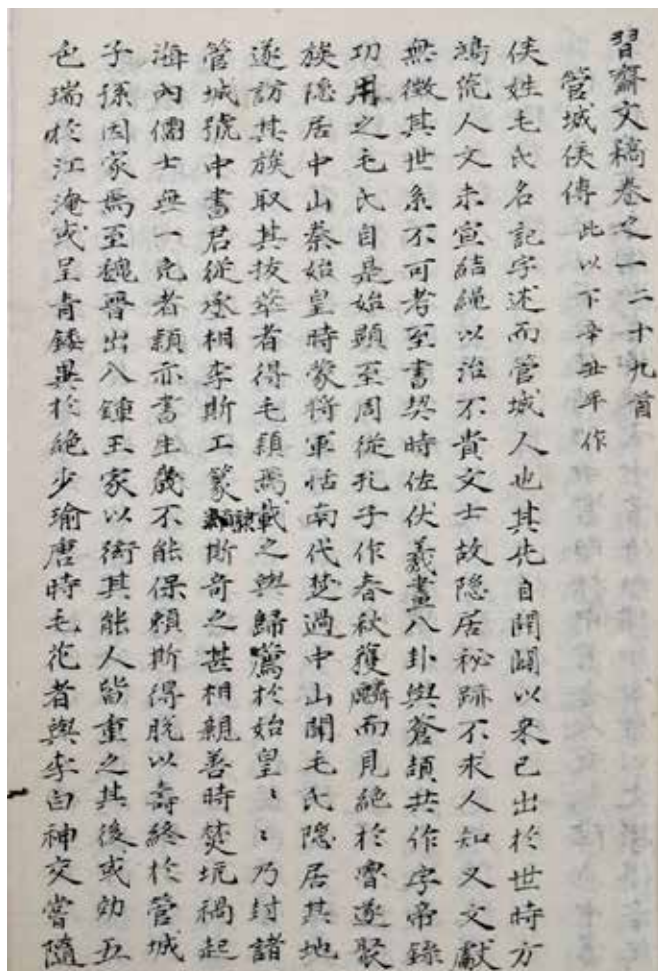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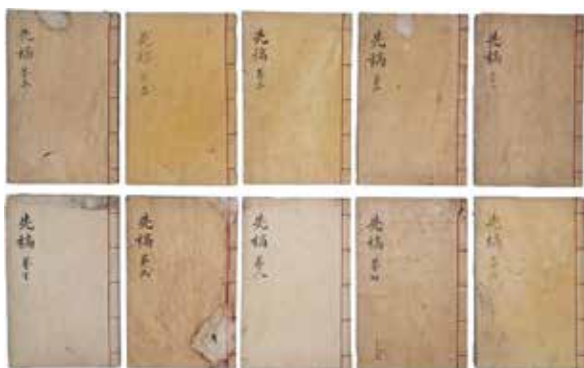
조선중기 문신 권벽의 시문집 [습재시고 習齋詩稿] 필사본 10책 일괄

권벽(權擘) 著 | 조선후기 | 32.5x22.5cm, 26장 외 필사본

시작가 ₩500,000

권벽의 시문집이다. 표제가 [先稿]이고, [習齋文稿] 1책과 [習齋詩稿] 20권 9책 등 총 10책이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권벽(權擘, 1529~1593)은 조선중기 성주목사(星州牧使)·원주목사(原州牧使)·여주목사(驪州牧使)와 선산부사(善山府使)·장단부사(長湍府使)·안변부사(安邊府使)·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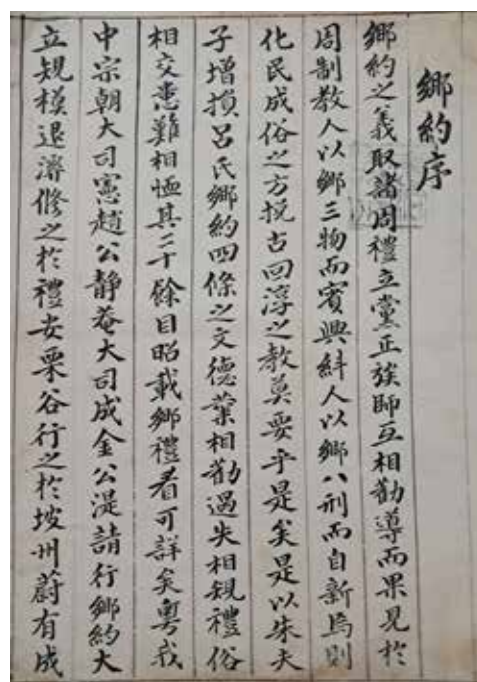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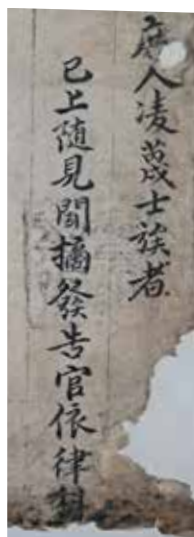
남일면 탄동리 향약안 南一面炭洞里鄉約案

조선후기 | 40.5x29.5cm, 13장, 필사본

시작가 ₩300,000

유교적 예절과 풍속을 향촌사회에 보급하여 도덕질서 확립과 미풍양속 진작을 도모하고 재난시의 상부상조를 위한 규약이다.

조선후기에 향약의 4대 규약과 벌칙 등이 정서된 필사본이다. 내지에 [會洞香院]의 인장이 있다. 표지는 개장하였고, 내용은 부분 배접하였으나,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58

이황(李滉)의 [성학십도 聖學十圖] 필사본 병풍

李滉 著 | 조선중기 | 63x40cm, 10면 1첩, 필사본

시작가 ₩200,000

이황의 [성학십도]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선조의 즉위 원년에 올렸던 소인데, 선조로 하여금 성왕(聖王)이 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간절히 바라는 우국충정에서 저술한 것이다. [성학십도]는 서론의 내용이 담긴 [진성학십도차]에서 시작해 10개의 도표와 그 해설로 되어 있다. 도표는 태극도(太極圖)·서명도(西銘圖)·소학도(小學圖)·대학도(大學圖)·백록동규도(白鹿洞規圖)·심통성정도(心統性情圖)·인설도(仁說圖)·심학도(心學圖)·경재잠도(敬齋箴圖)·숙흥야매잠도(夙興夜寐箴圖)이다. 이 병풍은 [성학십도] 도표로, 2중 대형포갑에 보관하고 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나, 제8도가 결손되었다.



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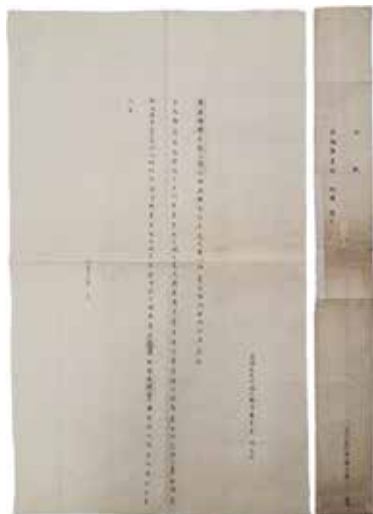
충남 서산군수 정재기(鄭在箕)가 병마절도사에게 올린 [상장 上狀]과 봉피

병인년(1866) | 82x48cm

시작가 ₩100,000

고종3년(1866) 정재기가 서산군수(瑞山郡守)로 재임했을 때 병마절도사에게 올린 상장과 봉피이다.

정재기(鄭在箕, 1811~1879)는 경남 함양 출신 문신이다.



160

조선시대 [향음주례홀기 鄉飲酒禮笏記] 필사본 두루마리 1점

조선시대 | 24x785cm

시작가 ₩100,000

향촌의례의 하나인 향음주례(鄉飲酒禮)의 순서를 기록한 홀기(笏記). 필사본 두루마리이다. 상태는 양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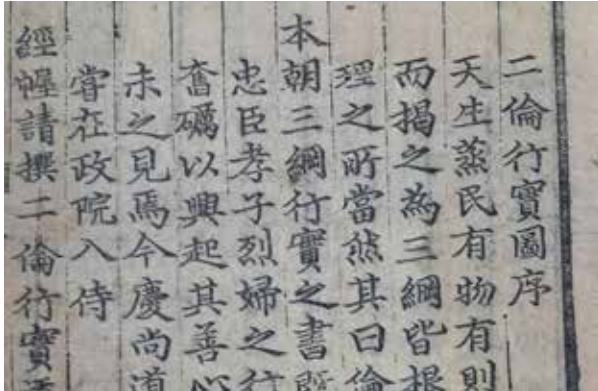
161

[이륜행실도 二倫行實圖]

曹伸(朝鮮) [撰]

嶺營, 庚戌年(1730) | 35.5x22cm, 55장, 목판본

시작가 ₩1,700,000



조선전기 문신 조신이 왕명을 받아 오륜(五倫)중 장유와 봉우의 행실이 뛰어난 중국의 역대 명현을 가려 뽑아 저술한 책이다.

내용은 兄弟 25편, 宗族 7편, 朋友 11편, 師生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각 장은 전면이 도판으로, 도판 상단 여백에 언해가 실려 있다. 후면에는 한문으로 된 행적기록과 시찬(詩贊)이 있다.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정치인 朴文秀의 발문이 있고 [庚戌(1730)六月 嶺營開刊]한 간기가 있다.

이 책의 도판 및 언해는 조선시대 판화(版畫)의 변천 및 국어사의 발달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유학사상 및 윤리관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표지는 개장한 것으로 보이고, 약간의 물 흔적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162

백하(白下) 윤순(尹淳) 간찰

甲寅年(1734) | 58x36cm

시작가 ₩300,000

갑인년인 1734년 그믐날에 정제두(鄭齊斗)의 문인이자 공재 윤두서(尹斗緒)의 이질인 백하(白下) 윤순(尹淳, 1680~1741)이 정곡(貞谷)에서 대사헌을 지낸 송성명(宋成明, 1674~1740)에게 보낸 간찰로 회갑연 얘기를 꺼내면서 풍질에 걸려 누워있다는 등의 내용을 적고 있다.



○ 윤순(尹淳, 1680~1741)

조선후기 예조판서, 평안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서화가.

○ 송성명(宋成明, 1674~1740)

조선 후기 도승지, 대사헌, 함경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163

1784년에 시행한 정시(庭試) 문과·무과 급제자 명부 [왕세자 책봉 경릉호방 王世子冊封慶龍虎榜]

正祖(朝鮮) 命編 | 芸香閣, 甲辰年(1784) | 28.5x19.5cm, 105장, 목판본

시작가 ₩1,300,000

1784년(정조 8) 元子를 왕세자로 책봉한 경사를 축하하기 위한 慶科로 시행한 庭試 문과·무과급제자 명부이다. 서문 앞에 [甲辰年(1784)重陽月 冊封慶龍虎榜芸香閣藏板]의 간기가 있고 [御製冊封慶龍虎榜序...予卽祚之八年(1784)...徐龍輔 書]가 있다.

내용은 정조가 직접 짓고 원임 규장각 직각 지제교 徐龍輔가 쓴 서문, 시험 정보, 문과급제자 명단, 무과급제자 명단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정조는 1784년 정시를 시행한 배경, 시험 일정, 선발 인원 그리고 방목을 국가에서 인출하여 반사(頒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조6년(1782) 宜嬪 成氏에게 원자가 태어났다. 이 원자가 3세가 되던 1784년 8월 2일에 정조는 원자를 왕세자에 책봉하였다. 왕세자 책봉을 축하하는 경과인 정시를 치렀다.

정시는 문과와 무과만을 치르는 비정기 시험이었다. 정시는 국왕의 품지에 따라 1회의 시험만을 치르기도 하고, 초시와 전시 두 단계로 치르기도 하였다. 이때의 정시는 초시와 전시 두 단계로 시험을 치렀다. 초시는 9월 19일에, 전시는 9월 26일 시행하였으며, 방망은 10월 2일에 시행하였다. 초시와 전시 모두 서울에서 시행되었다.

내용 상단에는 물 흔적이 있다. 표지가 낡고 상단부분이 손상되었으나, 내용 상태는 양호하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164

장서인 날인된 목판본 [어제숙흥야매잠 御製夙興夜寐箴]

1746 | 33.7x21.4cm

시작가 ₩400,000

조선중기의 학자 노수신이 송나라의 진백(陳柏)이 지은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8장으로 나누고 주해한 것으로 1746년(영조 22) 왕명에 의해 황경원(黃景源)이 쓴 영조의 어제 서문과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 가운데 제10도인 숙흥야매잠도를 첨부하여 간행하였다. 숙흥야매잠어제(御製夙興夜寐箴)은 깨어나서 잠잘 때까지 시간을 경계하고 성찰한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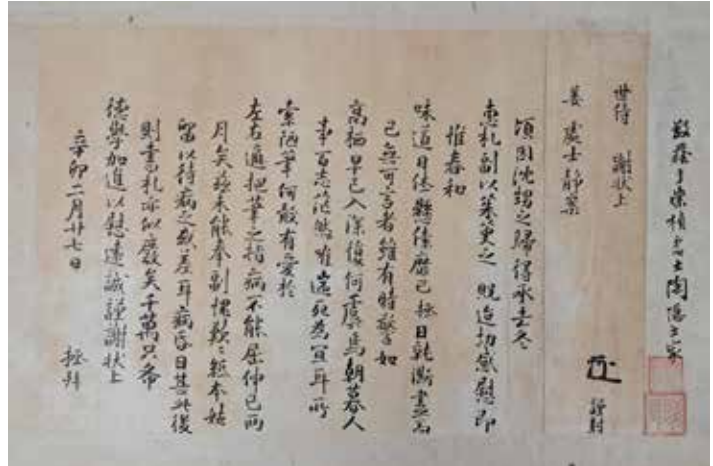
165

소론의 영수 윤증(尹拯)이 별세하기 3년 전에 송정처사에게 보낸 간찰

辛卯年(1711) | 52x37cm

시작가 ₩300,000

대대로 교분 있는 집안의 어른께 자신을 낮추며 소론의 영수 명재(明齋) 윤증(尹拯)이 1711년 신묘년 2월 27일 송정처사(崇禎處士) 도은(陶隱) 강각(姜恪)에게 보낸 간찰이다. 진주 강씨 강처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沈씨 성을 가진 생질이 돌아간 후 지난 겨울에 보낸 주신 서찰을 받았습니다. 화창한 봄날씨에 도(道)를 음미하며 체득하고 계신지요? 저 윤증은 매일 갈수록 기력이 완전히 다하여서 무슨 말을 가히 할 수 있을런지요. 비록 때에 따른 경계의 말을 할지라도 아침저녁을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 백가지 뜻을 옳게 하려고 하여도 오직 빨리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중략)....작우의 도움으로 붓을 잡고 싶어도 병으로 인하여 몸을 펼 수 없는 상태가 2개월 가량 됩니다. 병이 나아지면 다시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덕을 쌓고 학문에 정진하옵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바랍니다.



○ 윤증(尹拯, 1629~1714)

조선 후기에 스승인 송시열과의 대립을 계기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리되었을 때, 소론의 영수로 추대되었으며 1684년 대사헌, 1709년 우의정, 1711년 판돈녕부사 등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사퇴하고 나가지 않았다.

○ 강각(姜恪, 1620 1657)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오(敬吾), 호는 도은(陶隱)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166

금속활자 정리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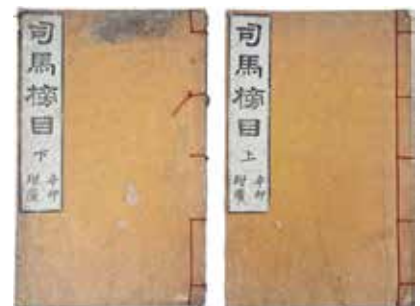
[신묘경과증광사마방목 辛卯慶科增廣司馬榜目] 상하 2책 완질

1891 | 35.4x22.5cm

시작가 ₩600,000

상지즉조29년 신묘경과 증광사마방목(上之卽祚二十九年辛卯慶科增廣司馬榜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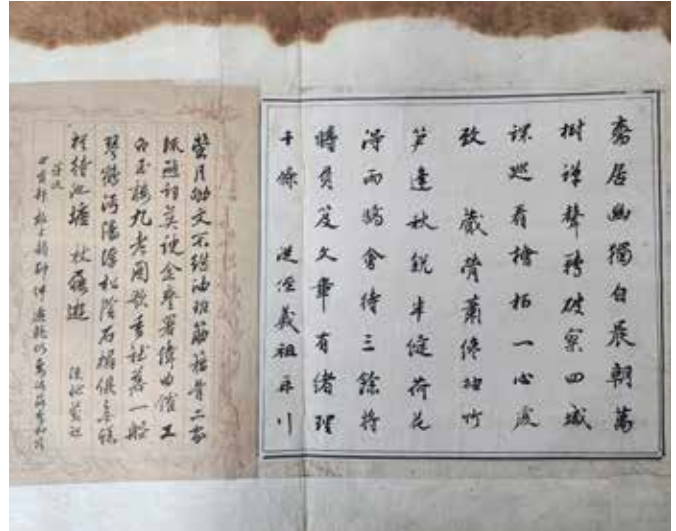
고종27년(1890) 왕의 건강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1891년에 실시된 생원·진사시의 합격자 명단을 수록한 책으로 재주정리자본이다. 방목榜目の 기재사항은 합격자 본인과 가족사항으로 구분되는데, 본인에 관한 사항은 응시 당시의 직위나 신분이 적힌 전역前歷, 이름, 자字, 생년生年, 본관本貫, 거주지居住地이며, 가족사항은 아버지의 관직과 이름, 父母 父母 및 조부모祖父母의 구존여부俱存與否와 안행雁行(형제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다.



원주 풍산홍씨 집안 소장으로 추정되는, 남인 문학의 시사(詩社)를 창립한 호린(皓隣) 강세백(姜世白), 반창(半蒼) 홍순호(洪醇浩) 등 시고가 있는 시첩 및 간찰첩

조선후기 | 34x21.5cm, 34면

시작가 ₩1,500,000



원주(原州) 풍산홍가(豊山洪家) 집안에서 소장한 것으로 추정된 시고 34면에 첩의 제목은 차자(筴子)를 모아 놓은 시첩이다. 차휘(筴彙)로 쓰여 있지만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풍산홍가(豊山洪家) 간찰 등 10점을 비롯하여 한시 차운 29수가 수록된 간찰첩 형태로 20명 내외의 관리 및 유학자 그리고 시인 묵객들이 쓴 글을 적어 놓은 것이다. 종질(從姪) 홍희조(洪義祖), 종질(從姪) 홍희명(洪義明), 척질(戚姪) 홍경(鴻慶), 제(弟) 철(徹), 서원(許元) 한성보(韓星甫), 사수(泗水, 사천) 목태석(睦台錫), 사와(思窩) 김기경(金箕景), 박관오(朴寬吾), 정원발(丁元發), 척질(戚姪) 남화중(南華中), 호린(皓隣) 강세백(姜世白), 반창(半蒼) 홍순호(洪醇浩) 조카인 홍의조(洪義祖, 耄瑞), 하양 현감 임희택(任希澤) 한시 등이 있다.

호린(皓隣) 강세백(姜世白)이 첩의 말미에, 천주교 박해자 척암(瘠菴) 이기경(李基慶, 1756~1819)과 반창(半蒼) 홍순호(洪醇浩, 1766~1820)가 서울을 여행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이기경(李基慶)이 술을 마시며 노래 부른 한시의 시축을 나에게 보여 주면서 차운 시를 부탁하길래 이기지 못하고 무릇 13수의 차운시를 지어 주게 되었다”는 시평과 더불어 ‘호린(皓隣)’ 및 ‘청지(淸之)’의 강세백(姜世白)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 상주의 대표적인 시사(詩社)를 창립한 강세백(姜世白, 1748 1824년)

1792년 영남 지역 유생 7,000명이 모인 도산별시에서 장원을 차지하였으며, 이경유(李敬儒)·이승배(李升培)·류심춘(柳尋春) 등과 교유하며 상주의 대표적인 시사(詩社)인 추수사(秋水社)와 죽우사(竹雨社)를 창립하고 주도하기도 하였다. 강세백은 국포 이후 남인문단의 문학적 전통이 19세기까지 이어져 계승되는데 그 교량적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한 명실 공히 상주지역의 주요 문학가로 평가할 수 있다.

○ 천주교 박해자 이기경(李基慶, 1756~1819)

조선 후기에, 병조정랑, 정언, 이조좌랑 등을 역임한 문신으로 천주교 박해자이다.

○ 詩社 결성 문학에 전념한 반창(半蒼) 홍순호(洪醇浩)

반창(半蒼) 홍순호(洪醇浩, 1766~1820)는 강원도 丹邱 출신의 문장가로 豊山洪氏 菊泉 洪來輔(1706~1780)의 아들이며 澹寧 洪義浩(1758~1826)의 사촌동생으로 半蒼私稿(丹溪漫錄)에 2천여 수의 한시와 산문들을 남겼다.

○ 목태석(睦台錫)

[문과] 순조(純祖) 9년(1809) 기사(己巳) 대증광시(大増廣試) 병과(丙科) 25위(3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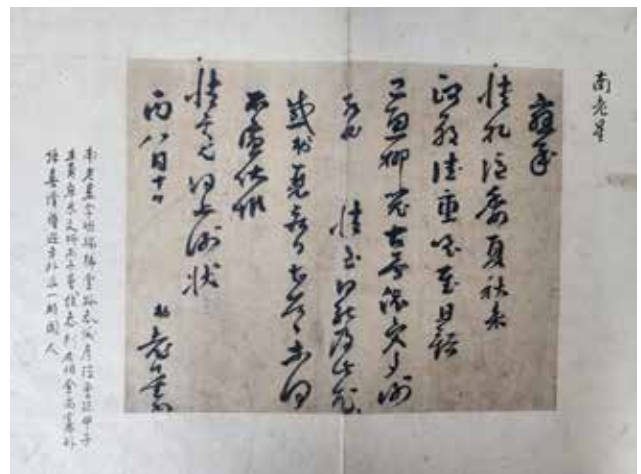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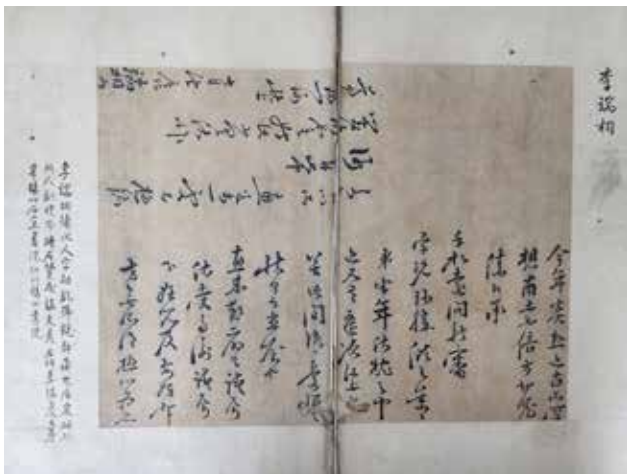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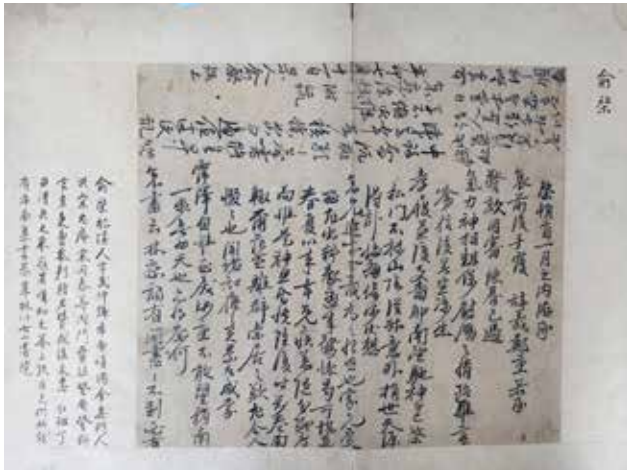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17세기 허목·윤순거·이완·이정영·박세채 등 명문세족 15인 간찰첩

1657년 외 | 37x26cm, 15점

시작가 ₩3,000,000

생물 시기가 1700년 이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대제학, 소론의 영수 등 명문세족의 간찰첩으로 유계를 비롯하여, 남노성, 이후원, 조복양, 홍명하, 조한영, 허목, 윤순거, 윤선거, 이완, 이정영, 이경억, 박세채, 이단상 15인의 간찰 15점이다. 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박장원과 우의정을 역임한 이후원의 간찰은 미려한 시전지 위에 썼다.



- 고려사 여사제강을 편찬한 유계(兪槩, 1607~1664)
- 많은 문학작품을 남긴 박장원 (朴長遠, 1612~1671)
- 청요직을 두루 역임한 남노성(南老星, 1603~1667)
- 우의정 역임한 이후원(李厚源, 1598~1660)
- 대제학 역임한 조복양 (趙復陽, 1609~1671)
- 영의정 역임한 홍명하(洪命夏, 1607~1667)
- 경기도관찰사 역임한 조한영 (曹漢英, 1608~1670)
- 우의정 역임한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

- 문장과 글씨에 뛰어난 윤순거(尹舜舉, 1596~1668)
- 노소론의 분파가 된 윤선거(尹宣舉, 1610~1669)
- 효종때 북벌의 선봉장 이완(李浣, 1602~1674)
- 전서(篆書)에 뛰어난 이정영(李正英, 1616~1686)
- 좌의정 역임한 이경억(李慶億, 1620~1673)
- 소론의 영수인 박세채(朴世采, 1631~1695)
- 좌의정 이정구의 손자 이단상(李端相, 1628~1669)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169

임란때 의병을 모집한 윤탁연(尹卓然) 시연시첩(諡宴詩帖)

庚午年(1750) | 40x29cm, 19점

시작가 ₩1,500,000



임진왜란때 의병을 모집한 칠계군(漆溪君) 목와(牧窩) 윤탁연(尹卓然)에게 1750년 경오년 헌민공(憲敏公)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그 해 초겨울에 시호와 교지를 맞이하며 베푸는 잔치인 연시례(延諡禮) 시연시첩(諡宴詩帖)이다. 직계 후손들을 비롯하여 외가 후손 및 관리들이 축하하며 쓴 시연시첩(諡宴詩帖)이다. 일부 미려한 무늬가 갖은 시전지에 흥을 돋을 수 있는 축하연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19점이 수록되어 있다.

승지 김문행을 비롯하여 직계 후손 불초 5세손 덕숭(德崇), 덕춘(德春), 후손 경재(敬宰), 경익(敬益), 외가 6세손 이정무(李正懋), 우흥구(禹洪龜), 생원 유언용(兪彦容), 정언 임경관(任鏡觀), 참의 임의중(任毅中) 등 19인의 축하 시가 있다.

시호에서 시(諡)는 행위의 자취요, 호(號)는 공(功)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는 죽은 이의 생전 행적의 선악을 살아 있는 이들이 평가하여 후손들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포폄(褒貶)의 의미가 있으므로 시호를 내리면서 베푸는 잔치 연은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헌민공(憲敏公) 윤탁연(尹卓然, 1538~1594)

조선 중기에, 경상도관찰사, 형조참판, 함경도도순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본관은 칠원(漆原). 자는 상중(尙中), 호는 중호(重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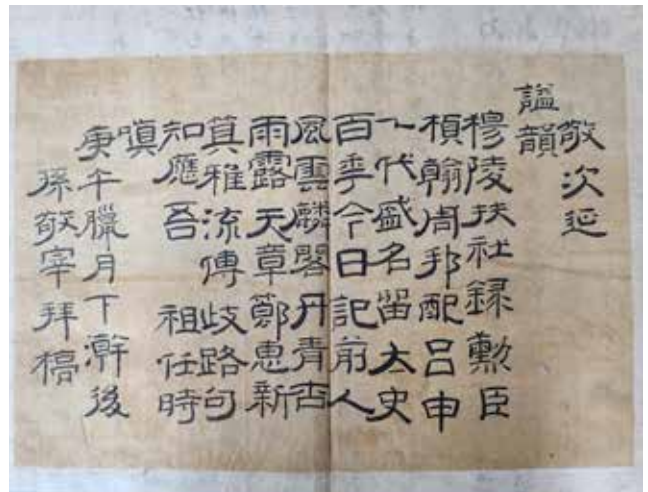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을 모시고 북으로 가던 도중 검찰사(檢察使)에 임명되었다. 윤탁연은 왕의 특명으로 함경도도순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하고, 왜군에 대한 방어계획 등 시국 타개에 노력하다가 그곳에서 객사하였다. 송익필(宋翼弼)·이산해(李山海) 등과 팔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시문에 능하였다. 시호는 헌민(憲敏)이다.

○ 승지 김문행(金文行, 1701~1754)

○ 정언 임경관(任鏡觀)

1693년(숙종 19)~미상. 조선 중기 문신. 자는 광보

○ 참의 임의중(任毅中, 1695~1769)



170

안동권씨 시조 [태사권공실기 太師權公實記] 목판본 3책

1909 | 30.5x19.5cm

시작가 ₩150,000

태사권공실기(太師權公實記)는 안동 권씨 시조인 권행(權幸)을 기리는 문헌으로 권행(權幸)의 행적과 관련된 기록, 고증, 변무시말(辨誣始末), 제영(題詠) 등을 담고 있다.

권행(權幸, 866?~953?)은 고려(高麗)의 공신이자 안동 권씨(安東 權氏)의 시조이다. 930년(고려 태조(高麗 太祖) 13년)에 고창군(古昌郡)에서 왕건(王建)이 후백제왕(後百濟王) 견훤(甄萱)과 전투를 벌였을 때 고을 사람 김선평(金宣平), 장길(張吉)과 함께 태조 왕건(太祖 王建)을 도와 전공을 세우면서 대상(大相)으로의 임명과 권씨 성을 하사받았으며, 아부공신(亞父功臣)에 책록되었다. 이후 고창군은 안동부(安東府)로 승격되었다.

171

금속활자 무신자본 [분무원종공신녹권 奮武原從功臣錄券]

1728 | 32.5x21.5cm

시작가 ₩400,000

1728년 양무녹훈도감에서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분무원종공신에게 발급한 녹권으로 시명지보(施命之寶), 장서각도서인(藏書閣圖書印)이 날인되어 있다. 분무공신은 난을 평정한 공으로, 일등공신에는 오명항(吳命恒), 이등공신에는 박찬신(朴贊新)·박문수(朴文秀) 등 7인, 삼등공신에는 이수량(李遂良) 등 7인으로 모두 15인이 녹훈되었다. 이 분무원종공신은 정공신(正功臣) 외에 작은 공이 있는 자를 녹훈한 것인데, 그 수가 9,000여 인에 이르고 있다.

서두에 대제학 윤순(尹淳)이 제진(製進)한 것으로 난의 발생·경과·토벌·처벌 과정에 관한 개략과 대사령(大赦令)을 내린 내용을 담고 있다. 분무원종공신의 명단을 보면, 고위관직자·하위관직자·사인(士人)·양인(良人)·공사천(公私賤)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녹훈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신분변동과 가자 및 사면의 한계를 밝히는 자료가 된다.



172

조선왕가 종실계보의 오류를 바로 잡고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간행된 [광국지경록 光國志慶錄] 목활자본

1703 | 34x22cm, 권말 2장 일부 글자 결

시작가 ₩500,000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잘못 기록된 조선왕가의 종실계보를 바로잡게 된 것을 축하하며 여러 신하들과 화답한 시 등을 모은 책으로 숙종27년에 엮은 책이다. 권두에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1588년 사은사(謝恩使) 유홍(兪泓)이 조선의 종계(宗系)에 관한 내용이 수정된 대명회전(大明會典)을 가지고 돌아왔다. 유홍(兪泓)이 주사(主事) 마유명(馬維銘)의 증별시에 화답하는 시 2수를 지었는데, 선조가 이 일을 기념하여 신료들에게 그 시에 차운하도록 하고 자신도 시를 지어 신게 하였다. 숙종도 이를 읽고 차운시를 지었으며 유홍(兪泓), 노수신(盧守愼), 이산해(李山海), 윤근수(尹根壽) 등 여러 신하들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차운시를 지었다.



173

금강산 동유록, 천자문 등이 수록된 [종산집 鍾山集]

8권 4책 중 1~4권 2책 영본

1899 | 29x18cm, 목활자본

시작가 ₩100,000

조선후기의 학자 조존영(趙存榮)의 시문집. 8권 4책. 목활자본. 1899년 손자 기현(琦顯)·의현(儀顯) 등이 편집, 간행하였다. 권두에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다.

권1 3에 시 247수, 금강산에 갔다온 내용을 적어 놓은 동유록(東遊錄), 권4에 서(書) 3편, 잡저 13편, 권5에 서(序) 8편, 기(記) 13편, 권6에 기 12편, 발(跋) 3편, 명(銘) 11편, 상량문 3편, 권7에 제문 6편, 권8에 제문 18편, 묘지명 3편, 묘갈명 2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독육도(讀六韜), 세아(洗兒), 변천자문(變千字文) 등의 글이 있다.



174

장서인 날인된 김천출신 이의조(李宜朝)의 [가례증해 家禮增解] 14권 10책 완질

간기미상 | 34x22cm, 목판본

시작가 ₩500,000

전주 이씨 완산인 이연(泥蓮) 이범귀(李範龜) 장서인이 있다.

조선후기, 학자 이의조가 [가례] 실려 있지 않은 변례를 채록하여 증보하고 가례에 제시된 명물도수(名物度數)의 의미를 고례에 근거하여 해설한 예서이다.

이의조(李宜朝, 1727~1805)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맹종(孟宗), 호는 명성당(明誠堂)이고 사람들이 경호선생(鏡湖先生)으로 불렸다. 지금의 김천시 구성면 상좌원리에서 태어났다. 약관의 나이에 사환(仕宦)의 뜻을 접고 성학(聖學)에 매진하였다.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술 활동뿐만 아니라, 방초정(芳草亭)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후진양성에도 전력하였다. 부친의 유명을 따라 13년 동안 [가례증해 家禮增解] 9권 10책을 완성하였다. 황승원(黃昇源)의 추천으로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고, 마을에 '경호서사(鏡湖書社)'를 지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일생을 마쳤다. 송시열의 현손인 송능상에게 수학하였다.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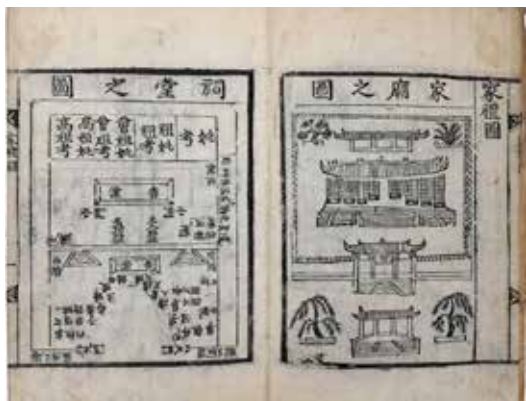
장서인 날인된 [가례 家禮] 건곤 2책 목판본

간기미상 | 32x22cm

시작가 ₩200,000

전주 이씨 완산인 이연(泥蓮) 이범귀(李範龜) 장서인이 있다.

관혼상제 四禮에 관해 중국 남송 때 주희가 편찬한 家禮를 간행한 책이다. 이 책은 가례도, 가례서, 통례, 관례, 혼례, 상례, 제례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례도는 그림과 함께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가례서는 회암 주희가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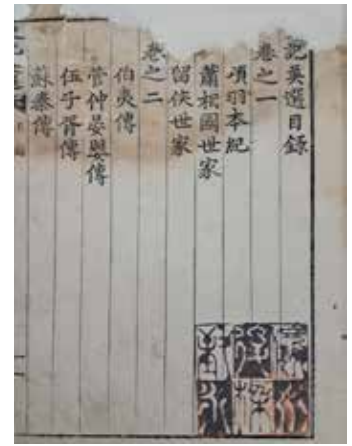
176

장서인 날인된 [사기영선 史記英選] 3책

丙辰內閣活印(1796) | 35x23cm, 상태 얼룩이 있음

시작가 ₩300,000

사기영선(史記英選)은 정조(조선, 22대)가 사마천의 사기와 반고班固의 한서의 내용 가운데 후세에 교훈이 될 만한 부분을 뽑아 1796년에 간행한 역사서이다. 책 상태가 좋지 못하며 전체적으로 얼룩이 있다. 영주후양치영(瀛州後樑致永)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제주 양씨 후손 치영(致永)으로 보인다.



177

규장지보가 날인된 [어정주서백선 御定朱書百選] 6권 2책 목판본

1794 | 36x22cm

시작가 ₩500,000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가 주희의 편지 중에서 가장 요긴한 내용 100편을 뽑아 1794년에 간행한 서간집이다. 조선시대 정조 대 이후 어제(御製)나 내사본(內賜本)에 찍은 어보(御寶)인 규장지보(奎章之寶)가 날인되어 있다.



178

한원진(韓元震)의 [남당선생문집 南塘先生文集] 38권 19책 완질

1800년 이전 | 29x19cm, 목판본 18책, 필사본 1책

시작가 ₩1,500,000

남당집은 조선후기의 학자 한원진의 시, 사, 소, 의 등을 수록한 시문집이다. 본집 38권은 1769년에 간행된 [누판고 鑲板考]와 1783년에 간행된 [교남책록 嶠南冊錄]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정조 초년 이전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19책 중 목록이 수록된 제1책 제1권은 필사본이다.

특히, 한원진을 중심으로 한 인물성상이론자(人物性相異論者)들은 그들 나름의 명확한 논점과 주장을 가지고 전통적 성리학 이론에 대해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인식 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들의 활발한 사유와 진지한 학구성은 이항과 이이 이후 18세기 조선조 유학의 커다란 특색이며 사상적 수확이라고 할 만하다.

한원진(韓元震, 1682-1751)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덕소(德昭), 호는 남당(南塘).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한상경(韓尙敬)의 후손이며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으로 강문팔학사(江門八學士) 중 한 사람이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179

대형판 [분류보주이태백시 分類補註李太白詩]

25권 14책 중 10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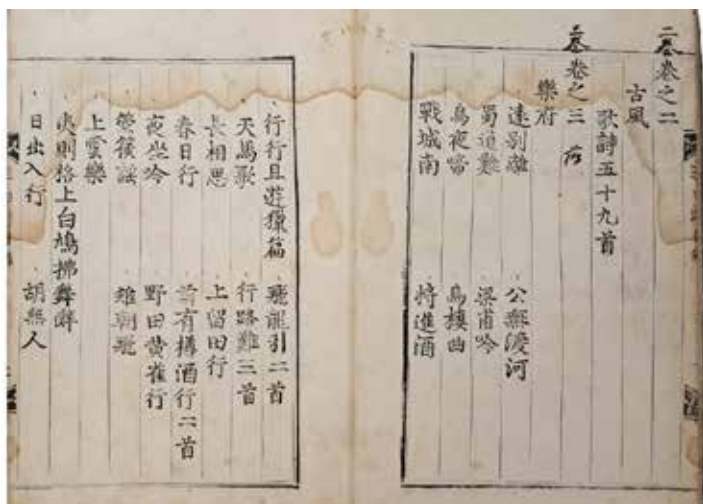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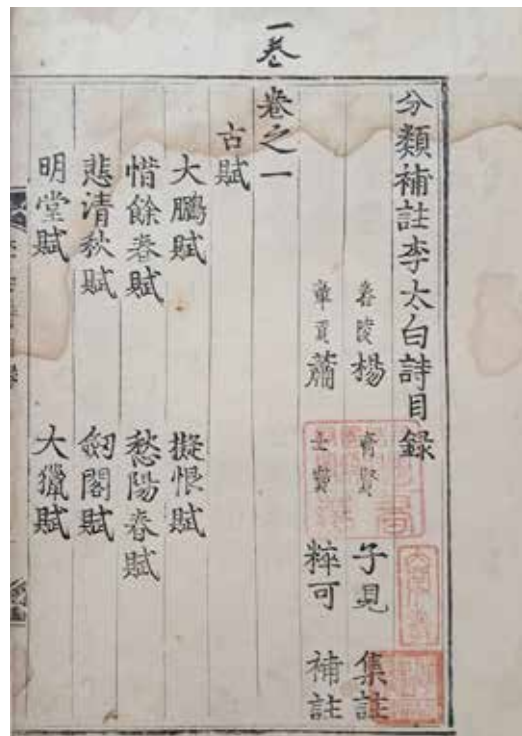
간기미상 | 36.5x22cm, 훈련도감자 목활자본

시작가 ₩3,000,000

표제 (表題)는 [청연집 靑蓮集]이다.

대형 다듬이 장지에 간행된 것으로 매권마다 장서인이 날인되어 있으며, 목록 1책 포함 총 14책 중 10책으로 2권, 3권, 6권, 13권 4책이 결실되어 있다.

[분류보주이태백시]는 송(宋) 양제현(楊齊賢)이 집주(集注)하고 원(元) 소사빈(蕭士賓)이 보주(補注)한 현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이백 시 주석본이다. [분류보주이태백시]는 세종대 간행되어 조선전기 문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시체와 제재와 주제별로 21개로 분류를 하였다.



180

[통문관지 通文館志]

10권 4책 중 2책(1~6권) 영본

戊戌仲秋...李湛謹序(1778) | 34x22cm

시작가 ₩800,000

조선시대 사역원의 내력과 고대로부터 외국과의 통교에 관한 사적 및 의절 등의 사실을 수록한 외교서이다.

초간본은 조선 숙종 때 역관이던 김지남(金指南)이 그의 아들 경문(慶門)과 함께 1720년에 편찬하였고, 중간본은 1778년에 이담(李湛)이 초간본을 증보해 원문 아래 ‘속(續)’자를 표시하고 ‘기년 편’을 더해 10권 4책의 목판본으로 중간하였다.

고대로부터 우리나라는 인접한 중국·요연(遼燕)·여진·일본 등과 어려운 문제를 타결해온 법례(法例)가 많았으나, 이를 수록한 문헌이 없어 고증할 길이 없으므로 어려움이 많아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사역원제조로 있을 때 김지남이 전고(典故)에 밝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고대 이래의 고사를 수집, 정리하여 찬수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남금(南磔)이 쓴 [병자난리일기 丙子亂離日記]

조선시대 | 24x14cm, 32장 필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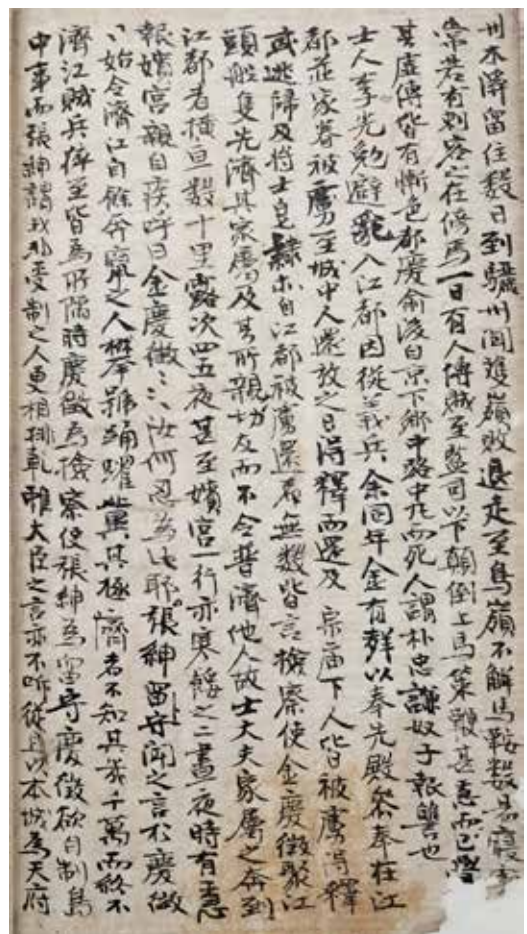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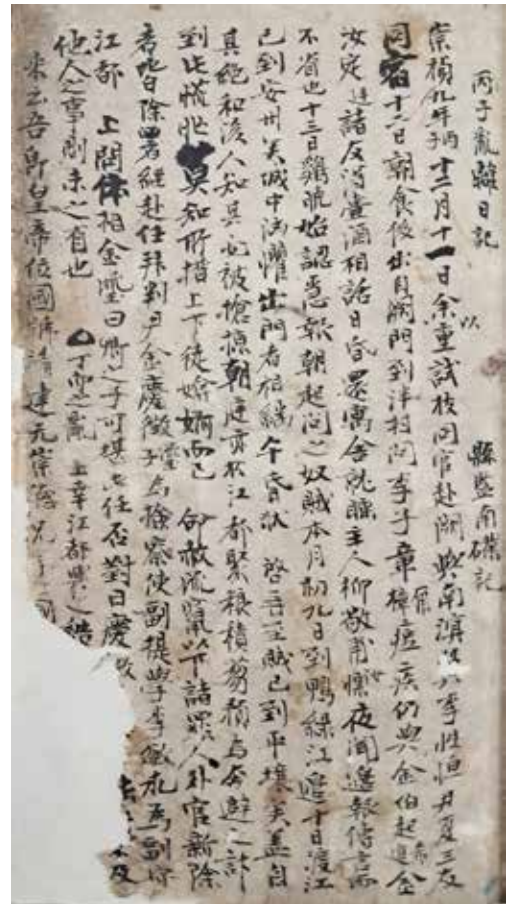
시작가 ₩5,000,000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에 저술된 일기는 총 다섯 종류가 현존하고 있다. 인조 대의 문신인 석지형(石之珩), 정지호(鄭之虎), 박항(朴漢), 나만갑(羅萬甲), 남금(南磔) 등의 저술이다. [병자일기 丙子日記], [병자난리일기 丙子亂離日記], [남한일기 南漢日記] 등으로 불린다.

현감 남금(南磔)이 쓴 [병자난리일기]는 저자 생존 시에 일기의 내용 일부가 빠진 채로 이루어진 것과 저자 사후에 빠진 일기를 보충하여 쓴 일기들이 남아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 현감 남금(南磔, 1592~1671)이 병자호란 때 체험한 사실을 기록한 실기가 있는데, 출판된 [병자난리일기]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다른 이본 필사본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병자일기와 비교 시에 필사본 권말 부분 두 곳에서 7장이 추가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44쪽에 “색도(色都) 경유후(慶兪後)는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오면서 탄환을 맞아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박충겸 종의 아들 복수를 갚은 것이라고 한다”까지 내용이 동일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본 필사본은 2장 반이 추가로 삽입이 되어 있다. “사인 이광면(李光勉)은 난을 피하여 강도로 들어왔는데 의병을 따라 들어온 것이다”로 문구로 시작되면서 ...(2장 반 추가) “...대저 청나라는 몽고와 다른 사나움이 있다”로 끝을 맺은 후 “영부사 김상용(金尙容) 정월 22일에 남문 위에서 청병이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 이후는 동일하다. 또한 영양남씨종중에서 1809년 목판으로 간행된 [신안세고 新安世稿] 권3-4에 남금이 남한산성에서 임금을 모시며 보고들은 바를 기록한 병자일기(丙子日記)가 있는데, ‘송정병자후 43년 무오년(1678)’ 모친 후학 선성 이유장(李惟樟)이 남금(南磔)의 이 일기를 보고 지은 글이 있다. 이를 [신안세고]과 비교 시에 2장 반 이상이 추가되어 있다. 내용은 “청나라 황제가 청나라 장수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에게 장군에게 힐책하며 가로대 교린을 할 때는 성신을 다해야 되고 조선이 3백년을 존속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그 뜻을 버리고 쳐버린다면 오늘이 바로 청국이 되는 것이다”는 내용의 2장 반 분량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병자난리일기]는 저자가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한 체험을 서술한 것이기에 호종기간의 일기가 내용의 중심을 이룬다. 즉, 일기는 ‘12월 11일부터 이듬해 4월 4일’까지 쓰였지만, 남한산성에서 겪은 사건서술이 중심을 이루고 남한산성을 나온 이후의 일기는 양적인 면에서나 내용면에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기의 중심은 ‘12월 11일부터 익년 1월 30일’까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일기는 호종기록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중심인물은 주로 국왕으로 되어 있다. 일기의 주체는 저자 자신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체험담이 중심이 될듯하나, 이 일기에서는 국왕을 중심인물로 놓고 조정에서 벌어지는 사건 전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건서술도 대립하는 두 세력인 척화파와 주화파의 갈등관계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일기 곳곳에서 전란의 참혹상과 정치현실의 잘못된 점 등을 서술하고 있다. 전란으로 인한 무질서와 가족 간의 이산, 아비규환과 같은 혼란 등 전란의 참혹상을 사실적으로 서술함으로써 그 폐해를 고발하고 있는데, 이때 작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현존하는 필사본에는 없는 내용이 추가 기록된 것 등으로 미루어 사료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 남급(南磻, 1592~1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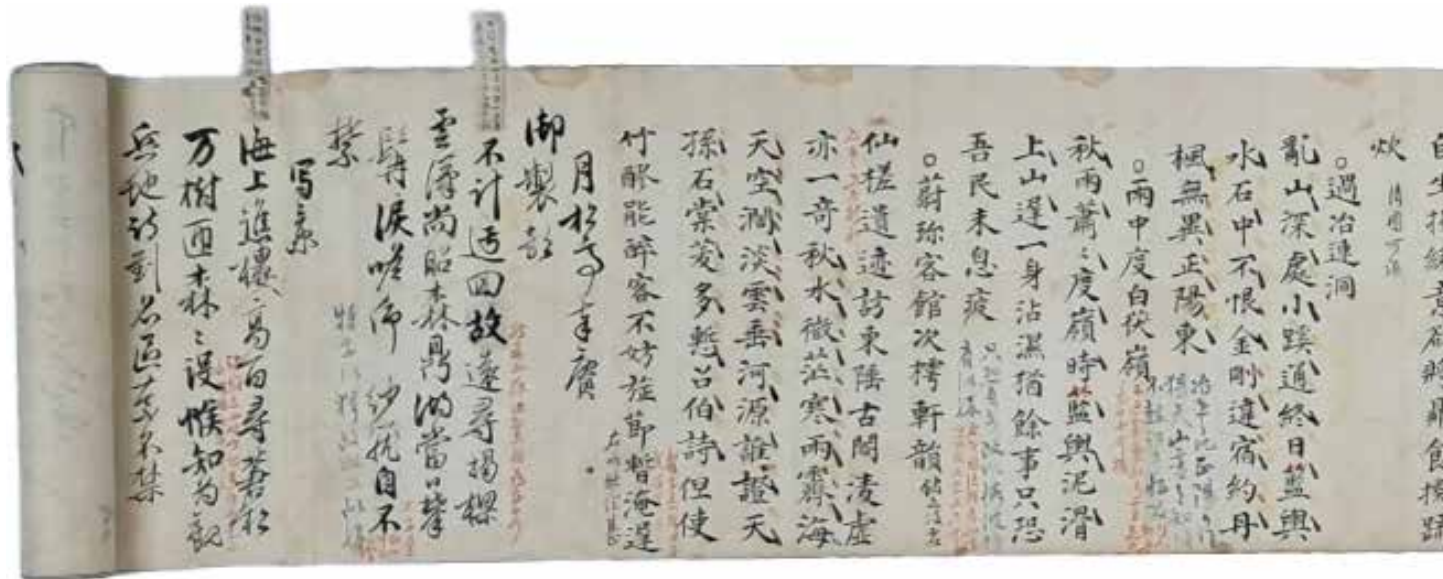
본관은 영양(英陽), 자는 탁부(卓夫), 호는 유유헌(由由軒)이다. 남급은 선조25년(1592)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범상한 아이들과는 달라 가문을 일으킬 아이라는 말을 들었다. 인조14년(1636) 병자호란 때 사옹원 봉사로서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扈從)하였으며, 당시 성 안에서 종이조각을 얻어 산성에서 있었던 일의 수말을 다 기록하였고, 인조15년(1637) 4월 4일 숭덕(崇德)이라는 연호를 쓰자 절필하였다. 이 때 쓴 일기가 [난리일기 亂離日記]이다. 환도한 뒤 종묘시(宗廟寺) 직장(直長)을 제수 받았고, 이에 묘우(廟宇)를 수리하고 위패를 고쳐 봉안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온 해 봄 조정에서는 왕을 호종한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과거를 실시하였으나 홀로 치르지 않았고, 또 얼마 안 있어 별제(別提)를 제수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이로부터 고향에 내려가 [잠농요어 蠶農要語]를 지었으며 인조27년(1649)에는 사림이 김학봉(金鶴峯) 문집을 간행할 때 교정하여 바로잡는 일 등을 했다. 효종3년(1652)에는 의흥현감(義興縣監)을 제수 받았고, 현종 12년(1671)에 세상을 떠나니, 향년 80세이다. 뒤에 호조참판(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문집으로 [유유헌유고 由由軒遺稿]가 있다.



강원도관찰사 홍봉조(洪鳳祚)의 강원도 순유(巡遊) 시축(詩軸)인 [동순유록 東巡遊錄]

戊辰年(1748) | 640x27.7cm, 종이에 먹

시작가 ₩10,000,000



[동순유록 東巡遊錄]은 조선 영조 때 우산(孟山) 홍봉조(洪鳳祚, 1680~1760)가 강원도관찰사로 부임(赴任)한 다음 해인 戊辰年(1748)에 공적(公的)인 업무를 위해 영월-정선-울진-삼척-평창-강릉-양양-춘천을 순유(巡遊)하면서 지은 시문(詩文) 33수(首)가 실려 있는 시축(詩軸)이다. 경포대, 죽서루, 청평사 등 유서 깊은 명소는 물론 객관(客館)을 찾거나 고개를 넘을 때 지은 시문이 긴 두루마리 한지(韓紙)에 해서(楷書)와 행서(行書)로 쓰여 있다. 특히 시문에 능한 당대의 명필 홍봉조가 시문에 밝은 퇴어(退漁) 김진상(金鎭商, 1634~1755), 목곡(牧谷) 이기진(李箕鎮, 1687~1755)에게 받은 비평(批評) 및 발문(跋文)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영월 주천강(酒泉江) 가에 서 있는 청허루(淸虛樓)에서 읊은 ‘청허루억김태백(淸虛樓憶金太白: 청허루에서 김태백을 추억하며)’·‘장릉재사근차단암운(莊陵齋舍謹次丹巖韻: 장릉재사에서 단암의 운에 차운하여)’을 시작으로 ‘정선읍거(旌善邑居)’, ‘과야연동(過冶連洞)’, ‘우중도백복령(雨中度百茯嶺: 빗속에 백복령을 지나며)’, ‘중대사(中臺寺)’, ‘식당천석(食堂泉石)’, ‘계조굴(繼祖窟)’, ‘양양차호곡운(襄陽次壺谷韻: 양양에서 호곡의 운에 차운하여), 이처사유골석합위수이실(李處士遺骨石盒爲水而失: 이처사의 유골석합을 물 때문에 잃어버리다) 등이 이어진다.

또 시문에는 각 지역의 유명한 누정(樓亭)에 올라 어제시(御製詩) 시판(詩板)을 보고 차운(次韻)하여 지은 시들이 많다. 범파정차판상운(泛波亭次板上韻: 범파정의 판상운을 차운하여)’, ‘월송정봉강어제운(月松亭奉廣御製韻: 월송정에서 어제운을 받들어 이다)’, ‘망양정봉강어제운(望洋亭奉廣御製韻)’, ‘죽서루차판상운(竹西樓次板上韻)’, ‘임영관차판상운(臨瀛館次板上韻)’, ‘낙산사봉강어제운(落山寺奉廣御製韻)’, ‘청평사차퇴어운(淸平寺次退漁韻)’, ‘차삼연운2수(次三淵韻二首: 삼연의 운에 차운한 2수)’ 등의 시문을 남겼는데, 이는 잃어버린 누정의 역사를 밝히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한편 두루마리 시문의 여백에는 붉고 푸른색 글씨의 비평이 적혀 있는데 이는 당대 문장가들과 교유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중 퇴어(退漁) 김진상(金鎭商), 목곡(牧谷) 이기진(李箕鎮)이 발문을 붙인 시기는 무진동초(戊辰冬初, 1748년 10월)이다. 자신의 시문이 후세에 전해질 것을 알면서도 비평을 받은 채로 남겼다.

[동순유록 東巡遊錄]은 남겨진 훌륭한 문장의 시문들과 더불어 지금은 사라진 강원도 지역 누정 및 관찰사의 순유(巡遊) 등 향토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보인다.

清虛樓憶金太白

掃灑趨寧越登臨過酒泉
波搖落日楓葉媚寒天行色
知無累秋光喜有年虛樓明
月出如見故人然

清冷浦

江聲淒咽樹陰幽小浦中藏
萬古愁家是子規明月夜九
疑山色怨清秋

莊陵齋舍謹次丹巖韻

天理元來一屈伸六臣忠義但
成仁子規深夜空啼月芳草
長洲漫送春幾年壽之街
霄氣今日洋洋在廟神

億萬宗祔陰佑地行看

邦命舊維新

旌善邑居

才度星磨千丈嶺即看江水
五臺來枕源亦是人間地十室
桑麻野色開

○餘獲郵館次雅和韻

曾於摩詰畫中知今見餘糧

實似之處楓松通細運村

村鷄犬散疎籬忽忘潘子遊

山戎緬憶秦民避世時到此

自是長安意欲分

珠屑之三折竹樓
四十一年前遊
人不知其名
句云爾
下浣



墨評得之
亦難二字來尺之所

曾

實

유교경전의 핵심인 사서삼경(四書三經) 7서(七書)와 언해본 7서(七書) 총 76책 중 75책 일괄

內閣, 純祖20年(1820) | 32.5x21.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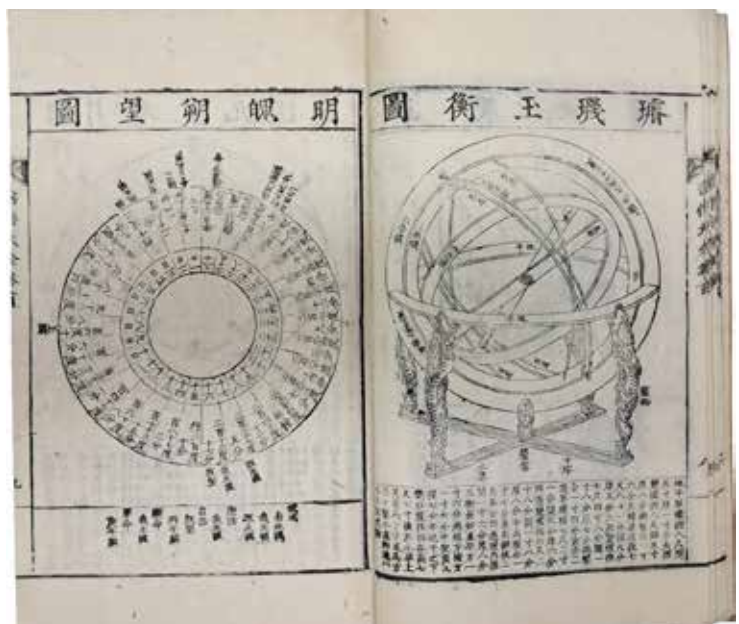
시작가 ₩2,000,000

7서 154권 76책 중 [논어장구대전] 1책이 결본인 152권 75책이다.

[대학장구대전] 1권1책, [중용장구대전] 1권1책, [논어장구대전] 18권 6책, [맹자집주대전] 14권 7책의 사서와 [주역전의대전] 24권 14책, [시경대전] 20권 7책, [서전대전] 10권 10책의 삼경 등 98권 46책이다.

언해본 [대학언해] 1권 1책, [중용언해] 1권 1책, [논어언해] 4권 3책, [맹자언해] 14권 7책의 사서와 [주역언해] 9권 5책, [시경언해] 20권 7책, [서전언해] 5권 5책의 삼경 등 54권 29책이다.

간기가 [庚辰(1820)新刊內閣藏板]이고, 丁酉字翻刻版이다. [논어장구대전] 1책(권4~5)이 결본이고, [맹자집구대전] 1책(권1~2) 표지부분손상과, 내용에는 사용 흔적이 있으나,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184

전(傳) 이광사(李匡師)의 [용문사초선 龍門史抄選] 필사본

李處士 書, 조선후기 | 32x20.2cm, 68장, 필사본

시작가 ₩100,000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史記] 가운데 열전(列傳) 부분을 발췌하여 적은 글이다. 李處士는 李匡師로 짐작되나 상세하지 않다.

이광사(李匡師, 1705~1777)는 조선의 문신이자 양명학자 겸 서예가이며, 현대 한국학의 시조이기도 하다. 상태는 양호하며, 포갑에 담겨 있다.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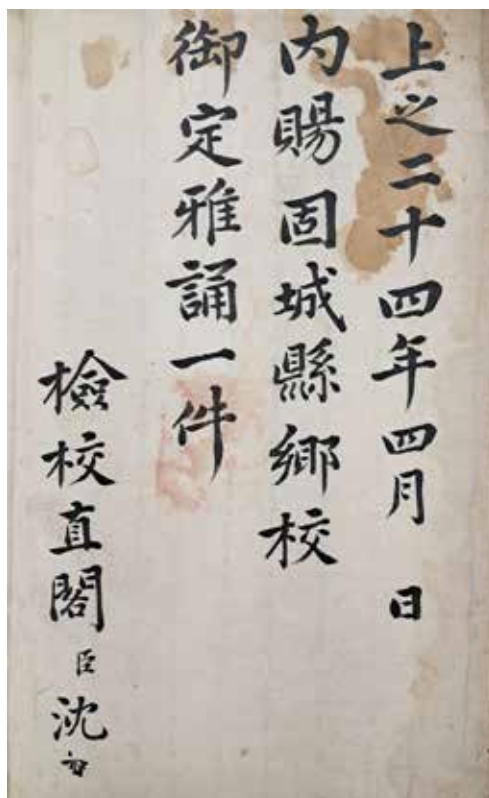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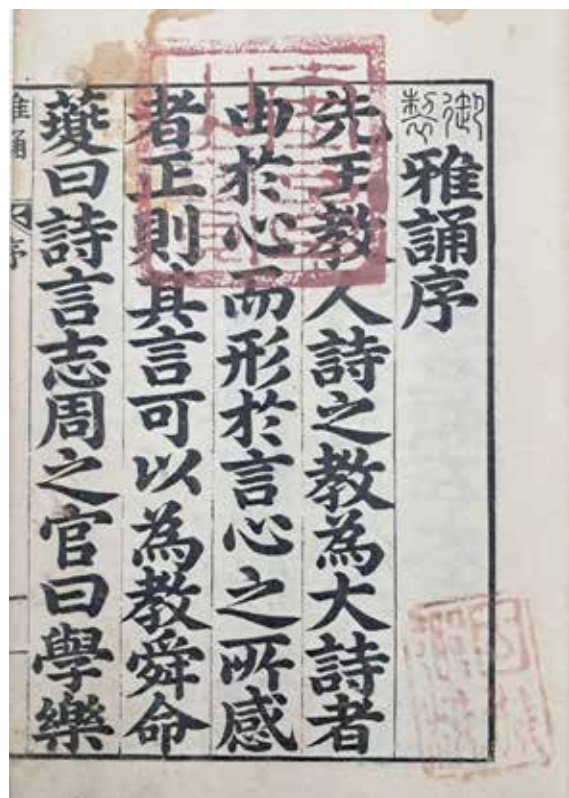
규장지인(奎章之印)과 내사기(內賜記)가 있는 금속활자본 [아송 雅誦] 8권 2책 완질

李處士 書, 조선후기 | 32x20.2cm, 68장, 필사본

시작가 ₩500,000

조선후기 제22대 왕 정조가 [주자대전]에서 시와 운문 415수를 선별하여 1799년에 간행한 시선집인 [아송 雅誦] 2책(권1~8)이다.

표지이면에는 [上之24年(1800)4月日 內賜固城縣鄉校]한 內賜記가 있고, 御製雅頌序에는 [奎章之印]이 있다. 포갑이 있어,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윤원거(尹元舉) 선생의 소장인이 있는 [칠원수기 柒園搜奇] 필사본

1672년 이전 | 16x10cm, 5장, 국한문혼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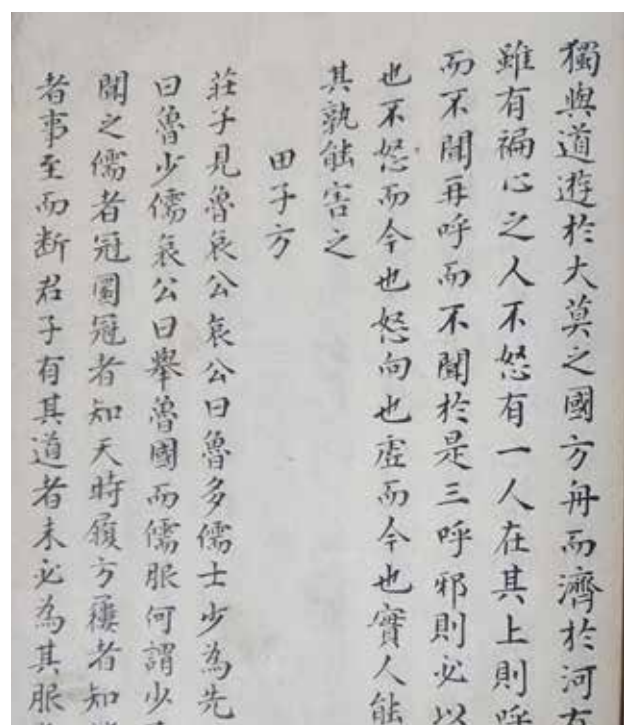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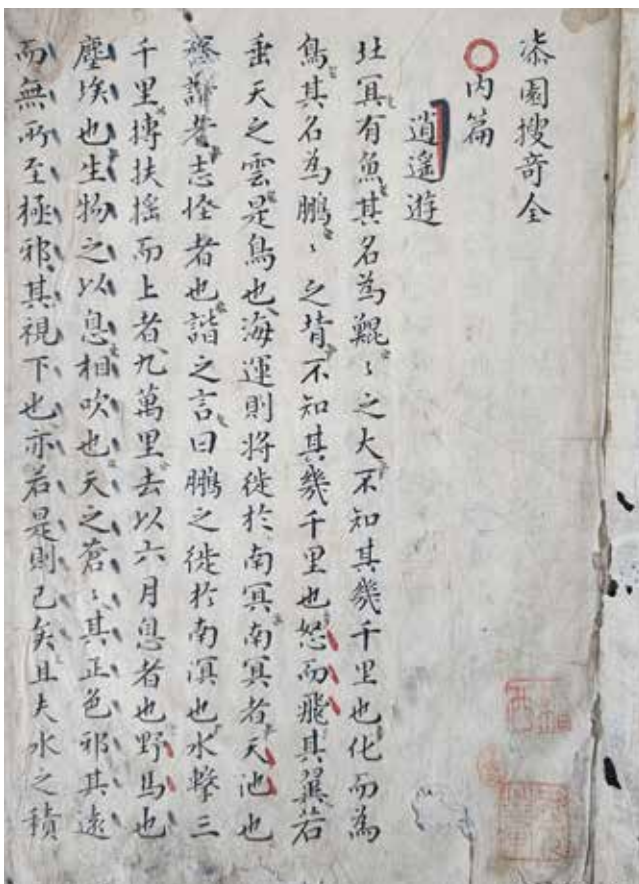
시작가 ₩500,000



장자의 내편과 외편을 필사한 [칠원수기(柒園搜奇)]는 윤원거(尹元舉) 선생의 소장인이 있는 친필본으로 추정된다. 권두, 권말 몇 장이 좀벌레에 의해 부분 손상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윤원거(尹元舉, 1601~1672)는 조선후기에 세자시강원진선 등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백분(伯奮), 호는 용서(龍西). 시강원필선 윤전(尹焮)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해평윤씨(海平尹氏)로 첨지(僉知) 윤환(尹琬)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문장이 뛰어나 이수광(李睟光)의 칭찬을 받았다. 가정에서 학문을 익힌 뒤 1625년(인조 3) 김장생(金長生)의 문하에 들어가 성리학과 예학을 전습하였다. [용서문집]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187

여주목사를 지낸 민두호(閔斗鎬)의 소장인이 있는 [시전대전 詩傳大全]과 [시경언해 詩經彥解] 17책 완질

시작가 ₩1,000,000

- [시전대전 詩傳大全] 20권 10책

전주 완판본, 1810

34x22.5cm, 87張 외, 목판본

각 책마다 '德水後人' '李大永印' '閔泳翊印'의 소장인 3방이 찍혀있다.

권말에 '歲庚午仲春開刊 全州河慶龍藏板'의 간기와 장판기가 있다.

- [시경언해 詩經彥解] 20권 7책

34x22.7cm, 92張 외, 목판본

고정청에서 [시경]에 토를 달고 풀이한 언해서로 1613년에 초간한 이래한 이본(異本)이 여럿 있다.

[두시언해] 이후에 간행된 한시에 대한 언해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본서의 5~6책은 전래경위가 다르며 손상된 부분이 있는 고본이나 나머지 책들과 함께 간행연도는 미상이다.

소장인 '德水後人' '李大永印' '閔泳翊印': 1, 2, 7책

소장인 '德水後人' '李大永印': 3, 4책

민영익(1860~1914)은 대한제국기 '목란', '노근목란' 등의 작품을 그린 화가이자 정치인이다.

188

호조참판 이광세(李匡世)가 찬한 유덕옥(柳德玉)의 [동지중추부사 유공행장 同知中樞府事柳公行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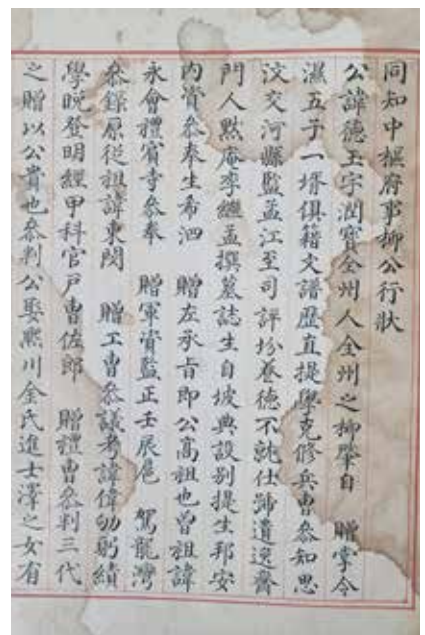
을축년(1745) | 37x24.5cm, 12장, 필사본

시작가 ₩500,000

을축년(1745)에 이광세가 찬한 동지중추부사 유덕옥의 [同知中樞府事柳公行狀]과 경인년(1779)에 유충옥이 지은 [貞夫人廣州李氏行狀]이다. 물 얼룩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유덕옥(柳德玉, 1653~1711)은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한 후 1682년(숙종 8) 천거에 의해 선전관에 임명된 이후 도총부 도사(都摠府都事),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등을 지냈다. 1695년(숙종 21) 큰 흉년이 들자 어명으로 장흥 부사(長興府使)로 나가 굶주린 백성을 고루 살피고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어 여산 영장(礪山營將)으로 옮겨 기근으로 뿔뿔이 흩어진 주민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1700년(숙종 26) 오위장(五衛將)·해미 현감(海美縣監)을 거쳐 김해 부사(金海府使)가 되었다. 1702년(숙종 28)에 김해 부사 재직 중 선정으로 [유덕옥 애민 선정비]가 세워졌다.

이광세(李匡世, 1679~?)는 조선후기 청풍 부사, 형조참판 등 역임한 문신이다.



189

[춘추좌전상절구해 春秋左傳詳節句解]
10책 완질

朱申(宋) 注釋; 孫鑛(明) 批點; 鍊惺 重訂
 조선후기 | 31x20.8cm, 41장 외, 목판본

시작가 ₩700,000

송나라 주신이 공자가 지은 역사서인 춘추좌전에 주석을 붙여 편찬한 책이다. 목판본 35권 10책 완질이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90

사주명리 점술 관련 자료 모음
[소식결초 消息訣抄]

조선후기 | 23x29cm, 55장, 필사본

시작가 ₩200,000

八卦六爻法, 消息訣抄出四課, 四柱評解 등을 수록하고, 특히 推人衣祿食祿에는 색채 그림과 해설이 있다.



윤용구(尹用求) 소장인 있는 [춘추 春秋] 필사본 12책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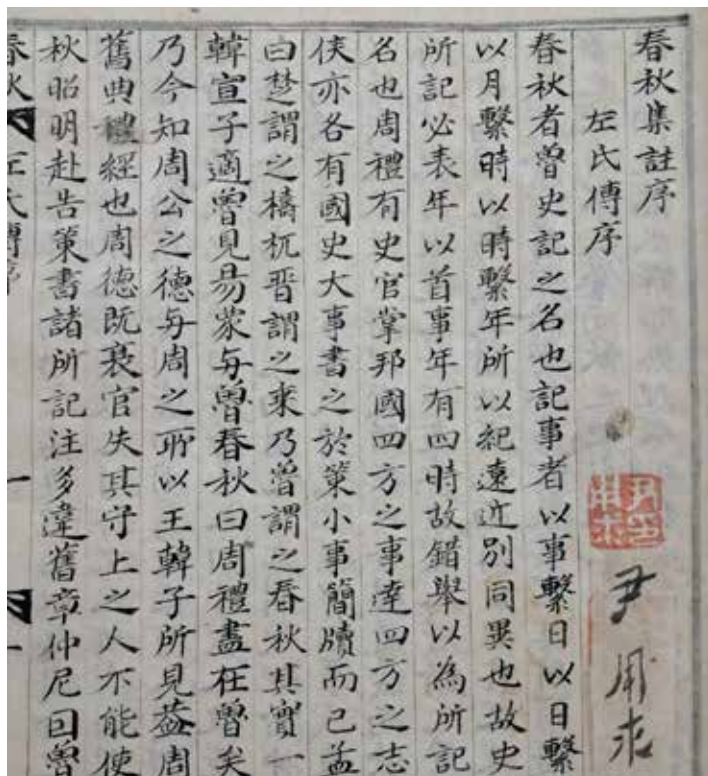
연대미상

시작가 ₩2,500,000



표제에 [尹用求印]이 있어 윤용구가 쓴 역사서 춘추로 보인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윤용구(尹用求, 1853~1939)는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해관(海觀)·수간(睡幹)·장위산인(獐位山人)이다. 1871년(고종 8) 직장(直長)으로서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이조판서에 이르렀다. 글씨는 해서·행서를 많이 썼으며 그림은 난과 대를 잘 그렸다. 금석문으로 과천의 [문간공한장석신도비(文簡公韓章錫神道碑)]와 광주(廣州)의 [선성군무생이공신도비(宣城君茂生李公神道碑)]가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 선암사 입구의 강선루(降仙樓) 현판 등을 남겼다. 한편, 그림으로는 [죽도(竹圖)]와 [묵죽(墨竹)]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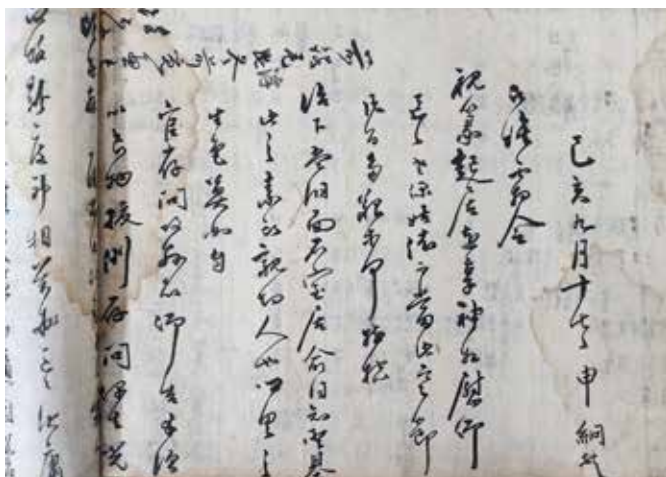
방대한 분량의 대형 만성보(萬姓譜)인 [잠영보 簪纓譜] 3책

조선시대 | 31x36.5cm, 각 권 100여장, 한지겹장 筆寫本

시작가 ₩5,000,000

한국 전통 족보의 일종으로, 주요 인물의 성씨별 계보를 기록한 책인 [簪纓譜] 천지인 3책 필사본이다.

‘天’권에는 이, 김, 박, 최씨, ‘地’권에는 정, 권, 한, 유, 안, 윤, 홍, 조, 송, 오, 심, 신, 민, 서, 강, 남, 황씨, ‘人’권에는 나머지 성씨의 주요인물 계보를 수록하였다. 관문서와 간찰의 이면지에 기록하여, 수백 쪽에 이르는 관문서와 간찰도 연구대 상인 희귀본이다. 오랜 연대에 비해 상태도 양호하다.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 실물 확인이 꼭 필요하다.



193

금속활자본 [사례찬설 四禮纂說] 8권 4책 완질

高宗4년(1867)
30.5x20cm, 금속활자(鑄字本)

시작가 ₩1,000,000

조선 숙종 때의 학자인 이혁(李赫)이 찬술한 사례관계의 예서이다. 이혁은 예론에 특히 밝아서 당시에 이름이 높았다.
이혁은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5대조이다. 고종 4년에 당시의 주자(鑄字)로 간행되었다. 권두에 이하응이 쓴 청색 인출의 서문이 있고, 조두순(趙斗淳)·김병학(金炳學)이 발문을 붙였다. 상태도 양호하다.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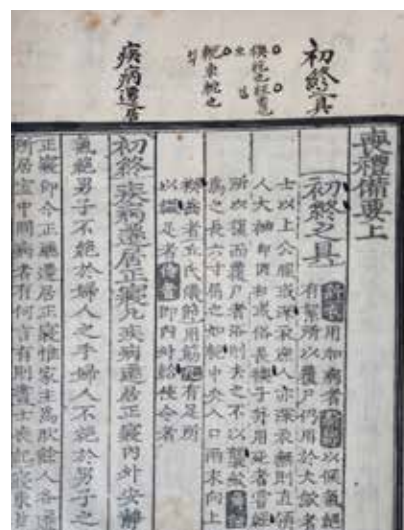
도판이 많은 [상례비요 喪禮備要] 2권 1책

申義慶(朝鮮) 著; 金長生 補
嶺營, 임인년(1848) | 36x25cm, 134張, 목판본

시작가 ₩300,000

이 책은 사당(祠堂)·신주(神主)·의금(衣衾)·최질(衰經)·오복제(五服制)·상구(喪具)·발인(發靚)·성분(成墳)·입비(立碑)·수조(受弔)·진찬(進饌) 등의 도설(圖說)을 책머리 20장에 걸쳐 실었다.

신의경은 당시 김장생(金長生) 등과 같은 예학자와 동유할 정도로 이 방면에 조예가 깊었던 학자였다. 원래는 1권 1책의 분량이었으나 친구인 김장생이 1620년(광해군 12) 여러 대목을 증보하고, 아울러 시속의 예제도 참고로 첨부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들고 서문을 붙여서 그 면모를 새롭게 하였다. 그 뒤 김집(金集)이 이를 다시 교정하여 1648년(인조 26) 2권 1책으로 간행하면서 다시 서문을 붙였다. 책 끝에는 1621년에 쓴 신흙(申欽)의 발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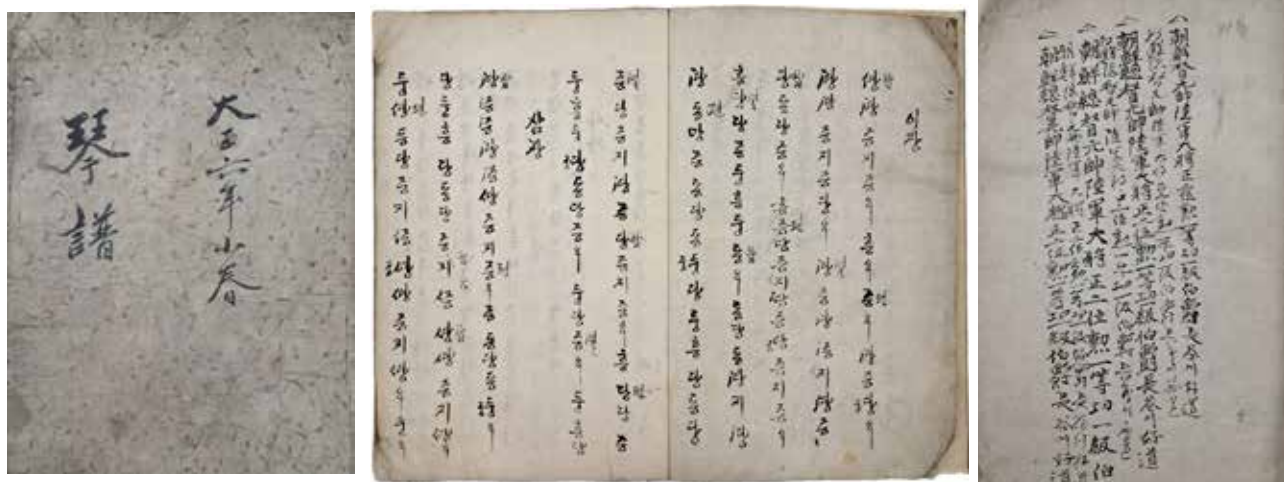
195

한글 국악가사 8개가 수록된 [금보 琴譜]

大正6년(1917) | 29x20cm, 22장 필사본

시작가 ₩500,000

내용은 본영산(초장~오장), 중영산(초장~오장), 잔영산(초장~오장), 가락독리(초장~삼장), 상현돌리, 샘인돌리, 밋돌리(일장~이장), 해탄, 말시초 등을 수록하고 있다. 말미에 [朝鮮總督府 元帥陸軍大將 正二位勳一等功一級伯爵長谷川好道]가 수기되어 있다.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는 2대 조선총독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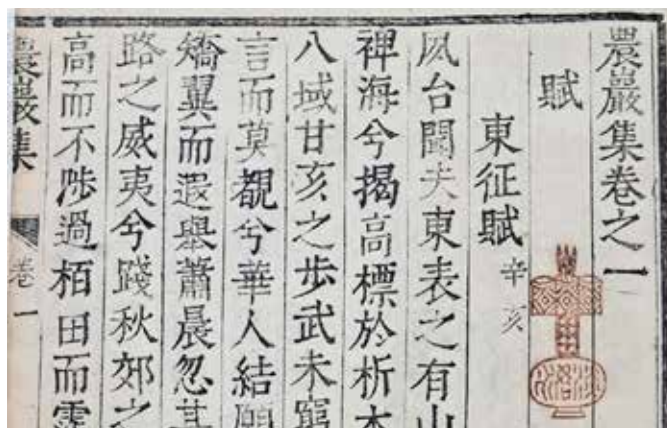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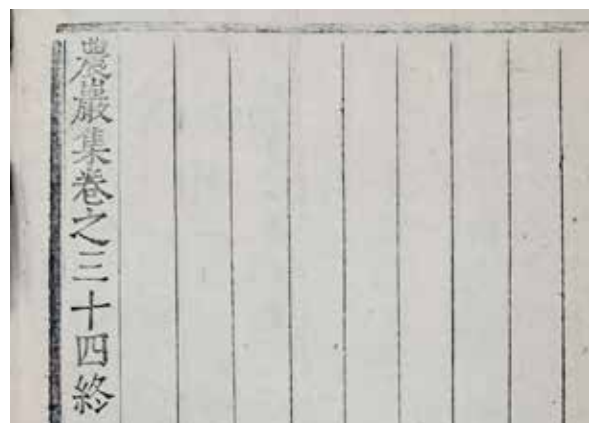
196

투호(投壺) 모양 소장 인(印)이 있는 김창협(金昌協)의 [농암집 農巖集] 34권 17책 완집

金昌協 著 | 己丑年(1709)서
36.5x23.5cm, 84장 외, 활자본(32권15책)+목판본(11,12권 2책)

시작가 ₩3,500,000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조선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서문에는 [崇禎紀元後八十二年己丑(1709)...[金]昌翁] 이 있다. 책 마다 투호 모양의 소장 인이 있다. 투호 하단의 인장 글씨는 '淡洛'으로 보인다. 하단 소장인은 지워졌다. 11, 12권 2책은 목판본이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고빈개비 남규 입석래수비 방남(古幽開碑南圭入石涑水碑房南)의 [안진경서(顔眞卿書)] 탁본첩

庚辰年 | 32.5x16.8cm, 22折1帖

시작가 ₩200,000

고빈개비 남규 입석래수비 방남(古幽開碑南圭入石涑水碑房南)의 탁본첩으로, 중국 당나라 때의 대신이자 명필인 안진경(顔眞卿, 709~785)이 쓴 두보(杜甫)의 시 [고백행 古栢行]이다.



198

조선 정조(正祖)가 찬한 [경흥부 적지 기적비(慶興府赤地紀蹟碑)] 탁본

正祖11년(1787) | 190x74cm, 拓本

시작가 ₩500,000

1787년(정조 11)에 세운 태조(太祖)의 조부(祖父)인 도조(度祖)의 사적이 있는 경흥부(慶興府)에 기적비(紀蹟碑)이다. 이를 탁본하여 전면과 음기를 하나의 족자로 장황한 금석문이다. 정조(正祖)가 찬하고, 서자는 이병모(李秉模)의 글씨, 전서자는 윤동심(尹東暉)의 전서이다. 소재지는 경흥(慶興) 망덕산(望德山) 적지(赤地)이다. 두전(頭篆)은 소전체(小篆體)이며, 음기는 해서체이다. 두전에는 [경흥부적지기적비명(慶興府赤地紀蹟碑銘)]이다. 매우 양호하다.

The background of the page is a light-colored map of Taiwan, showing its geographical features and administrative boundaries. A solid black vertical bar is positioned in the center, and a dark blue rectangular block is located on the right side.

古玩觀止

Part 4.

자료 & 도서 II

No. 199 - 276

199

‘주한미군을 위한 Bing Crosby의 메시지’를 담은 [방송용 아세테이트(ACETATE) 디스크]

NBC 라디오 녹음부서, 1954.3.17. | 지름 25cm

시작가 ₩500,000

빙 크로스비(Bing Crosby)가 녹음한 주한미군 방송용 스팟메시지(비상업용)가 담겼다. 그는 당대 최고의 팝 스타이자 미국 전후 정신의 상징으로 그가 직접 참여한 군 관련 방송자료는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이 디스크는 NBC 라디오 녹음부서가 커팅한 Reference Recording으로, 방송국 내부 보관 또는 특정 방송송출용이다. 녹음 시점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3월 17일이며, 휴전 직후 미군의 주한 방송 체계가 강화되던 시기다. 이 디스크는 ‘Korea Radio Net’을 위한 위문 메시지로, 냉전기 미군 심리전과 문화 전선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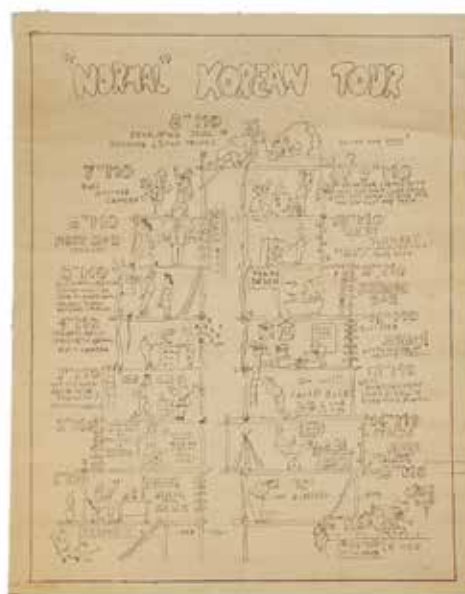
200

한국종군 기념 [Korea Tour] 지도 3종

1960~1962년 | 55x76cm 외

시작가 ₩500,000

- 1) 한국종군 기념 [서울 기념지도(Souvenir Map of Seoul Korea)], 1960년 [일반 한국 투어(Normal Korea Tour)], [서울 시내 지도(Map of Down-Town Seoul)], [미 8군 합동사령부(8th US Army Compound) 등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 2) 한국종군 기념 [서울 기념지도(Souvenir Map of Seoul Korea)]의 반쪽인 [일반 한국 투어(Normal Korea Tour)]의 액자, 1961~1962년
- 3) [일반 한국 투어(Normal Korea Tour)] 등사본





201

제작지 및 번지까지 명확히 각인된 [한반도 지도 입체 금속 재떨이]

京城府 南米倉町(경성부 남미창정) '사토상회'(佐藤商會), 일제강점기
18.5x12.5cm, 주석 또는 아연 합금계열 금속

시작가 ₩500,000

한반도 모양 분리형 재떨이다.
'경성', '목포', '광주', '여수' 등 주요 도시가
표시돼 있다. 중심은 경성으로 설정되어 있
으며, 하단 쪽 목포가 특히 부각돼 있다. 뒷면
에는 제작처 및 번지수가 명기돼 있다.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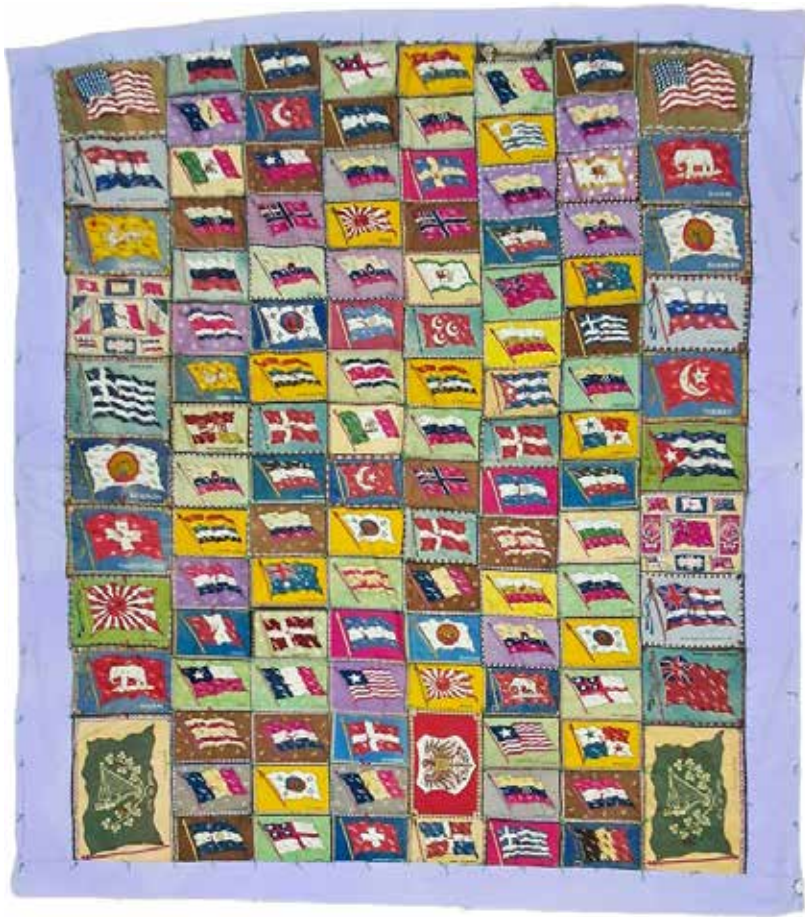
한국을 포함한 37개국 국기가 수록된 어린이 교육용 [만국기 퍼즐]

미국의 밀턴 브래들리 사, 1905년 전후 | 37x52cm

시작가 ₩500,000

1905년 전후로 미국의 밀턴 브래들리사에서 한시적으로 제작한 교육용 퍼
즐이다. 전면에는 세계 각국의 국기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37개국의 깃발
과 함께 옛 형태의 태극기도 들어있다. 뒷면에는 [미국 지도 퍼즐]이 있다.
조각 한 개에서 인쇄 에러가 있는 희귀자료이기도 하다.





203

태극기 등 116개국 국기를 수록한 대형 [펠트 만국기]

1900년대 전후 | 190x210cm

시작가 ₩1,000,000

펠트 재질로 만들어진 만국기로, 각 나라의 국기가 개별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담요 등으로 실제로 사용한 듯하다.

204

조선인삼보명수약 등 인삼 [법랑간판] 3점

일제강점기 | 60.5x10.8cm 외, 일문

시작가 ₩2,000,000

1) 판매점 포와일수판매소 T.판본상점의 [상표 인삼 보명수약] 법랑간판 - 55x36cm, 일문
[오장의 병 양약(五臟の病の良藥)]을 선전하고 있고 상에 구멍을 뚫어 게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2) [조선인삼보명수]과 [인삼보명수약] 법랑간판 2점 - 60.5x10.8cm, 일문
[인삼보명수약(人參保命水藥)]을 선전하는 간판으로 상·하에 구멍을 뚫어 게시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상단의 [藥王]은 중생의 병을 고쳐주는 [약사여래]를 뜻해 만병통치약일 것만 같은 선전이다.



일제강점기에 '간판'이라는 용어와 함께 간판 문화가 이입되어 기관·단체·상점·회사 등이 붓글씨로 된 입간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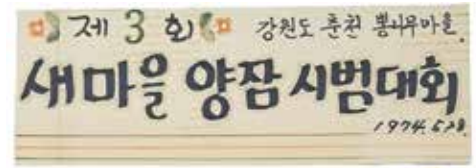
205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1~3회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에 참석한 육영수 여사 사진첩

1972~74 | 30.3x29.5cm, 76점

시작가 ₩3,000,000

새마을 양잠 시범대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참석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행사였습니다. 1972년 경기도 가평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충북 청원, 강원 춘천 등에서 열렸습니다. 육영수 여사는 양잠을 장려하며 농민들을 격려하고, 뽕잎을 따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맨 앞 두 쪽에는 순정효왕후의 친잠기념 자료 등이 실려 있다.



206

경회루를 배경으로 기생모델을 그린 비단광고 [음우견 音羽絹] 상품 광고 포스터

大阪 伊藤萬商店
精版印刷株式會社, 일제강점기 | 77x52cm

시작가 ₩4,000,000

일제강점기 精版印刷株式會社에서 인쇄한 대판우주식회사이 등만상점(大阪 伊藤萬商店)의 비단인 [음우견 音羽絹] 상품 광고 포스터이다. 경복궁 경회루를 배경으로 조선의 유명기생 이옥란이나 유금도를 모델로 그린 듯하다. 아래쪽에 약간 찢긴 것을 제외하고 깨끗하게 보존됐다.

207

이승만대통령 차량용 태극기 및 관련자료

1950년대 | 22x31cm

시작가 ₩3,000,000



출품물은 ‘대통령 차량용 태극기(President’s Car Flag)’와 ‘1950년 12월 6일 자로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임병직(B. C. Limb) 명의
로 발송된 영문 서한’의 복사본, ‘Dr. Eugene R. Lunsford 인벤토리 시트(Inventory Sheet)’ 등 3종이다.

inventory 문서는 원본 문서로 보존돼 있으며, 집경로, 구성 내역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 (상세사진 홈페이지 참조)

○ Flag Heritage Foundation(깃발 유산 재단)

- 설립 목적 : 세계 각국의 깃발, 군기류를 수집·보존·연구하는 비영리단체
- 위치 : Box 373, Lexington, Massachusetts 02173, USA.
- 특징 : “Vexillological Inventory Form” - 상당히 체계적인 연구 기관

○ Dr. Clarence R. Rungee(런지 박사)

- 20세기 중반에 ‘국제 전쟁 깃발 박물관’을 설립하여 운영한 미국의 의사이자 깃발 수집가.
- 아이젠하워 장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오지마 전투, 이승만대통령 등 유명인사의 국가의 깃발을 수집했으며, 사망 시까지 600점 이상의 깃발과 11,000장의 서명 사진, 문헌을 수집하였다.



Flag Heritage Foundation
BOX 373, LEXINGTON, MASS. 02173, U.S.A.

VEXILLOLOGICAL
INVENTORY FORM

Inventory No. 241 Condition Excellent except for small hole
Size 27x12" Location Box 23

Hoisting Flag (Land) Hoisting Flag (Sea)
Hand Flag Desk Flag X Other
Military Color (National) (Regimental) (Other)
Pennant Guidon Signal Flag Rank Flag
Cotton Wool Silk X Linen Synthetic X Other
Original X Reproduction Card Attached Pole
Cords and Tassels Fringe X Award Streamers
Grommets Running Eyes Ribbons X Sleeve
No Tabling Other Accessories:

Date of Manufacture Dates of Usage
Date of Acquisition 1950 Donor C. R. RUNGEE
South Korea President's Car Flag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OUL

9 East 30th Street
New York City
December 26, 1950

Dr. Clarence R. Rungee
Museum of People and Places
38 Dwight Street
New Haven, Conn.

Dear Dr. Rungee:

Your recent letter requesting for an autographed photograph of myself, was received here, but the reply has been delayed because of the press of work at the UN.

I now take pleasure in sending you herewith a picture And President's Car Flag

With greetings of the season,

Sincerely yours,
B. C. Limb
B. C. Limb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CEIVED

재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회 육상경기대회 기념사진

재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회, 일제강점기 | 11x24.8cm

시작가 ₩3,000,000



민족해방 운동을 펼친 ‘재동경 조선 유학생 학우회’의 운동경기 기념사진으로 유니폼에 ‘일본대학 동창회’라는 한글명문과 태극문양의 단체 엠블럼, ‘학우회 육상경기 우승기’ 등이 보이는 기념사진이다.

‘조선유학생학우회(朝鮮留學生學友會)’는 1912년 일본 동경에서 조직된 유학생 단체이다. 한국인 유학생의 학술 장려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조직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가 1910년 강제 해산되자. 신익희(申翼熙)·안재홍(安在鴻) 등이 중심이 되어 1912년 10월 재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로 이름을 바꾸고 사무소를 동경에 두었다. 처음에는 유학생 친목단체로 발족했으나 뒤에 민족운동단체로 발전하였다. 기관지 [학지광(學之光)]을 발간하고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웅변대회·체육대회를 열고, 졸업생축하회·신입생환영회 등을 통해 회원 간의 단결과 배일사상을 고취하였다. 1923년 9월의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 때 한국인 유학생 1,000여명이 학살되면서 배일열이 한층 높아지고 회원도 늘어나면서 세력이 확대되어, 1929년에는 회원수 2,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학우회의 활동에서도 나타났듯이, 조국의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의 문화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다. 매년 여름방학을 이용해 국내순회학술강연단을 조직하고 순회강연을 실시했는데, 일제 관헌의 조사에 의하면 배일독립정신을 고취함으로써 일제에 의해 강연이 중단, 해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특히 1927년 이후 국내에서 동맹휴학사건이 빈번히 일어나자, 학우회에서는 재동경학생맹휴호전국동맹의 이름으로 “전조선학생은 쫓겨하라.”는 격문을 국내에 보냈다. 그리고 유학생대회를 개최한 뒤 독립운동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작성하여 국내운동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닉슨 대통령의 박대통령 내외 공식 초청자료 일괄

1969

시작가 ₩3,000,000

1. 닉슨 대통령 부부 초청장

닉슨 대통령 부부가 박정희 대통령 부부를 위해 주최한 공식 만찬 초청장이다. 행사는 1969년 8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샌프란시스코의 St. Francis Hotel에서 열렸으며, 격식을 갖춘 정장(Black Tie) 행사로 진행되었다.

2. 헌정 카드 (박정희 대통령 부부 예우)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공식 예우 카드로, 'His Excellency'라는 외교 예우상 최고 존칭이 사용된 상징적인 문구가 포함되었다.

3. 공연 프로그램 - 앞뒷면

앞면 - 만찬 후 공연에 참여한 클래식 기타 그룹 'The Romeros'가 소개되어 있으며, 행사가 박정희 대통령 내외를 위한 자리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

뒷면 - 좌측에는 The Romeros 가족의 음악 활동과 공연 이력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우측에는 당일 연주된 프로그램이 정리되어 있다. 바로크 음악과 플라밍고가 조화를 이룬 고급문화 공연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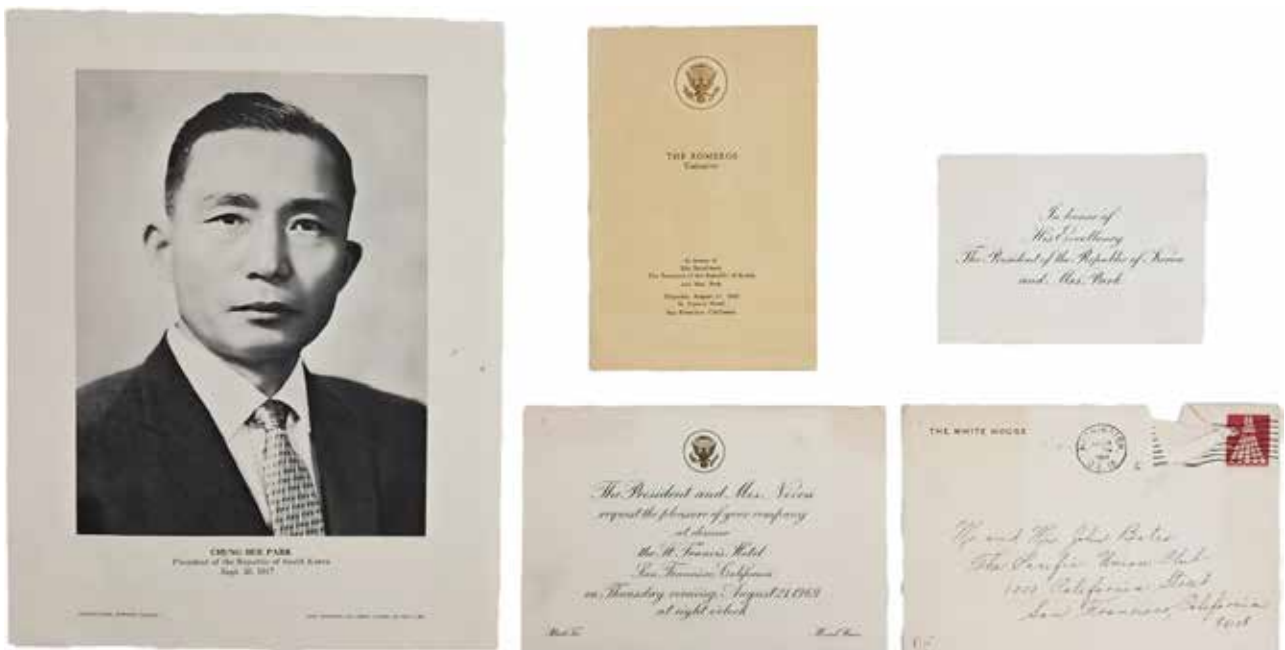
4. 박정희 대통령 공식 인물 사진

1969년 미국 Gale Research사에서 발행한 'International Portrait Gallery' 시리즈에 포함된 박정희 대통령의 공식 인물 사진으로 하단에는 대통령의 영문 이름, 직함, 생년월일이 인쇄되어 있으며, 좌측에는 해당 시리즈 명이, 우측에는 Gale Research의 주소(Book Tower, Detroit)와 발행 연도(1969)가 명시되어 있다.

이 사진은 단순한 복사물이 아닌, 미국 내 공공 도서관, 교육 기관, 외교 자료용으로 정식 인쇄된 초상 시리즈 중 하나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방미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측 시각에서 제작된 이 초상은 당시 외교 맥락과 미국 내 한국 이미지 형성에 이바지한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5. 백악관 발송 봉투 (1969년 8월 14일)

이 봉투는 1969년 8월 14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발송된 것으로, Mr. and Mrs. John Bates (샌프란시스코 Pacific-Union Club 회원)에게 보낸 초청장 봉투이다. 해당 봉투는 박정희 대통령 부부에게 보낸 것은 아니지만, 1969년 8월 21일 St. Francis Hotel에서 열린 공식 만찬과 관련된 동일 초청장 세트의 일환으로 판단되며, 대체용 보완 자료이다.



210

[김씨스터즈(The Kim Sisters)] 7인치 음반 8장 풀세트 모음

1959~1965년 | 17cm

시작가 ₩3,000,000



8장에 아래와 같이 노래가 실려 있는 음반이다.

- 1) 1963판, Lover Star, You can't have everything
- 2) 1959년판, Ching Chang, Harbor Lights
- 3) 1963년판, Blueberry Pie, We're going back together
- 4) 1965년판, Tic-A-Tic-A-Toc-Toc, Bittersweet
- 5) 1964년판, Roses in the snow, Mister Magic Moon
- 6) 1966년판, No sad songs for me, Just like taking candy from a baby
- 7) Charlie Brown, Korean spring song
- 8) A Diamond is forever, Now is the hour

김씨스터즈(The Kim Sisters)는 이난영과 김해송의 세 자매가 어린 시절인 1953년에 결성한 대한민국의 여성 보컬그룹이다.

김씨스터즈는 김해송과 이난영의 두 딸(김숙자·김애자)과 이난영의 오빠 작곡가 이봉룡의 딸(김민자)로 구성된 3인조 걸 그룹이었다. 이들은 악기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노래와 함께 춤까지 쳤으며, 미8군 무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 이윽고 김씨스터즈는 1959년 아시아 걸 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하였다. 1967년 3월 21일 김민자가 작곡가와 결혼하였다. 1975년경 김씨스터즈는 20년간의 미국 공연을 끝내고 은퇴하였다. 김애자는 1987년 4월 18일 라스베이거스 메모리얼 병원에서 폐암으로 숨졌고, 김민자는 헝가리 출신 재즈 연주자와 결혼해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다.

2015년 김대현 감독의 다큐멘터리 [다방의 푸른 꿈 : Try To Remember]가 2015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이 작품은 김씨스터즈에 관한 다큐멘터리로서 이난영에 의해 김씨스터즈가 만들어진 배경과 연습, 음악가 집안에 따른 천부적인 음악적인 감성, 공연감,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을 건너가는 과정, 1년 만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과정을 김민자의 시점에서 이야기하였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김씨스터즈의 활약상은 김숙자의 인터뷰 등 주변 인물들의 다양한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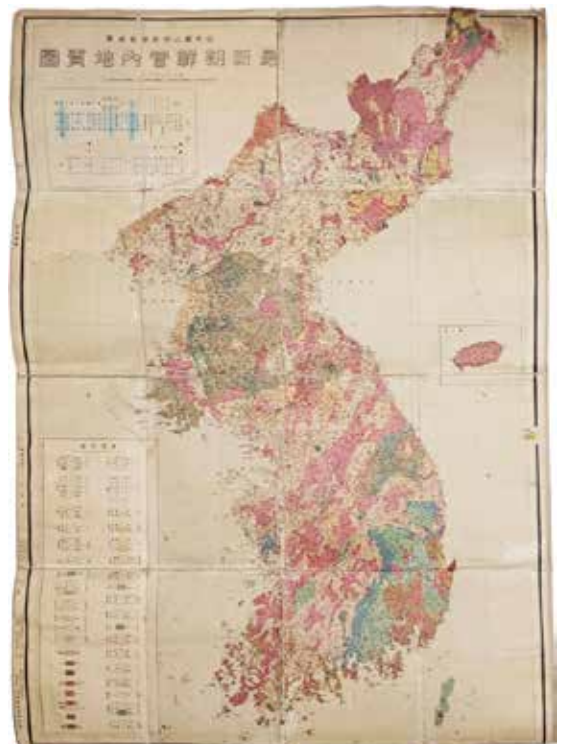
211

일제강점기에 제작한 [최신조선관내지질도]

일본광산지질학회, 昭和15년(1940)

106x76cm, 축척 1/1,000,000

시작가 ₩300,000



5·10 총선거와 제헌 국회 개원식·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관련 사진 53점 일괄

15x19cm 15점 | 12.5x8.5cm 38점

시작가 ₩10,000,000

남한에서만 이루어진 한국 최초의 선거인 5.10 총선거와 관련 서울·부산·전라남도 나주 내촌·강원도 횡성군 등지의 사진 자료로서 미군 통신대(SIGNAL CORPS - U.S. ARMY)에서 촬영한 것과 제헌국회 개원식,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사진 등 총 53점이다.



(1) 5월 8일 미군 통신대 촬영 사진

- 공산주의자들이 선거를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원봉사단체 중의 하나인 한국 자경단원에게 경찰이 지시하는 사진(나주)
- 죽창으로 무장한 전라남도 나주 외곽의 철로를 순찰하는 자경단원 사진(나주)
- 죽창을 들고 투표소 건물을 지키는 자경단원 사진(나주 내촌)
-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사진(나주 내촌)



(2) 5월 10일 미군 통신대 촬영 사진

- 다섯 명의 공산주의자들이 투표소를 공격하여 던진 수류탄 파편에 맞은 선거 관리인과 상처를 확인하는 경찰 사진. 한국 경찰은 습격자 중 1명을 죽이고 4명을 붙잡았다.(서울)
 - 각 경찰서에 폭발물을 설치하는 등 파괴 공작을 하던 2명의 여성을 포함한 5명의 공산주의자 검거 사진.
- 맨 왼쪽에 있는 여자는 수도경찰서장 장택상을 암살 시도하여 종신형 복역 중인 남자의 아내이다. 이 사건은 UN 감독 선거를 해산 시키려는 남한 내 공산주의자들의 또 다른 실패 음모 중의 하나였다.(서울)
- 5명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빼앗은 폭발물과 무기를 조사하는 사진(서울)
 - 서울 시내 각 파출소의 이름과 위치가 표시된 폭발물 사진(서울)
 - 선거 장소에서 수류탄이 떨어진 위치를 지목하는 경찰 사진(서울)
 - 아침 7시에 투표개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 사진(서울)
 - 선거 관리인이 고령 유권자를 지도하는 사진(서울)
 - 2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 개인 부스에 서있는 사진(서울)
 - 유권자의 등록 확인과 투표함에 표를 넣는 사진(서울)
 - 아기를 업은 여성과 낫쇠 담배 파이프를 주머니에 넣은 남성이 투표하는 사진(부산)

(3) 8월 10일 미군 통신대 촬영 사진

새로 임명된 조봉암 농림부 장관과 이인 법무부 장관이 논의하는 사진



(4) 12.5x8.5cm 사진

- ‘총선거’와 홍보 현수막(신성한 이 한 표로 나라를 세우자, 이 표 한 표로 독립이 된다 등)이 있는 종로 사진
- 개원식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청계 국민학교 학생들과 구왕궁 아악대 사진
- 外



<5월 31일 중앙청 홀에서 열린 제헌 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과 남한 주둔 미군 사령관인 존 하지 중장, 미 군정청 장관인 딘 소장 등이 좌정한 개원식 사진>

<남대문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만세’와 ‘맥아더 원수 환영’ 현수막이 걸린 사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 축하식에서 연설하는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등 각종 행사장 사진>





<강원도 횡성군의 투표소와 투표 장면, 투표 행렬, 투표함 등 사진>

* 제헌 국회의원 선거

1948년 5월 10일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로, 5.10 총선거라고도 부른다. 투표율은 95.5%를 기록했다. 한국사에서 최초로 다당제를 정착한 사례, 한국사에서 최초로 민주적 방식으로 공직자를 선출한 사례이다. 원래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나 여기서 선출된 제헌 국회의원들에 한하여 2년 임기였다.

* 제헌 국회 개원식: 1948년 5월 31일 당시 국회의사당으로 쓰인 중앙청 홀에서 열렸다.

*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

1948년 8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앙청(옛 조선총독부) 광장에서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국민축하식이 개최되었다.



<이승만·프란체스카 여사가 동승한 차량과 군악대 행진을 지켜보는 사진>

213

손기정 선수 베를린 올림픽 관련자료 7종 일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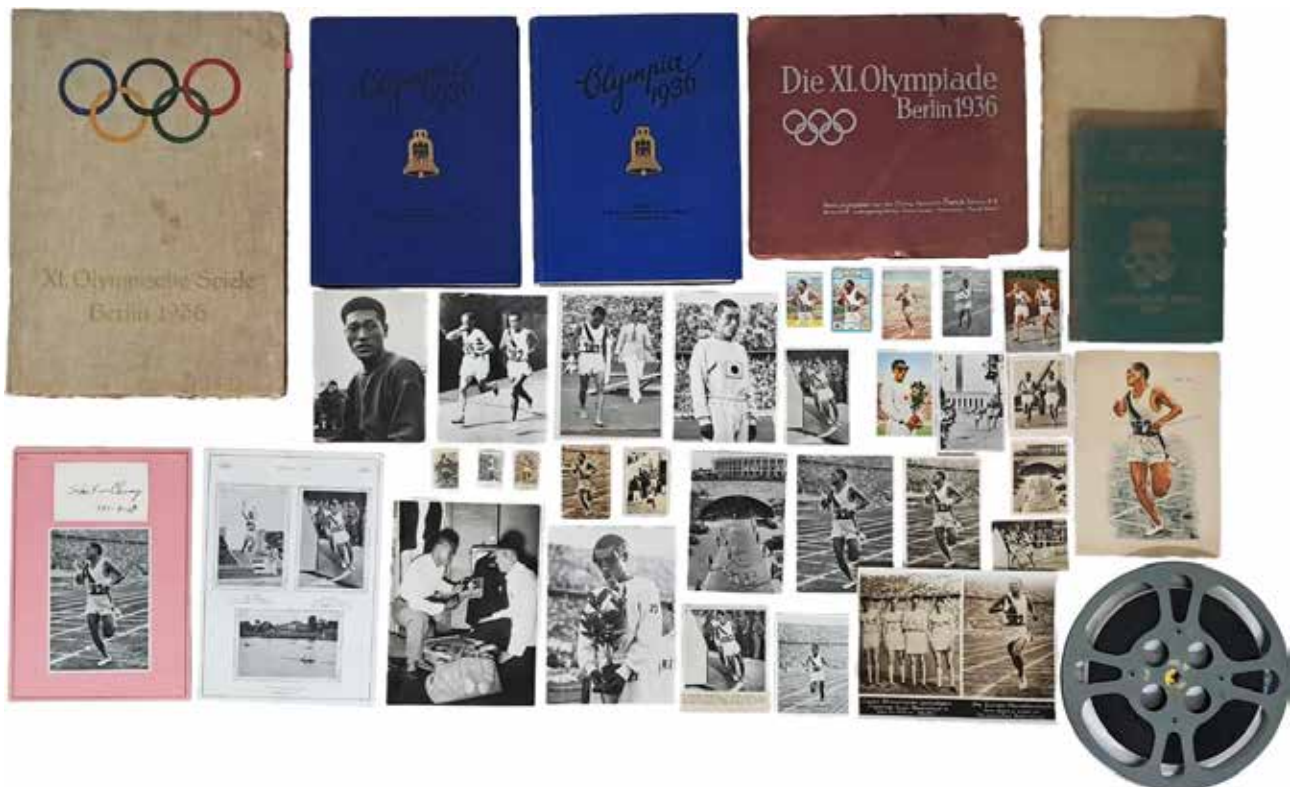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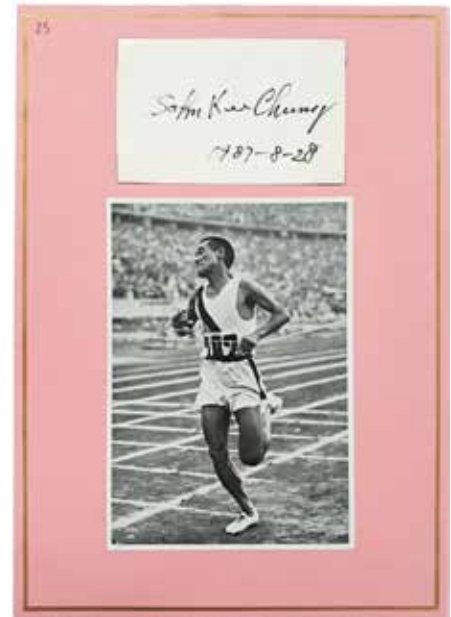
1936년 | 45x32cm 외

시작가 ₩10,000,000

손기정(1912~2002)은 대한민국의 체육인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육상 선수로 활동했으며 주 종목은 마라톤이었다. 1936년 하계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었다. 출품물에는 '베를린 마라톤 하이라이트'를 모은 16mm 필름, 각종 사진들이 포함돼 있다.

주요 출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베를린 마라톤 하이라이트 모음집(The Olympia Marathon Sequence) [손기정 16mm 필름], 1936년, 27cm
- 2)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사진] 자료 32점 일괄
- 3) 손기정 선수 마라톤 출전 사진 등이 수록된 베를린 올림픽 자료집, [제11회 베를린올림픽에서 세계 청년들이 싸워 이긴 모습(so kämpfte und siegte die jugend der welt xi olympiade berlin)], 1936년, 25x17.5cm, 154쪽, 독일어
- 4) 손기정 선수 마라톤 출전 사진 등이 수록된 베를린 올림픽 자료집, Paul Wolff' Leica의 [Sport shots], William Morrow & com, 1937년, 28x21.5cm, 111쪽, 독일어
- 5) 손기정 선수 마라톤 출전 사진 등이 수록된 베를린 올림픽 사진집 [Die XI Olympiade Berlin 1936], 29x33cm, 26쪽, 독일어
- 6) 손기정 선수 마라톤 출전 사진 등이 수록된 베를린 올림픽 자료집 [Olympia 1936, 1~2집 2책], 31.8x24.8cm, 127/165쪽, 독일어
- 7) 손기정 선수 마라톤 출전 사진 등이 수록된 베를린 올림픽 신문자료집 [XI Olympiade Spiele Berlin 1936], 45x32cm, 624쪽, 독일어



214

일본, 조선, 만주, 대만 항공 노선 지도 등이 수록된 [정기항공안내 定期航空案内]

遞信省

日本航空運送株式會社, 昭和9년(1934)
20x9cm, 펼침 38.5x26cm, 일문

시작가 ₩100,000

일본, 조선, 만주, 대만
항공 노선 지도 등을 수
록하였다. 상태는 양호
하다.



215

경성부 상공일람 京城府 商工一覽

京城府, 昭和9년(1934)

21.5x9cm, 펼침 21.5x113cm, 일문

시작가 ₩200,000

경성부 토지면적, 인구, 생
산, 무역, 금융, 상공, 시
장, 교통, 水道, 전기, 제
세공과부담액표, 명소안
내로 나누어 간략하게 수
록하였다.



216

경성부 약도가 수록된 [경성안내 京城案内]

朝鮮博覽會京城協贊會, 昭和4년(1929)
17.5x9.5cm, 132쪽, 일문

시작가 ₩300,000

경성개관, 경성의 위치와 윤곽, 시가대관,
명승구적, 府勢概要로 나누어 간략하게
수록하였다. 말미에, 內鮮滿鐵道連絡略
圖와 京城府略圖가 있다.



217

구한말(舊韓末) [한국신사 韓國紳士] 흑백사진

Artistio Photographe, 구한말(舊韓末)
10.5x16.5cm

시작가 ₩200,000



218

태평양 전쟁 관련 특집 [태평양항공] 자료 등이 수록된 [항공조일 航空朝日] 제1권 제2호

朝日新聞東京本社, 昭和15년(1940)
25.8x18cm, 153쪽, 일문

시작가 ₩100,000

1940년 12월에 朝日新聞東京本社
에서 발행한 [항공조일 航空朝日]
제1권 제2호이다. 태평양 전쟁관련
특집 [태평양항공] 자료 등이 수록되
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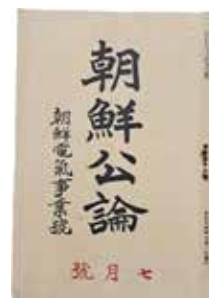
219

조선전기사업 특별호 [조선공론 朝鮮公論] 제13권 제7호

朝鮮公論社, 大正14년(1925)
22.5x15cm, 154쪽, 일문

시작가 ₩100,000

1925년 7월에 조선공론
사에서 발행한 [朝鮮公
論] 제13권 제7호로, 朝
鮮電氣事業 관련 기사
특별호이다.



220

한국전쟁 관련 기사와 사진이 수록된 [미국 카메라 연감(U.S. Camera Annual) 1952]

Maloney, Tom 편
U.S. Camera Pub. Co., 1951년 초판 | 29x22cm, 400쪽, 영문

시작가 ₩200,000

기사 제목은 [Accent on Asia]으로 한국전쟁 관련 기사와 사진이 242~317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221

러일전쟁 관련 인천해전이 수록된 희귀자료 [일출신문호외 日出新聞號外]

合資商報會社, 明治37년(1904)
19x25cm, 일문

시작가 ₩100,000

1904년 2월10일에 합자상보회사에서 발행한 [日出新聞號外]로, 러일 전쟁관련 인천항외해전 공보, 인천해전의 상보, 중국 여순격전을 수록하고 있는 희귀자료이다.



222

조선선 선로약도 등이 수록된 [조선선 열차운전 시각표 朝鮮線 列車運轉 時刻表]

南滿洲鐵道株式會社, 大正10년(1921)
24.5x19.5cm, 5장, 일문

시작가 ₩200,000

1921년에 남만주철도주식회사에서 발행한 [朝鮮線 列車運轉 時刻表]로, 朝鮮線線路略圖 등이 수록되어 있다.



223

한국전쟁 관련 기사와 사진이 수록된 시사주간지 [라이프(Life)] 제29권 제3호

Time Inc., 1950년 | 35.5x26.5cm, 120쪽, 영문

시작가 ₩100,000

1950년 7월 17일 타임지 발행 시사주간지 [라이프(Life)] 제29권 제3호이다. 기사 제목[War by Jet and by Gi]으로 한국전쟁 관련 기사와 사진이 27~39쪽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224

시천교 신앙잡지 [지기금지 至氣今至] 제27호

京城堅志洞侍天教堂宗務本部, 大正4년(1915)
23x15cm, 51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300,000

1915년에 경성건지동시천교당종무본부에서 발행한 시천교 신앙잡지 희귀본 [至氣今至] 1책(제27호)이다. [朝鮮總督府圖書館] 소장인이 있다. 책등이 부분 손상되었다.



225

[국제보도 Pictorial Korea] 제7호

國際報道聯盟, 1947년 | 30.5x21cm, 34쪽 국한문혼용

시작가 ₩200,000

해방 직후인 1945년에 창간된 사진 잡지로, [국제보도] 1947년 제7호이다. 蔣介石씨 愛用機 自彊機에 내린 李承晩 박사과 李靑天 장군 등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책등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양호하다.

226

6.25전쟁 때 전투에 참여한 소대장인 이기홍의 [전선일기(戰線日記)의 한 토막]

단기4286년(1953)
19x12.5cm, 48쪽, 등사본

시작가 ₩100,000

6.25전쟁 때 전투에 참여한 소대장인 이기홍의 전선일기다. 책 표지가 낡고,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내용은 양호하다.



227

출정학도(出征學徒)의 필휴(必携)

국방부, 단기4286년(1953)
18.5x12.5cm, 30쪽

시작가 ₩100,000

전시학도는 쫓기하다, 국군의 사명과 병역의무, 전시학도의 입대 절차, 간부후보생의 입교 및 훈련, 장교의 신분 및 장교 봉급, 장교계급에 따르는 직책개요, 도미유학과 장교의 재교육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지가 낡았으나, 내용은 양호하다.



228

충남 서산농림고등학교 학도호국단 잡지 [서적 瑞笛] 창간호

瑞山農林高等學校 學徒護國團
단기4285년(1952)
21x15cm, 91쪽

시작가 ₩100,000

뒤표지에는 소장자 수기가 있다.
상태는 양호하다.



229

전시 반공사화(戰時反共史話) : 연개소문(淵蓋蘇文) 장군과 안시성(安市城)싸움

大韓史話普及會, 단기4293년(1960) 4판
21x15cm, 66쪽

시작가 ₩100,000

표지에는 戰士騎馬圖
와 거북선이 있다. 목차
와 판권지 면이 보수되
어 있다.



230

역사 학회지 [진단학보 震檀學報] 창간호(제1권) 등 4책 일괄

震檀學會, 1934~1947년 | 22x15cm 외

시작가 ₩200,000

1934년 진단학회에서 창설된 역사 학회지 [진단학회] 제1권(1934), 제2권(1935), 제7권(1937), 제15권(1947) 등 4책이다. 대체로 책등이 손상되었고, 특히 제15권은 책배의 앞부분이 훼손되었다.



231

만주 공산당 운동 개요 滿洲共產黨運動概要

南鐵道株式會社 經濟調查會
소화10년(1935)
22.5x12cm, 97쪽, 일문

시작가 ₩200,000

[經調資料 제63편]이다. 표제에
는 [東亞日報社] 소장인과 책등
에는 청구기호가 목서되어 있다.



232

문흥사에서 발행한 시사계몽 월간잡지 [서광 曙光] 제2호

文興社, 大正9년(1920)
21.5x15cm, 145쪽

시작가 ₩300,000

1919년에 문흥사에서
창간한 시사계몽 월간
잡지인 [曙光] 제2호
(1920)이다. 앞쪽 1장
과 뒤표지가 낙장이고
표지를 덧장했다.



233

한국전쟁 중 대구에서 발행한 시사주간지 [인포 메이슨 Information] 창간호~10호 중 총 9부 일괄

韓國인포메이슨社, 1951년 | 38.5x27cm, 12쪽 외

시작가 ₩2,000,000

1951년 8월 10일에 韓國인포메이슨社에서 창간된 [인포 메이슨] 제1~10호(1951년 8월10일~12월15일, 6호 결)이다. 발행인은 金仁洙이다. 발행기록이 보이지 않는 희귀 주간지이다. 창간호 1면에는 개성의 휴전회담 장소가 보인다. 신문마다 앞쪽에는 전쟁과 세계정세 등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고, 뒤쪽에는 박두진, 신동집, 박영준, 이상노, 오상순, 양명문, 최정희, 김요섭, 조지훈 등 문인들의 글이 실려 있다.

부수마다 4면 또는 12면으로 발행되었다.



234

일제강점기 운행한 [마우차표 馬牛車票] 관련 자료 4점

乙丑年(1925) | 21x19cm, 11쪽 외

시작가 ₩100,000

일제강점기 운행한 [馬牛車票]로 보인다. 牛馬主와 利用金額, 日時, 行先地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문서 4점이다.



235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집 南朝鮮過渡政府法令集

朝鮮行政學會, 1947년
21x19cm, 185쪽

시작가 ₩100,000

[法令 제1호~제156호]이다. 내용에는 붉은색 펜 사용 흔적이 있다. 표제에는 [東亞日報社] 소장인과 책등에는 청구기호가 묵서되어 있다.



236

서울특별시 1955년도 [시세일람 市勢一覽]

서울특별시, 단기4289년(1956)
21.5x15.5cm, 204쪽

시작가 ₩100,000

앞면에는 서울시장 등 주요 간부 사진과 말미에 서울특별시 기구도표가 있다.



237

[상수도안내서 上水道案内書]와 [고지서 영수증 주머니] 2점

서울특별시, 단기4293년(1960) | 26x18cm, 52쪽, 등사본

시작가 ₩300,000

[상수도안내서]와 1960년도 달력이 있는 [고지서 영수증 주머니]이다. [상수도안내서]는 53쪽 이후 낙장이다.



238

방언 수집기 [시골말 캐기(方言採集手帖)]

최현배 엮음
朝鮮語學會, 昭和11년(1936) | 15.3x11.3cm, 120쪽

시작가 ₩100,000

표제에는 [學峰藏書]인이 있다. 책등이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239

조선어학회 사정(朝鮮語學會査定) [한글마춤법통일안]에 대(對)한 비판(批判) : 정음 제16호(正音第十六號) 부록(附錄)

朴勝彬 著
朝鮮語學研究會, 昭和11년(1936) | 22x15cm, 75쪽

시작가 ₩100,000

[學峰藏書]인이 있다. 책등이 약간 손상되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240

극비문서 [조선민족운동연감 朝鮮民族運動年鑑]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第2課, 1932년

22x15cm, 446쪽, 등사본

시작가 ₩100,000

서기1932년 4월 30일 上海佛租界大韓僑民團事務所에서 押收한 大韓民國臨時政府 及 同僑民團保管 文獻에 의거해 在上海日本總領事館 警察部第2課에서 작성한 [조선 민족운동연감] 극비문서이다. 표지에는 물 묻은 자국이 있으나, 상태는 양호하다.



241

[동경대전 東經大全] 등 한국 천도교(天道敎) 도서 자료 10점 일괄

19세기 말 이후 | 18.2x20.5cm 외

시작가 ₩300,000

- 1) [東經大全 권1] : 19세기말, 18.2x20.5cm, 17장, 필사본
- 2) [侍儀經敎] : 侍天敎總部, 1915년, 22x15cm, 410쪽
- 3) [侍天敎典] : 侍天敎總部, 1920년, 23x16.5cm, 11장
- 4) [현각정요 玄覺正要] : 시천교총부, 1920년, 23.5x16.5cm, 17장, 표지 약간 손상
- 5) [侍天敎歷史] : 侍天敎總部, 1920년, 26.5x19.3cm, 95장
- 6) [至氣今至] : 1922년, 17.2x20cm, 12장, 필사본
- 7) [조선어학습장] : 1920년대, 21.5x15cm, 9장, 시천교 교리·원리 필사
- 8) [上帝敎理再編制要綱] : 1941년, 19x12.6cm, 18쪽이후와 뒤표지 등 누락
- 9) [靈友寶鑑] : 上帝敎大本院, 1952년, 19.5x13cm, 97쪽
- 10) [동학혁명기념관] : 춘추전건립위원회, 1970년, 19x12.5cm, 17쪽



242

이승만 대통령관련 자료 3점 일괄

1952~1956년 | 55x40cm 외

시작가 ₩200,000

- 1) 자유당 중앙위원의 [대통령에 이승만 박사, 부통령에 이기붕 선생 추대하면] 리플릿, 1956년
- 2) 대동신문의 [대통령입후보자 정견과 약력], 1952년 7월31일
- 3) 이승만과 미육군 차관 [흑백사진]



조선 황손 이우(李鰐)의 일본 육사시절 감시한 일지 [어훈육일지 御訓育日誌] 희귀본

豫科第4中隊 第1區隊長, 昭和4年(1929)

20x16cm, 18장, 필사본

시작가 ₩5,000,000

일본 예과 제4중대 제1구대장 '사토 중위'가 조선 황손 이우(李鰐)의 일본 육사시절 1929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감시 작성한 일지 [어훈육일지 御訓育日誌]이다.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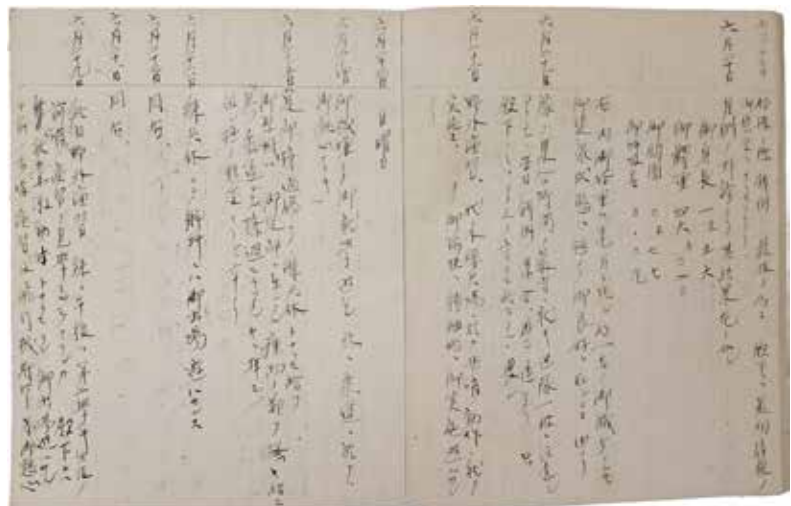
기록한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29년 4월 1일 입교 후 전하를 알현하는 일로 선서식, 입교식 등이 지체되었다. 전하의 의복을 미리 갖추지 못해 체양에 맞는 의복, 장화 등을 구비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소한 일에 잘 참는 전하의 덕을 높이 숭상하고 감격했다. 총명한 자질을 갖추셨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하다. 식사는 주식과 부식을 제공했다. 4월 1일 이후 일반생도들과 같이 勅諭, 奉讃, 의복, 복장 검사 등 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체조 소양 검사 성적은 우수 등 전반적인 학업 상태와 교우 관계를 관찰한 기록도 있다. 문구검사 시 전하는 관급품을 존중하고 전체적으로 잘 활용하였다.

7월 15일 졸업식 예정하는데 생도 1,2인이 빈혈 발생자가 있었으나, 전하는 원기왕성하여, 오후 유도과 훈육학과 시험을 쳤다. 7월 16일 윤리시험, 훈육학과 수업을 공부하였다. 7월 17일 본과 졸업식이 지체되어 마치고 오후에는 외출했다. 7월 20일 전하의 체중이 1키로그램 증가되었으나, 기타 이상은 없다. 일반생도는 체중 감소 등 기타 고장이 많은 시기인데, 전하는 양호하다. 오후에는 중대장 교련 사열 성적이 양호하다. 11월 12일 채조시간 하스케토의 지도상을 산본대위가 받았다. 전하는 從事에 석패했다. 교련시간에 타생도의 지휘를 허하였다...” 등의 내용이 실렸다.

이우(李鰐, 1912~1945)는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고종의 두번째 아들 의친왕 이강의 차남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후예이다. 1917년에 흥선대원군의 장손이며 자신의 당숙인 이준용이 사망하자 그의 양자로 입적되어 운현궁의 4대 종주가 되었다. 운현궁을 상속한 후에 공위를 세습 받아 '이우공 전하'라는 공족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사망 이후에 시호(諡號)인 흥영군(興永君)에 추봉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경기도 경성부 사동궁에서 태어나 일제에 의해 강제로 입학하여 1933년 일본 육군사관학교 45기생, 1941년 일본 육군대학교 54기생으로 졸업하였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일본 제국 육군에 입대하여 중좌 계급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에 의해 일본 인과의 결혼을 강요받았지만, 조선인과 혼인하기 위해 저항하여 박영호의 서손녀 박찬주와 결혼하였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서 원자 폭탄에 피폭되어 8월 7일에 히로시마시 니노시마 섬에서 요절하였다. 1945년 8월 15일에 경성운동장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으며, 유해는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의 운현궁 가족 묘지에 안장되었다.



[교첩] 등 한국 천도교(天道敎) 관련 문서 자료 101점 일괄

19세기 말 이후 | 26.5x37.5cm 외

시작가 ₩4,000,000

출품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임명장 : 융희3년(1909). 최광로를 장의(掌議)로 임명하는 문서. 최광로는 경남 남해군 시천교 조직의 중심인물
- 2) 포장증(褒獎證) : 上帝敎 교주 龜菴 金演局이 최광로를 靈覺神通으로 인정하며 발급한 문서
- 3) 사호(賜號) : 1917년. 시천교 대교주가 최광로에게 峻菴이라는 호를 내려준 문서
- 4~53) 敎牒 : 1918년. 시천교 대교주가 최광로를 侍住大宗院觀道師에 임명하는 문서 外 교첩 50점
- 54) 사호(賜號) : 1918년. 시천교 대교주가 최의조에게 務菴이라는 호를 내려준 문서
- 55) 의신주(義信主) : 1936년. 上帝敎의 교리와 중심내용을 요약하여 織物에 인쇄한 자료
- 56) 수업장(修業章) : 1923년. 상제교의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여하는 褒章의 견본
- 57) 계장(戒章) : 1900년대 초. 上帝敎 교주 龜菴 金演局 명의로 발행된 것으로 上帝敎의 戒章
- 58) 천공장(天功章) : 1948년. 上帝敎 大宗師 명의로 최권조에게 수여한 천공장
- 59) 상표(賞標) : 1900년대 초. 上帝敎에서 발행한 상장(賞狀)
- 60) 성빙(誠憑) : 上帝敎 신자 최권조에게 발급한 증서
- 61) 상제교 휘장 : 龜菴 金演局의 사진과 교리의 강조 내용을 넣어 만든 휘장
- 62) 呪文標 : 1900년대 초. 상제교의 수행과 관련한 주문표
- 63) 上帝敎信憑 : 1952년. 교인 신분증
- 64) 天真敎信憑 : 1960년. 교인 신분증
- 65) 侍天敎標 : 1900년대 초. 侍天敎의 교리와 呪文을 도형화한 표. 1307/1312호 2점
- 66) 기도문(祈禱文) : 1900년대 초 필사본.
- 67) 64괘도 : 19세기 후반.
- 68) 시천교 기도문 : 1940년
- 69) 명념7조(銘念七條) : 1900년대 초.
- 70) 侍天敎注意 : 1931년. 시천교 교리와 중신사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인쇄한 자료.
- 71) 侍天敎呪文 : 1900년대 초 필사
- 72~73) 지령축문(地靈祝文) : 1900년대 초. 시천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축문을 필사한 자료 2점
- 74) 詩文 : 1900년대 초. 시천교인이 설악산 오세암에서 수행할 때 읊은 시문을 필사한 자료
- 75) 감사장 : 상제교교세조사위원장 김창섭이 최권조에게 제1차 교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과 협조한 것에 대해 수여한 감사장
- 76) 제문
- 77) 置簿帳 : 1952년. 경남 남해군 최권조
- 78~79) 四柱單子 : 1900년대 초. 경남 남해군 최권조 자료 등 2점(최양호 戶口單子, 최내호 作名書)
- 80) 決議文
- 81) 토지소유권보전등기신청
- 82) 양도계약서
- 83) 매도증서
- 84) 文契冊 : 1958년
- 85) 차용금증서
- 86) 지적도 : 1910년 7장
- 87~92) 묘적도 : 3장 / 2장 / 8장 / 4장 / 3장 / 2장
- 93) 묘자약도 : 9장
- 94~100) 편지봉투 : 상제교중앙총부에서 인쇄한 봉투 등 7점
- 101) 동학교 관련 성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사진



245

희귀한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에 배치된 한국은행권 [오백환] 등 화폐 8장 일괄

단기4289~4294년(1956~1961) | 7x15cm

시작가 ₩400,000



이승만 도안 [오백환] 3장(1956~1959)과 [천환] 2장, 남대문 도안 [십환] 1장(1958), 세종대왕 도안 [천환] 2장(1960~1961)이다. 특히, 1956년에 발행된 은행권을 보면 도안의 인물 이승만 대통령이 중앙에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 중에는 대통령의 초상이 두 쪽으로 찢어지거나 반으로 접혀서 중앙이 마모되는 등 보기 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을 욕되게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초상을 중앙에 넣어 수모를 주는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돌자, 결국 1958년에는 초상의 위치를 오른쪽으로 바꿨다.

246

캐나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은화 10종 세트

캐나다, 1985~1987년

10.5x37cm, 은화 지름 4cm, 순도 92.5%, 중량 34.107g

시작가 ₩500,000

1988년 캐나다에서 열린 제15회 캘거리 동계올림픽 기념으로 1985~1987년에 발행된 20달러 은화 10종이다.

앞면에는 알파인 스키, 바이애슬론, 봅슬레이, 크로스컨트리 스키,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루지, 노르딕 복합, 스키 점프, 스피드 스케이팅 등 정식 종목의 상징 마크와 뒷면에는 엘리자베스 2세 초상화와 발행년이 기재되어 있다.



247

노무현 대통령 사진자료 10점 일괄

2003~2008년 | 20.5x25.5cm, 10장

시작가 ₩200,000

대통령 취임 식전행사, 전국 검사들과 대화, 한나라당 지도부 오찬, 경제관련 단체장 오찬, 전경련회장 접견, 취임식 애국가 제창, 첫 집무, 일본 국회연설, 한.미정상 기자회견, 조찬기도 등 10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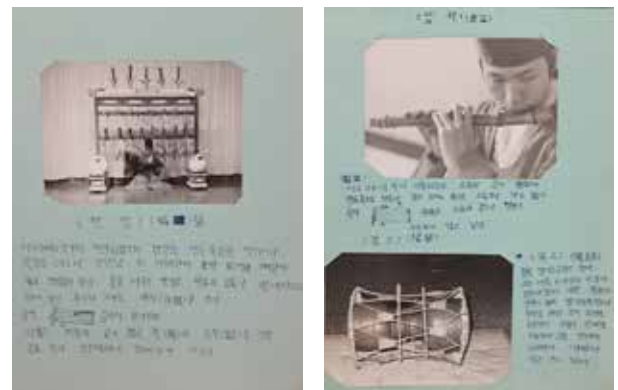
248

국립 국악고등학교 [국악기] 스크랩

연도 미상 | 27x19.5cm, 38장

시작가 ₩100,000

편경, 편종, 특종, 어, 대금 등의 사진과 설명을 수기하여 수록하였다, 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249

조선운송주식회사 창립10주년기념 표창 [청동호 靑銅壺]

1930년 | 높이 31cm, 입구넓이 11cm

시작가 ₩100,000

조선운송주식회사는 1921년 7월 청주에서 5인, 조치원에서 2인, 경성에서 1인의 상인을 중심으로 발기하여 10월에 조선운수창고주식회사 본점으로 개업하였다. 1921년경 이미 당시로서는 현대적인 사무소와 여러 동의 창고를 세워 운수창고업과 미곡, 관염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었다. 상태는 양호하다.

250

보천교 포교 잡지 [연진 研眞] 창간호 / 동학종단협의회 [정관 定款] 등 2점

보천교포교50년(1958) | 24x18 외 / 79x54cm

시작가 ₩100,000

- 1) 보천교포교 잡지 [연진 研眞] 제1호 창간호(1958)- 24x18cm, 52쪽
- 2) 동학종단협의회 [정관 定款] - 26x19cm, 10쪽



251

중일전쟁 당시 일본이 전쟁물자 조달을 위하여 진행한 국방헌납운동 중 경북 영덕에서 헌납한 [전투기 애국호] 사진과 [경북호 헌납식의 노래 慶北號獻納式の歌] 전단 등 2점

일제강점기 | 8.8x13.5 / 13.5x16.5cm

시작가 ₩1,000,000

중일전쟁 당시 일본이 전쟁물자 조달을 위하여 진행한 국방헌납운동 중 [전투기 애국호 1171, 1172호 경북영덕] 사진과 [경북호 헌납식의 가요 慶北號獻納式の歌] 전단이다.



252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정읍 井邑] 등 지형도 7장

국립지리원, 1984~1985 | 79x54cm, 7장

시작가 ₩100,000

전북 정읍, 전북 옥구군 어청도, 전북 이리, 전북 옥구군 신시, 북제주군 추자도, 전남 신안군 소흑산, 대구 등의 지형도이다.

253

[금성 트랜지스터 라디오 MM-1005]

금성사, 1960년대 | 14.8x48x17cm, 합판

시작가 ₩500,000

진공관 라디오의 시대가 끝나고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대의 초창기 모델이다. 트랜지스터 수 10석. 소비전력 250mW, 케이스는 갈색 합판이고, 바닥에 네발이 부착되었고 물품세 납세 증지 등이 훼손상태로 부착되어 있다. 우리나라 초기 라디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자세한 상태 확인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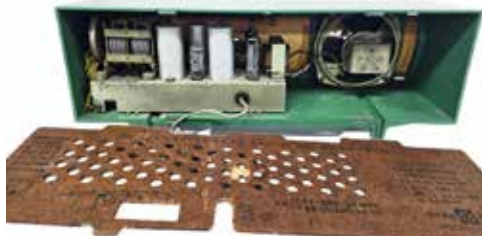
254

[금성 진공관 라디오 A504] 은색

금성사, 1960년대 | 11.5x45x16.5cm, 합성수지

시작가 ₩3,500,000

[금성 진공관 라디오 A504]는 Two Band Home Radio로, 최초 국산 라디오 A-501 라디오 수신기를 변형 설계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명이 긴 보급형으로 제작한 모델이다. 스위치, 트랜스, 소켓 등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였다. 케이스는 은색 합성수지이고 바닥에 네발이 부착되었다. 우리나라 초기 라디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255

[금성 진공관 라디오 A504] 감청색

금성사, 1960년대 | 11.5x45x16.5cm, 합성수지

시작가 ₩3,000,000

[금성 진공관 라디오 A504]는 Two Band Home Radio로, 최초 국산 라디오 A-501 라디오 수신기를 변형 설계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명이 긴 보급형으로 제작한 모델이다. 스위치, 트랜스, 소켓 등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였다. 케이스는 감청색 합성수지이고, 바닥에 네발이 부착되었다. 우리나라 초기 라디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유물이다.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

256

[금성 진공관 라디오 A505]

금성사, 1960년대 | 14.8x46.7x21cm, 합판

시작가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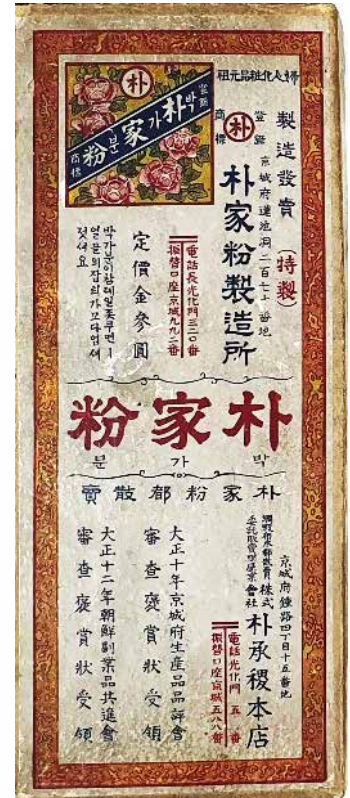
[금성 진공관 라디오 A505]는 Two Band Home Radio로, 최초 국산라디오 A-501 라디오 수신기를 변형 설계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여 수명이 긴 보급형으로 제작한 모델이다. 케이스는 갈색 합판이고, 바닥에 네발이 부착되었다. 뒤쪽 덮개가 없다. 바닥면에 검사표의 부착되었던 표시가 있다.



현존하는 국내유일 박가분 케이스를 포함한
한국 화장품 역사를 아우르는 각종 화장품 160여점 일괄

20세기 이후 | 사이즈 다양

시작가 ₩27,000,000



- 박가분 케이스(10개입)
- 공산품으로 제작된 한국 최초의 화장품인 박가분 10개들이 케이스이다.
- 박가분 장분(4개입)
- 삼호장분(4개입)
- 이화문양 분통(대한제국기 추정)
- 서가도란 1점, 서가연지 2점 총3점
- 럭키 이메리 12개 세트
- 가정 백분
- 앵분(櫻紛)
- 분곽 143점

20세기 들어 여성들의 화장용품으로 분과 크림, 연지, 로션, 동백기름, 향수 등이 판매되었는데, 분은 특히 ‘박가분(朴家粉)’이 유명하였다. 박가분은 1916년에 박승직(朴承稷, 1864 1950)이 만든 화장품의 이름으로 우리나라 화장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박가분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 화장품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거나 중국 무역상들이 몰래 갖고 들어온 것이었다. 박가분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가정집 아낙네를 비롯하여 기생 등 화류계 여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당시 여성 사회를 휩쓸었다.

출품물에는 현재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10개들이 박가분 케이스가 담겨 있다. 이밖에도 일제강점기 초기 화장품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화장품들과 해방 후 한국 화장품 역사를 정리해 볼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작품이 준비돼 있다.

258

근대시기 사랑이야기를 처음 상업적으로 기획한 책인 노자영의 [사랑의 불꽃] 초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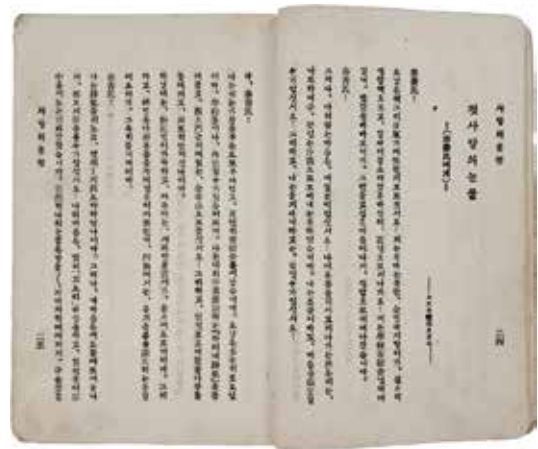
吳殷瑞 編著

新民公論社, 大正12년(1923) 초간 | 18.2x12.3cm, 116쪽

시작가 ₩3,000,000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한글로 창작된 작품인 미국인 오은서(吳殷瑞)의 연애서간집으로, 19편의 연애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1923년 초판에는 작가가 미국인 吳殷瑞로 되어 있으나, 후에 춘성(春城) 노자영(盧子泳. 1900~1940)이 자신이 編者임을 밝혔다. 일제강점기 '자유 연애'와 '상업출판'이라는 바람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이다.

뒤표지와 표제에 소장자 수기와 내지에 펜 흔적이 있다. 표지와 책등이 다소 낡았으나, 모습은 온전하다.



259

안춘근(安春根)의 [출신학교 出身學校] 친필원고

1973년 | 15x21cm, 12매

시작가 ₩300,000

안춘근(安春根, 1926~1993)은 해방이후 강원도 고성출신으로, [출판개론], [한국서지학] 등을 저술한 학자. 출판인이다.

260

박서림이 각색한 박범신의 [미지(未知)의 흰새, 1] 소설극장(小說劇場)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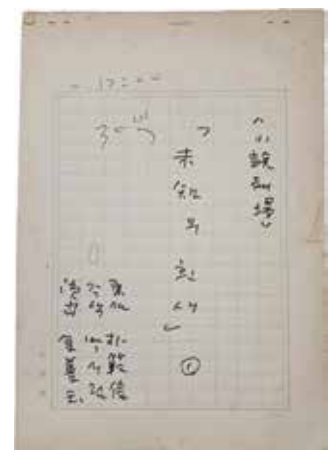
연도미상 | 25.8x17.5cm, 29매

시작가 ₩300,000

박범신 장편소설 [미지(未知)의 흰새]를 박西林이 각색하고, 金善玉이 연출한 소설극장 원고이다.

박범신(朴範信, 1946~)은 전북 익산군 출신 소설가, 아동문학가이다.

박서림(朴西林, 본명: 박홍규, 1930년~)은 충남 서천 출신 소설가이다.



261

전북 전주 출신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 박병순 관련 자료 12종 일괄

1953~2001년 | 17x24.5cm 외, 12종

시작가 ₩500,000



박병순(朴炳淳, 1917~2008)은 전북 전주 출신 현대 문학가 · 시조시인 · 교육자 · 한글운동가이다. 호는 구름재 · 마이산인(馬耳山人)이다.

진안보통학교에서 만난 김해강(金海剛) 시인을 통해 시의 묘미를 알게 되었으며,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하면서 시조를 통해 민족의식을 다졌다. 일제강점기에 시조집을 간행하고 배포하다가 일본 경찰에 잡혀 옥고를 치렀다.

1938년 [동광신문(東光新聞)]에 시조 [생명이 끊기기 전에]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1945년 8 · 15 해방 후에 늦은 나이로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하였다. 스승인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를 중심으로 시조 부흥에 앞장섰으며, 최승범 · 최진성 · 장순하 등과 함께 [새벽]의 동인으로 활동하면서, 신석정 · 백양촌 · 장순하 · 최승범 등과 함께 '가람동인회'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전주상고 · 전주고 · 남원농고 · 전라고 · 임실고 등 여러 고등학교에서 40여 년 동안 평교사로 교직에 몸담았으며, 중앙대 · 전주대 · 명지대 · 한성대 등에도 출강하였다.

한국시조작가협회 부회장 · 한국시조시인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전북도문화상 · 노산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한국 시조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저서로 [낙수첩] · [별빛처럼] · [문을 바르기 전에] · [해돋이 해넘이의 노래] · [구름재 시조전집] 등이 있다.

- 1) 시 [山寺] 원고 1매(뒷면에 못 보고 가면서)
- 2) 시 [解放10년의 노래] 원고 1매
- 3) [漢文](1953) 원고 2매
- 4)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자 : 문화의 설날] 원고 6매(2001)
- 5) 한글 새소식 133호에 실린 [잔인무도한 국어 말살 정책](1983)과 한글 새소식 114호에 실린 [한 밤중에 삼밭에다 던져버린 좌담 회기록](1984) 기사. 4쪽
- 6) 박병순 작사, 정회갑 작곡 한국가곡 백곡집에 수록된 [윤삼월] 1장
- 7) 박병순이 민족문화선언대표로 참여한 [민족문화 선언] 1매(1965)
- 8) 류제하가 올린 편지 원고(1975) 5매
- 9) 1950~1970년대까지 김천 지역 시조 작품 활동 한 대표적 문인인 배병창이 올린 편지 원고 2매(1975)
- 10) 권진희가 올린 편지 1매
- 11) 허난설헌 등 시 해석 원고 1매
- 12) 기타 자료 8매

262

박열 선생 부인 박의숙 여사의 도일(渡日) 기념으로 김포공항에서 찍은 사진

김포공항, 1949.11.29 | 11.4x15.3cm

시작가 ₩100,000

박열(朴烈, 1902~1974) 의사는 1923년 9월 일본 왕세자 결혼식 날에 일왕 부자를 한꺼번에 폭살하려고 폭탄입수를 계획하다가 비밀이 누설되어 검거되었다. 일본인 부인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여사도 함께 구속된다.

두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고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되어 수감 중 가네코 여사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고, 박의사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23년을 일제 감옥에서 보냈다.

석방 이후 일본에서 신조선건설동맹위원장 등 민단 건설에 노력하던 박의사는 48년 8월 정부수립 기념행사 참석차 귀국했다가 6·25 때 서울 장충동에서 인민군에 납북되었다. 납북 후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다가 1974년 1월 18일 74세로 타계, 평양 근처 애국열사능에 안장되었다.

박의사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린 부인은 지난 76년 타계한 박의숙(朴義淑·본명 張義淑) 여사이다. 두 사람이 결혼한 것은 1947년. 당시 박여사는 도쿄여대 일어과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일본 국제신문 기자로 근무했는데 출옥 1주년 맞아 박의사 인터뷰를 갔다가 인연이 돼 결혼하게 됐다. 박의사는 47세, 박여사는 29세였다. 박여사는 결혼 1년 만에 장남 영일(榮一)씨를, 이듬해에 장녀 경희(慶姬)씨를 낳았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6·25 와중에 박의사는 납북됐고 가족들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 이때 박여사는 남편의 뜻을 따른다는 뜻에서 성을 장씨에서 박씨로 바꾸었다. ‘도일’의 목적은 상세하지 않다.



263

20세기 조선 최초의 요릿집 [명월관 明月館] 사진자료 2점

명월관, 1935년 외 | 21x27cm 외

시작가 ₩400,000

명월관 대형 기념사진 하단에 ‘於明月館 1935.1.11.’이 쓰여 있고, 작은 사진 좌측 상단에는 ‘咸興 明月館에서 舊年을 보내며’가 쓰여 있다.



264

군산화력발전소 부지 시찰 기록 사진첩

한국전력, 1965 | 23x27cm, 원본사진 13점

시작가 ₩300,000

1965년 2월 2~4일 사이의 군산건설사무소 관계자 시찰기록이다.

건설공사는 1965년 3월 25일 착공, 1968년 10월 30일 준공되었으며, 공사비는 56억 원(외자 1345만 8000달러, 내자 19억 4000만 원)이 들었다. 무연탄 및 중유 혼소 발전설비로서 보일러는 미국의 바브콕윌콕스(B&W)회사가, 터빈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Westing House)회사가 제작, 공급했다.

이 설비는 국내 무연탄을 사용해 연간 8200만t의 유류 대체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국내 부존자원개발 및 활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65

충주시관내도 忠州市管内圖

충주시, 근대I 75x70cm

시작가 ₩100,000

1:20,000 축척의 충주시 관내도이다.

‘충주전신전화건설국’이 표기돼 있는데, ‘충주전신전화건설국’은 1955년 개국되었다. 1980년 충청전신전화보전국 충주분국으로 개편되었다가, 1982년 충주전신전화건설국으로 재개편되었고, 1983년 연수동 지금의 사옥으로 이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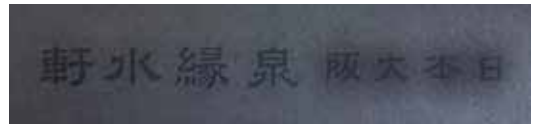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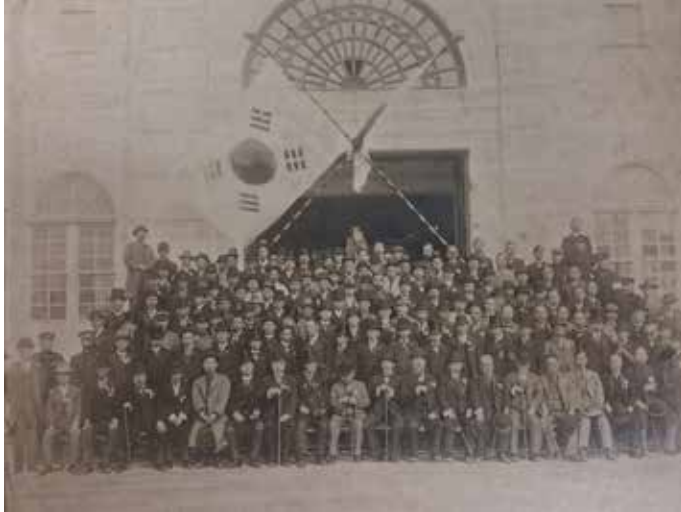
‘분뇨탱크시설부지’, ‘공중목욕탕부지’, ‘공중변소부지’가 지도에 부기돼 있고, 하단 범례에 수기로 정리돼 있다.

우측 상단과 접힌 면에 약간의 손상이 있다.

1909년 경성일보사가 모집한 ‘제1회 일본관광단’의 오사카 방문 대형 사진

한국관광단, 1909.4.18. | 36.5x44cm

시작가 ₩500,000



‘韓國觀光團と大阪觀迎會’

明治四十二年(1909)四月十八日撮影

日本大阪 泉縁水軒‘

출품물은 1909년 4월 18일에 오사카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사진에 위의 글이 인쇄되어 있다.

통감부의 계획 하에 경성일보사가 주관하고 이완용이 개입한 1909년 제1회 일본관광단은 단장 민영소를 비롯하여 대부분 전현직 관리와 실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인 94명, 경성일보사 사원과 통역 등 임원 16명을 합해 총 110명의 대규모 단체였으며, 4월 11일 경부선으로 장도에 올라 일본을 시찰하고 5월 10일에 입성하였다. 통감부는 일본의 제철소·군수공장·방적공장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문명과 고도인 교토·나라 등의 일본 역사문화를 보여줌으로써 한국병합이 구체적 일정에 오르는 시기에 희유책의 일환이었다. 정부에서 여비를 지급하여(09.03.19) 백원씩을 보조하고(09.03.23) 물품을 기증한다던가(09.04.04), 통감 이토가 50명을 보내기로 했는데 총리대신 이완용이 110명을 뽑았다고 하는 설(09.03.24) 등이 있었다.

단장 민영소를 비롯하여 김종한, 이용직, 이헌경, 이중하, 윤용렬, 정만조, 예종석, 윤덕영 등이 참여하였다.

1910년에는 제2회 일본관광단이 공진회 시찰 등의 명목으로 4월 20일에 출발하여 5월 9일에 부산에 도착하였다.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관련한 [담화문]

법무부·행정자치부 장관, 2004.11.4

93.5x63.5cm

시작가 ₩100,000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 공무원 노동조합이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 김영길)가 2004년 11월 1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으나 파업 포기 지부가 속출해 울산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인 파업에 그쳤다. 이 때문에 우려했던 행정 공백 현상은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결국 총파업은 11월 17일 사흘 만에 자진 철회로 마무리됐지만 전교조의 해직 파동 이후 사상 최대의 공무원 해직 사태에 따른 진통과 후유증이 이어졌다. 우측 상단에 약간의 찢김이 있다.

268

조선우선주식회사(朝鮮郵船株式會社) [항로도 航路圖]

조선우선주식회사, 1927 | 78.8x54cm

시작가 ₩300,000

조선우선주식회사가 선박이 항해하는 일정 해로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지도이다.

앞면 좌측 상단에는 조선과 주변국 사이의 기본 항로와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조선, 대만, 요동반도가 일본과 같은 색으로 표시돼 있다. 앞면 좌측 하단에는 '近海航路', '沿海航路', '조선우선주식회사 각 지점의 주소' 등이 표시돼 있다.

뒷면에는 1927년 10월 현재 승선약칙(乘船約則)과 조선, 일본, 중국, 러시아의 각 기항지 간의 운임표가 인쇄돼 있다.



269

[한국근해 해류조사] 포스터

부산 영도 농림부 중앙수산시험장, 1962 | 53.5x37.8cm

시작가 ₩300,000

상단 좌우로 표어가 있다. '해류병이 물에 뒀다. 먼저 주어 상품 타자'란 표어 가운데로 해류병과 엽서 그림이 있다. 우리나라 근해의 해류(海流)를 조사하기 위한 홍보 포스터이다.



270

한국흥산조합 韓國興産組合 [각금영수증 釀金領收證] 2매

隆熙2년(1908) / 隆熙3년(1909) | 24x16cm

시작가 ₩1,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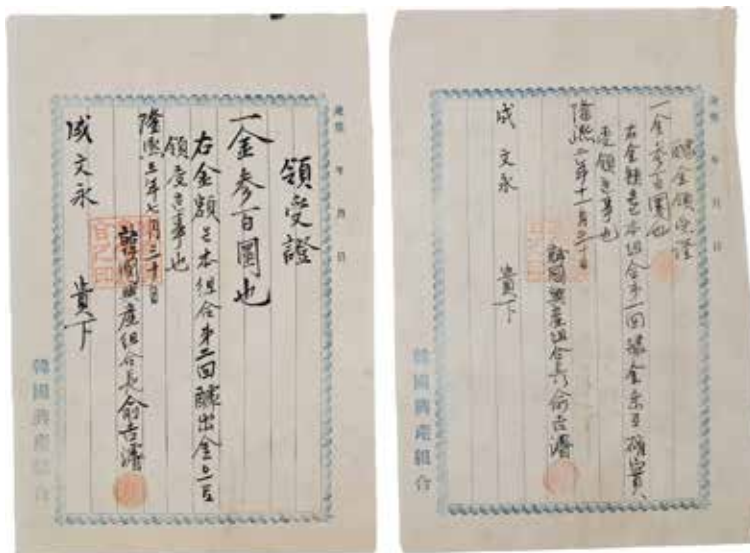
한국흥산조합 조합장 유길준(兪吉濬, 1856~1914)이 성문영(成文永, 1870~1947)에게 각금(釀金, 각출하여 낸 돈)을 받고 써준 1908년, 1909년의 친필 영수증이다.

유길준은 서울 출신으로 조선후기 문신이자 외교관, 작가이며 대한제국의 정치가·개화사상가·계몽운동가다.

성문영(1870~1947)은 조선말기 무과를 통해 관료가 되고 궁내부에서 벼슬을 했다. 이후 실업계로 나아가 우리나라 근대 은행을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에 관여하다가 한일강제합병을 계기로 정계를 떠난다.

아들 성낙인에 의하면 실업계에 투신했을 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어음을 처음 발행하여 썼고(정진명 대담 채록), 호남철도 부설 권도 따냈다고 한다. (국공논문집 제1집)

정계은퇴 뒤에는 오직 활에만 전념하여 조선공술연구회를 만들고 조선궁도회로 전국조직을 확대하여 근대 활쏘기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271

조선부업품공진회개황 朝鮮副業品共進會概況

1923년 | 19x13cm, 12쪽

시작가 ₩1,000,000

朝鮮副業品共進會는 1923년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朝鮮總督府와 朝鮮農會의 주관 하에 景福宮에서 개최되었다. 내용은 '조선부업품공진회장평면도(朝鮮副業品共進會場平面圖)'와 왼쪽 쓰기에서 오른쪽 쓰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흔적을 보여 주는 '관내관람순로도(官內觀覽順路圖)', '출품 물류별 점수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부분이 손상되었고, 표지의 잉크 자국과, 내지에 물 흔적이 있다.



272

TBC 동양방송 라디오 홈 드라마 [아차부인 재치부인] 25회분 원고 375매와 6회분 목차 6매 총 31회 381매 일괄

이관식 극본 ; 김선옥 연출
동양방송(TBC), 1964~1980년 | 27x19.5cm

시작가 ₩1,500,000

TBC 동양방송 라디오 홈 드라마 이관식 극본, 김선옥 연출한 [아차부인 재치부인]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회분 원고 275매와 12월 12일부터 1월 14일까지 6회분은 목차만 남아 있다. [아차부인 재치부인]은 1964년부터 1980년까지 TBC(동양방송)에서 방송된 라디오 홈 드라마이다. 20년 가까이 이어지며 7,000회 이상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이다.



273

이인직 신소설 '귀의 성(鬼의聲)'이 실린 [만세보 萬歲報]

만세보사, 光武10년(1906).11.03 | 54.5x40cm, 4쪽

시작가 ₩800,000

[만세보]는 1906년에 동학의 제3대 교주 손병희의 발의로 창간한 일간 신문이다. 발행소는 한성(漢城) 남서(南署) 회동(會洞 : 지금의 회현동) 85통 4호였다. 사장에 오세창(吳世昌), 발행인 겸 편집인에 신광희(申光熙), 주필은 이인직(李人植)이 맡았다.

친일단체인 일진회(一進會)를 강경한 논설로 계속 공격하였으며, 반민족적인 행위 등을 단호히 규탄하였다. 1906년 7월 22일자부터 10월 10일자까지 이인직의 [혈(血)의 누(淚)]라는 신소설을 우리나라 신문사상 첫 번째로 50회에 걸쳐 연재하는가 하면, 이어 10월 14일부터는 [귀(鬼)의 성(聲)]을 연재하는 등 다채로운 지면구성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천도교 측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여 창간 1년이 지난 1907년 6월 29일 제293호로 종간호를 내었다. 그 뒤 이인직이 시설 일체를 매수하여 1907년 7월 18일부터 [대한신문 大韓新聞]으로 제호를 바꾸어 간행되었다.

출품물에는 이인직의 [귀(鬼)의 성(聲)] 연재 외에 '개천기원절(繼天紀元節) 축하 논설', '명월관 광고' 등 각종 광고 등이 4면에 걸쳐 실려 있다.



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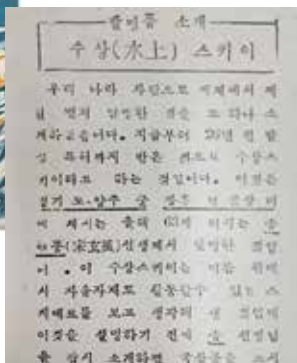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경성시내 중화요릿집 계산내역서 3점

일제강점기 | 19.5x26.8cm 외

시작가 ₩100,000



경성부 관수동(觀水洞) [大觀園], 견지동 [英海樓], 돈의동 [悅賓樓] 등 3곳 계산내역서이다.



275

‘세계 최초로 발명된 수상스키’를 표지모델로 발행된 [과학나라] 8권2호 1책

과학나라사, 1955

20.3x14.8cm, 72쪽

시작가 ₩ 100,000

6쪽의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발명한 것을... 지금부터 26년 전(1929년) 특허 받은 것으로 수상스키라고 하는 것... 경기도 장흥면 삼상리에 사시는 송현풍(宋玄風) 선생께서 발명하신 것으로...”라고 자세한 기사와 함께 그림이 그려져 있다.

276

단독정부 수립 총선거를 교육하기 위한 홍보영화 포스터 [인민투표]

최인규 감독이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문화영화

미국공보원, 1948.4.30. 개봉 | 56x50cm

시작가 ₩3,000,000

감독/각본 : 최인규

출연 : 최지애, 박일룡, 권일청, 전택이

제작자 : 싸이아(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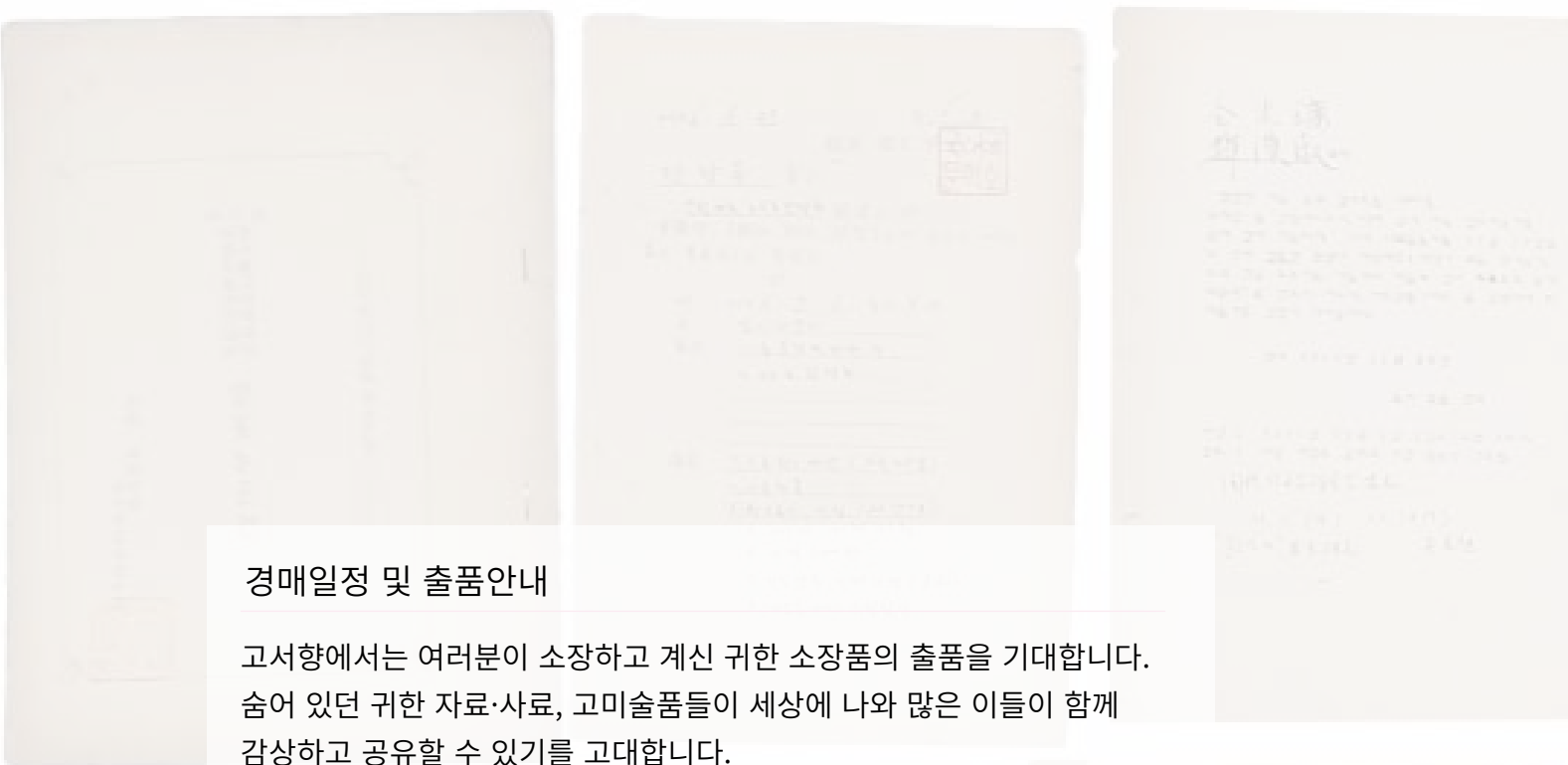
촬영 : 최인규 / 조명 : 함완섭 / 조감독 : 정창화 외

영문제명은 'The People Vote'이다.

※ 崔寅奎(1911~1950)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경매일정 및 출품안내

고서향에서는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귀한 소장품의 출품을 기대합니다.
숨어 있던 귀한 자료·사료, 고미술품들이 세상에 나와 많은 이들이 함께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향후 경매일정 : 제10회 '고완관지' 2025년 9월 (예정)

출품 위탁일정 : 상시

출품문의 : 010-9065-7405

e-mail : dasahn@naver.com

홈페이지 : <https://goseohyang.com>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3(신설동) 진흥빌딩 2층